꿈 바 온

2027 조금 긴 성경이야기

1권 · 1월 – 5월

1월 3일 – 5월 23일 · 21편 완결

사도행전 21–28장, 로마까지 · 종려주일과 부활절기 · 성령강림절

주일마다 한 편 · 미리 읽는 완결판

이 책을 읽는 법

한 주에 한 편. 주일마다 30분 안팎으로 읽는 [조금 긴 성경이야기] 원고입니다. 원고 본체만으로 한 편이 서도록 썼습니다.

원고 뒤 작은 글씨. 목사님 몫 카드(공부거리와 묵상 질문), 인용 구절표(대조 기록과 번역용 메모), 설계 메모(원포인트·중심 그림·계획과 다르게 간 곳)입니다. 원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결판. 사도행전 21–28장(로마 셋집 완결), 종려주일·부활주일, 부활절기(엠마오·도마·디베랴 바닷가), 그리고 승천·오순절 성령강림절·삼위일체주일까지 상반기 21편을 모두 수록한 판입니다.

차례

2027년 상반기 (21편)

1월 3일	울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1:1-16	4
1월 10일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 사도행전 21:17-36	13
1월 17일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 사도행전 21:37-22:29	22
1월 24일	그 밤, 곁에 서신 주님 사도행전 22:30-23:11	31
1월 31일	밤길을 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3:12-35	40
2월 7일	나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4장	49
2월 14일	사슬을 찬 채 초대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5:1-26:32	58
2월 21일	폭풍 한가운데 서는 사람들 사도행전 27:1-26	67
2월 28일	동트기 전에 떡을 떼는 사람들 사도행전 27:27-44	76
3월 7일	마중 나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8:1-16	85
3월 14일	문을 열어 두는 사람들 사도행전 28:17-31	94
3월 21일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마가복음 11:1-11	103
3월 28일	향품을 들고 가는 사람들 마가복음 16:1-8	112
4월 4일	울며 찾는 사람들 요한복음 20:1-18	121

4월 11일	엠마오로 걷는 사람들 누가복음 24:13-35	130
4월 18일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요한복음 20:19-29	139
4월 25일	숯불 앞에 앉는 사람들 요한복음 21:1-14	148
5월 2일	양을 먹이는 사람들 요한복음 21:15-23	157
5월 9일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12-26	166
5월 16일	각 나라 말로 듣는 사람들 사도행전 2:1-13	175
5월 23일	떡을 떼며 모이는 사람들 사도행전 2:37-47	184

2027년 1월 3일 주일

울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1:1-16 · 본문 사도행전 21:1-16 (누가복음 22:42)

성경에는 한 사람이 손님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두 손과 두 발을 묶는 장면이 있습니다. 묶인 채로 그는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입니다. 그리고 그 띠의 임자는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결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울의 비장한 결단으로 읽지 않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고백은 분명 이 이야기의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닫는 마지막 한 마디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고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이야기를 적은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우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일어납니다. 울며 말리던 그들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짐을 꾸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새해의 첫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다섯 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의 이야기를 따라왔고,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 마디를 향해 갑니다. 바울이 어떤 바닷길을 지나 가이사랴의 그 집에 이르렀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대림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다 멈춘 곳은 밀레도의 바닷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들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습니다.

작별하고라고 옮긴 헬라어는 원래 무엇을 억지로 떼어 낸다는 뜻입니다. 서로 붙들고 있던 몸을 떼어 내듯 헤어져 배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21장은 첫 줄부터 이별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배는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지나,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 해안의 두로에 닿습니다. 배가 짐을 푸는 동안 바울 일행은 그 도시의 제자들을 찾아가 이레를 머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구절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걸리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왜 갔을까요?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증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은 바울 앞에 놓인 고난이었고, 가지 말라는 말은 그 고난을 알게 된 그들의 사랑이 내린 결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가 그렇게 읽습니다. 다만 누가는 이 긴장을 매끈하게 풀어 주지 않고 그대로 적어 둡니다. 같은 성령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이 놀랍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가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각은 달랐지만 그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리던 입으로 함께 기도했고, 6절처럼 서로 작별한 뒤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밀레도의 바닷가에서 꿇었던 무릎이 두로의 바닷가에서 다시 꿇어졌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는 이렇게 바닷가마다 무릎 꿇은 자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고, 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짧은 구절 뒤에는 이십 년이 넘는 세월이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긴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날 시작된 박해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그 뒤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박해하던 사람과, 그 박해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한 지붕 아래 머뭅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집에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다는 것만 조용히 적어 두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0절에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장에서 그는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는데,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무렵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연보를 했고, 바울은 그 연보를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조를 들고 오르던 오래전 그 길에도, 연보를 들고 오르는 이번 길에도 아가보가 서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아가보는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말머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외치던 그 꼴을 닮았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베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띠를 바위틈에 감추게 하셨다가, 여러 날 뒤에 다시 가져오게 하십니다. 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띠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띠는 허리에 붙어 있어야 띠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백성이 떨어져 나가 썩어 버린 것을, 하나님은 띠 하나로 보여 주셨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집어 든 것도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이 띠 임자라고 불렀습니다. 길을 떠날 때 허리에 매던 그 띠가 이제 손발을 묶는 끈이 되어, 띠 임자의 앞날을 보여 줍니다.

성령이 보여 주신 그 앞날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아가보의 입에서 나온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는 말은 그 말씀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도 누가는 우리라고 씁니다. 바울을 말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날 자기가 울며 붙잡았던 일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옮긴 헬라어는 무엇을 잘게 부수고 으깬다는 뜻입니다. 너희 눈물이 내 마음을 부수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쇠로 만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 그의 마음도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그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그리고 바울의 대답에는 묶인다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결박 당할 뿐 아니라. 밀레도에서 성령에 매여 간다고 할 때의 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가보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 띠 임자를 결박하리라고 한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과 바울의 대답은 헬라어로 모두 같은 동사입니다. 아가보의 띠가 바울의 손발을 묶기 전에, 바울은 이미 성령께 매여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누가는 복음서 22장에서 감람산의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마지막 말과 가이사랴의 그 집에서 나온 이루어지이다는 헬라어로 같은 동사, 같은 꼴입니다. 같은 사람이 쓴 두 책에서 같은 말이 감람산과 가이사랴를 잇습니다.

다음은 그쳤노라입니다. 체념하고 입을 다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는 뜻의 말입니다. 누가는 이 말을 11장에서도 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복음서 끝에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여인들을 두고도 같은 말을 씁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해지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쉬는 것입니다.

울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드리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붙잡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고요한 맡김이 되었습니다. 말리던 사랑이, 맡기는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붙든 사람은 울던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기에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의 끝을 하나님의 뜻에 걸어 두었습니다. 결박을 각오한 바울과 그를 붙잡고 울던 사람들은, 그날 가이사랴의 그 방에서 결국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뜻 앞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 손을 떼고 물러선다는 뜻이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날, 엘리야는 길갈과 벧엘과 여리고를 지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길목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기에 말을 줄였고, 대신 마지막 걸음까지 스승 곁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성경은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는 순간까지 그들이 함께 걸었다고 적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떠나보내는 그 길에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울며 말리던 우리가 여장을 꾸립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던 가이사랴의 제자들 가운데 몇이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 곳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오랜 제자라고 옮긴 말은 처음 무렵부터 믿어 온 제자라는 뜻입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절부터 주를 따랐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말리던 사람들이 길동무가 되었고,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누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고, 그다음에 여장을 꾸렸습니다.

그 길에는 바울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장 첫머리에는 베뢰아와 데살로니가와 더베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는 이들을 각 교회가 연보와 함께 보낸 사람들로 봅니다. 그 가운데에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백 킬로미터가 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결박이 기다리는 도시로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듯, 그들도 떠나보내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 그 길을 함께 걷는 일이었습니다.

두로의 바닷가와 가이사랴의 집은 무엇이 닮았을까요? 두 곳 모두 성령께서 보여 주신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며 말립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누가는 그 길에 자기 이름 대신 우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리던 사랑이, 맡기는 사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밀레도의 바닷가를 떠나 가이사랴의 그 집에 이르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먼 곳으로 떠나는 자녀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시는 부모님 곁에서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아진 교회 앞에서 이 자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내일을 붙잡고 잠 못 드는 밤도 있습니다. 붙잡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의 사람들도 사랑해서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 눈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바울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마음이 부서진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울며 붙잡는 마음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다만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입에 익은 이

한 줄이, 사랑하는 사람의 길 앞에서는 가장 어려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그냥 두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의 사람들은 성문 밖까지 걸어 나와 무릎을 꿇었고,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짐을 꾸려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붙잡던 자리에서 함께 걷는 자리로 옮겨 서는 일입니다. 떠나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약해지는 부모 곁을 지키는 일, 작은 교회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을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닥칠 결박을 막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걷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길에 놓인 것을 다 막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걸을 수는 있습니다. 주의 뜻에 맡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어쩌면 그것일지 모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갈릴 수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했고, 바울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답을 서둘러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갈라서지 않았다는 것을 적어 둡니다. 생각이 다른 채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사이에도 생각이 갈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두로의 바닷가는 생각이 다른 채로 함께 무릎 꿇는 길이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들어 보인 그 띠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띠에는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도 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같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띠가 허리에 속하듯 바울은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을 각오할 수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끝내 그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자리도, 먼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처음 온몸으로 드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꾸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가보가 바울을 두고 한 말,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그분은 묶여서 넘겨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결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뜻은 넘겨지심과 못 박히심을 지나, 풀어 살리심에 이르렀습니다. 사망도 그분을 매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울던 사람들이 끝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믿은 주님이 결박과 죽음을 지나 살아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바닷가와 여러 집을 지나왔습니다. 몸을 떼어 내듯 헤어진 밀레도의 바닷가가 있었고, 아이들까지 무릎을 꿇은 두로의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박해하던 사람과 흩어졌던 사람이 함께 머문 빌립의 집이 있었고, 아가보의 띠 앞에서 울다가 짐을 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 맨 앞에는 결박되어 넘겨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길도 앞서 걷고 계십니다.

말리던 사랑이, 맡기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과 자리와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말리던 사랑이 맡기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맡긴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성령이 가지 말라 하셨나 — 21:4 "성령의 감동으로 … 들어가지 말라"와 20:22 "성령에 매여", 20:23 "성령이 …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보여 주신 것은 고난이고, '가지 말라'는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결론이라는 읽기가 다수입니다. 원고는 이 읽기를 따르되 "많은 주석가가 그렇게 읽습니다"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23:11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증언을 인정하신 것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2. 같은 동사로 묶인 장면들(헬라어) — δέω(매다·결박하다): 20:22 '매여', 21:11 '잡아매고'·'결박하여', 21:13 '결박 당할'. γίνομαι 명령형 γινέσθω: 21:14 '이루어지이다' = 눅 22:42 '되기를 원하나이다'(같은 저자, 같은 꼴). ἡσυχάζω: 21:14 '그쳤노라' = 11:18 '잠잠하여' = 눅 23:56 '쉬더라'. 덤으로 21:1 '작별하고'(ἀποσπάω, 떼어 내다)는 눅 22:41 '그들을 떠나'와 같은 동사입니다(원고에는 넣지 않음). 21:13 '상하게 하다'(συνθρύπτω)는 신약에 이곳에만 나옵니다.

3.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과 바울의 예루살렘 길 — 눅 9:51, 18:31-33 ↔ 행 19:21, 20:22-24, 21:11-14. '넘겨 주다'(παραδίδωμι), '이방인의 손', 결박. 누가가 두 길을 겹쳐 쓴다는 것은 학자들이 널리 지적하는 점입니다. 다만 아가보의 말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큰 줄기대로 이루어집니다(21:33에서 결박하는 것은 천부장) — 1/10 이야기의 공부거리로 이어집니다.

4. 빌립과 바울 — 6:5(일곱 사람), 8:1-5(사울의 박해와 흩어짐), 8:40(가이사랴), 21:8-9. 둘의 대화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딸의 예언(21:9)은 2:17(요엘 인용)의 성취로 읽는 이가 많습니다.

5. 연보와 동행자들 — 롬 15:25-32, 고전 16:1-4, 고후 8–9장, 행 20:4, 24:17. 사도행전 21장은 연보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누가의 침묵을 두고 학자들의 설명이 갈립니다). 롬 15:31의 기도("건짐을 받게 하고")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는 1/10에서 이어집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지금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사람이나 길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를 드린 뒤, 함께 여장을 꾸리는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 같은 성령 앞에서 생각이 갈렸던 사람과, 생각이 다른 채로 함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이 사이트는 '세례'를 '침례'로 바꾼 곳이 있어(행 22:16) 해당 장은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과 교차 대조함.

1. 행 21:11 — 인용(도입). 원고에서는 "하거늘" 앞에서 끊음

2. 행 21:13 — 인용

3. 행 21:14 — 인용

4. 행 21:1 — 인용(앞부분)

5. 행 20:36-38 — 요약(인용 아님)

6. 행 21:1-3 — 요약 / 행 21:4 — 인용(뒷부분)

7. 행 20:22 — 인용 / 행 20:23 — 요약

8. 행 21:5 — 인용 / 행 21:6 — 요약

9. 행 21:7 — 요약 / 행 21:8 — 인용

10. 행 6:5; 7:58; 8:1, 5, 40 — 요약

11. 행 21:9 — 요약

12. 행 21:10 — 인용

13. 행 11:28-30 — 요약

14. 롬 15:25 — 인용 / 롬 15:26 — 요약

15. 행 21:11 — 인용

16. 렘 13:1-7 — 요약 / 렘 13:11 — 인용(앞부분)

17. 눅 9:51 — 요약 인용 / 눅 18:32 — 인용

18. 행 21:12 — 인용

19. 행 21:13 — 인용

20. 행 21:14 — 인용

21. 눅 22:42 — 인용(뒷부분) ※ 21:14 '이루어지이다'와 헬라어 같은 꼴 — 언어별로 이 문장 조정 필요(역본마다 두 구절을 다르게 옮김)

22. 행 11:18 — 인용 / 눅 23:56 — 인용(뒷부분) ※ '그쳤노라·잠잠하여·쉬더라'가 헬라어 같은 말 — 언어별 조정 필요

23. 롬 15:31 — 인용 / 롬 15:32 — 인용

24. 왕하 2:2, 4, 6 — 인용(2:2의 맹세 문장) / 왕하 2:3 — 인용 / 왕하 2:11 — 인용(앞부분)

25. 행 21:15-16 — 인용

26. 행 20:4 — 요약 / 행 21:29 — 요약(드로비모)

27. 마 6:10 — 인용

28. 롬 14:8 — 인용

29. 눅 22:42 — 인용(전체, 두 번에 나눠 읽음)

30. 막 15:1 — 인용(뒷부분)

31. 행 2:23-24 — 인용

32. 눅 22:42 — 인용(마침 기도)

※ 20:22 '매여', 21:11 '잡아매고·결박하여', 21:13 '결박 당할'은 헬라어 같은 동사 — 언어별로 같은 낱말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춤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한 사람이 손님의 허리띠로 자기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이 띠 임자"의 앞날을 말하는 장면 → 문단 끝에 아가보, 띠 임자 바울

- 흔한 생각: 결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울의 비장한 결단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를 말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울며 말리던 '우리'(누가 자신 포함)였고, 말리던 그들이 그 말 뒤에 여장을 꾸려 함께 올라갔다(15-16절)

- 원포인트: 말리던 사랑이, 맡기는 사랑이 됩니다. (+ 여운 "그리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 원어 포인트: 작별하고(떼어 내다), 매다·결박하다(δέω — 성령에 매여 = 결박하여 = 결박 당할), 상하게 하다(잘게 부수다), 이루어지이다(눅 22:42와 같은 꼴), 그쳤노라(잠잠해지다·쉬다)

- 평행본문 세 장면: 예레미야의 베 띠(렘 13 — 띠가 허리에 속함 같이) · 엘리야와 엘리사(왕하 2 —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 겟세마네(눅 22:42) — 각각 '띠', '함께 걷기', '이루어지이다'를 받침

- 복선과 회수: 밀레도의 무릎(20:36) → 두로 바닷가의 무릎(21:5) / 아가보의 띠 → 롬 14:8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롬 15:31-32 "건짐을 받게 … 하나님의 뜻을 따라" → 1/10에서 응답(쇠사슬을 찬 건짐) / 드로비모(20:4) → 1/10 성전 소동의 불씨

- 우리 자리: 떠나는 자녀, 약해지는 부모, 작아진 교회의 내일 — 붙잡는 마음은 사랑의 첫걸음, 맡김은 함께 걷기 / 같은 성령 앞에서 생각이 갈리는 날

- 그리스도 착지: 겟세마네 "아버지의 원대로" → 결박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지심(막 15:1) →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4) — 주의 뜻의 끝은 빈 무덤

- 중심 그림 하나: 바울의 띠 — 처음(아가보가 띠로 손발을 묶음) · 중간(띠가 허리에 속함 같이 / 이 띠 임자) · 끝(띠의 임자와 바울의 임자, 결박되어 넘겨지신 주님). 1/10은 이 띠가 두 쇠사슬이 되는 데서 시작

- 제목: 「울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울다·함께 가다). 다른 후보: 「바닷가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 「주의 뜻에 맡기는 사람들」

- 새해 첫 주일: 신년 다짐으로 풀지 않고, 대림절·성탄 다섯 주 뒤 밀레도의 바닷가에서 다시 잇는 것으로만 새해를 언급함

- 계획 문서와 다른 점: 계획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는 개역한글 표현입니다. 개역개정 21:14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여서 원고와 제목을 개역개정에 맞췄습니다(예시 파일 이름 대신 제목을 바꾼 까닭)

- 지난주 잇기: 앞 주일(12/27, 눅 2:22-40) 원고는 아직 폴더에 없어, "지난주까지 다섯 주 동안 대림절과 성탄"으로만 가볍게 잇고 사도행전은 계획의 11/22 장면(밀레도의 작별, 20:36-38 본문 사실)으로 이었습니다

- 매일묵상과의 관계: 2027년 1월 평일은 마가복음 1장 부근 — 겹치는 장면 없음

2027년 1월 10일 주일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

사도행전 21:17-36 · 본문 사도행전 21:17–36 (히브리서 13:12-13)

성경에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던 한 사람이 성난 무리에게 붙들려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성전 문들이 닫힙니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을 받았지만, 그날 그가 성전에 있었던 까닭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율법을 버렸다는 오해를 받은 바울이 성난 군중에게 붙잡히는 수난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그냥 넘기기 아까운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그날 성전에 들어간 까닭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화평을 지키려고, 그들이 권한 대로 서원한 네 사람의 비용을 대고 함께 결례를 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화평을 위해 들어간 그 문에서 그는 밀려났고, 문은 닫혔습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입니다. 무리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낸 것은, 지난주 아가보가 띠로 묶어 보였던 바로 그 결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닫힌 문을 향해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가이사랴에서 울며 말리다가 끝내 여장을 꾸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섭니다. 그들을 맞은 것은 기꺼이 열린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열린 문에서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날마다 강론하던 일, 고린도의 작업장, 빌립보의 옥, 그리고 함께 온 여러 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그 이야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의 붓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을 끝으로, 누가가 써 오던 우리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를 때에야 다시 나옵니다. 그 사이 누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목소리가 한발 물러서고, 이제 바울 혼자 앞에 섭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의 교회였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수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소식에 영광을 돌린 바로 그 입에서 걱정이 이어집니다. 21절에 따르면 그들이 들은 소문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지우지 말라고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소문은 바울의 가르침 한 조각을 떼어 내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한 가지 길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는 날에는 머리를 밀고 어린 양과 숫양과 곡식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네 사람 몫이면 적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예식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고린도를 떠날 때를 두고 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율법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멍에에서는 놓였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율법의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을 오래 다니다 돌아온 바울 자신도 이레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일을 두고 바울이 너무 물러섰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것은 복음을 굽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결정은 25절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정 위에서라면,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은 머리를 숙이고 제 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일이 뒤집힙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는 바울이 삼 년 가까이 머물며 복음을 전한 에베소가 있는 지방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 시절을 돌아보며, 유대인의 간계로 시험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들이 성전 뜰에서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고발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고발한 거짓 증인들의

말과 거의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한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이제 스데반이 들었던 그 고발을 듣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누가는 그 고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 둡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올라온 그 이방인 형제입니다. 시내에서 함께 걷는 것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함이러라라고 옮긴 헬라어는 그렇다고 여겼다, 짐작했다는 뜻입니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짐작 하나가 왜 그렇게 큰 불이 되었을까요? 성전의 바깥뜰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뜰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낮은 돌난간이 둘러 있었고,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경고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경고문을 새긴 돌이 십구 세기와 이십 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씩 발견되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그 난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성전을 더럽히는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로비모는 이 일로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두고 일어난 소동으로 스승이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그는 그 뒤로도 바울 곁에 남았습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짐작의 불씨가 되었던 그 이방인 형제는, 그 뒤로도 오래 바울의 길동무였습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누가 왜 문을 닫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을 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문지기들이 서둘러 닫았을 것으로 보는 이가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문 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레의 정결 예식을 거의 마치고, 네 사람과 함께 제물을 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지키려고 닫은 문이, 바로 그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던 사람을 문 밖에 세운 셈입니다. 화평을 위해 들어간 사람이 그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문 앞까지는 왔지만,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을 때,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은 일찍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문 밖으로 끌려 나오고, 문이 닫히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이 뒤로 사도행전의 무대는 성전을 떠나 로마를 향해 갑니다. 많은 학자가 이 닫히는 문소리에 무게를 둡니다. 누가가 이 한 줄을 그냥 적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문이 닫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자리에,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리고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는 로마 군대의 요새가 성전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요새를 안토니아라 부르며, 거기서 성전 행각으로 내려가는 층계가 있었고 명절이면 군인들이 백성을 지켜보았다고 전합니다. 천부장은 천 명쯤 되는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가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그 층계를 달려 내려왔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가이사랴에서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기 손발을 묶어 보였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아가보는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 했지만, 실제로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사람은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예언은 큰 줄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띠는 두 쇠사슬이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두 쇠사슬이라는 말은 양쪽 군인에게 하나씩 매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잠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쇠사슬은 바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쇠사슬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이 나타나자 무리는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묶은 것은 그를 지키려는 뜻이 아니라 소란의 주동자를 붙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이 바울을 무리의 손에서 떼어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군대의 쇠사슬을 바울의 방패로 쓰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응답은 바울이 바랐을 모습과 달리, 이방인 군대의 손에 들려 쇠사슬을 차고 왔습니다. 그 기도의 다음 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가겠다는 소원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쇠사슬을 찬 채 로마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렸을 그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이 성전도 실로처럼 되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소식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이 왕궁에서 올라와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습니다.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리고 2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 죽게 된 선지자를 하나님은 뜻밖의 손으로 지키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히감의 손이었고, 바울에게는 로마 천부장의 손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천부장은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지만,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말로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짐작에서 시작된 소동이었으니 진상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발로 오르지도 못하고 군사들의 손에 들려 층대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없이하자고 옮긴 헬라어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빌라도 앞의 무리가 예수님을 두고 외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울렸던 그 외침을, 층대를 오르는 바울의 등 뒤에서 다시 들려줍니다.

화평을 위해 들어간 성전에서 밀려나고, 문은 닫히고, 쇠사슬에 묶여 이방 군대의 요새로 들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들리는 외침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들렸던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자리에,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열린 문에서 닫힌 문까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문 밖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밀려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를 풀려고 한 걸음 물러섰는데, 그 걸음이 또 다른 오해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따지지 않고 비용을 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구한 길이 늘 화평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 둘 뿐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 뒤에도 자기를 끌어낸 사람들을 향해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오래 믿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은 교회로 남은 우리에게도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한때 열려 있던 문들이 하나둘 닫히고, 사람들은 떠나고, 세상은 우리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에서 밀려난 바울처럼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밖에서 바울이 훗날 쓴 편지들을 펴 봅니다. 그는 갇힌 몸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두고 일어난 소동에서 시작된 결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쇠사슬이라는 말은 21장의 두 쇠사슬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시절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옥문을 열어 달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 문은 닫혔지만 말씀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층대 위에서 다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은 짐작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두고 짐작만으로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까? 함께 걷는 모습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성난 마음을 키운 적은 없습니까? 문을 닫는 손이 꼭 남의 손만은 아닙니다.

문 밖에 선 작은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꼭 우리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이 닫은 문이 있어도, 주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여시려고 주님은 먼저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룩한 곳 안이 아니라, 버려진 자리로 여겨진 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숨을 거두신 순간을 마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람이 지키려고 닫아 둔 가장 깊은 문이 위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읽으며 성전 안뜰의 그 돌난간을 떠올리는 학자가 많습니다. 드로비모를 막아 선 그 담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편지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나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굳게 닫힌 문,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어 갑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문 밖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끌려 나간 그 문 밖에,

주님은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 밖에 선 것 같은 여러분의 자리에도 주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문을 지나왔습니다. 형제들이 기꺼이 열어 준 예루살렘의 문, 화평을 위해 들어간 성전의 문, 이방인을 막아 선 돌난간, 그리고 바울의 등 뒤에서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찢어진 휘장과 굴려진 돌이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자리에,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 문 밖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 화평을 구하다 밀려난 자리에서도, 문이 닫힌 듯한 날에도,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짐작으로 문을 닫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여신 말씀의 문 앞에 작은 능력으로라도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고(21:20-26) — 바울이 지나치게 양보했는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원고는 고전 9:19-23(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과 행 16:3(디모데의 할례), 18:18(겐그레아의 서원)을 근거로 '복음을 굽히지 않은 화평의 선택'으로 읽었습니다. 25절이 15:20, 29의 결정을 다시 확인한다는 점이 이 읽기의 받침입니다. 사도행전은 연보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롬 15:31의 둘째 기도).

2. 성전의 돌난간과 경고문 — 요세푸스(『유대 전쟁사』 5권, 『유대 고대사』 15권)가 이방인의 출입을 막는 난간과 헬라어·라틴어 경고문을 기록합니다. 헬라어 경고문 돌은 1871년(완전한 것,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과 1935년(조각, 예루살렘)에 발견되었습니다. 엡 2:14 '중간에 막힌 담'(τὸ μεσότοιχον)을 이 난간과 잇는 것은 해석입니다 — 원고는 "떠올리는 학자가 많습니다"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3. 원어 — 29절 '생각함이러라'(ἐνόμιζον, 여기다·짐작하다), 33절 '쇠사슬'(ἅλυσις = 엡 6:20 '쇠사슬에 매인 사신', 행 28:20 '이 쇠사슬', 딤후 1:16), 34절 '영내'(παρεμβολή — 히 13:11, 13 '영문'과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달라 원고에는 잇지 않음), 36절 '없이하자'(αἶρε αὐτόν = 눅 23:18 αἶρε τοῦτον, 요 19:15 ἆρον).

4. 문이 닫히는 장면의 무게 — 행 3:1-10(미문)과 21:30을 짝으로 보는 읽기, 그리고 이 뒤로 사도행전의 무대가 성전을 떠난다는 관찰. 누가가 '문'을 이렇게 쓴 의도는 해석입니다. 반유대적으로 읽히지 않게 주의할 곳 — 소동의 시작은 아시아에서 온 일부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수만 명 유대인 신자는 바울을 기꺼이 맞았습니다(17, 20절).

5. 안토니아 요새와 층계 — 요세푸스(『유대 전쟁사』 5권)가 성전 북서쪽 요새와 행각으로 내려가는 층계, 명절의 경계를 기록합니다. 천부장의 이름은 23:26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나옵니다(1/31 본문).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화평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해와 아픔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계신다"는 말씀은 목사님께 무엇을 바꾸어 놓습니까?

- 짐작만으로 누군가에게 문을 닫은 적이 있다면, 그 문을 다시 여는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1. 행 21:30 — 인용(뒷부분, 도입)

2. 행 21:22-26 — 요약(도입)

3. 행 21:17 — 인용

4. 행 21:18 — 인용 / 행 21:19 — 요약

5. 행 21:18; 27:1 — 요약('우리' 서술이 그치고 다시 나옴)

6. 행 21:20 — 인용 / 행 21:21 — 요약

7. 갈 5:2 등 — 요약(이방인 할례 반대) / 행 16:1-3 — 요약

8. 고전 9:20 — 인용(앞부분)

9. 행 21:22-23 — 인용 / 행 21:23-24 — 요약 / 민 6:13-18 — 요약(나실인 예물)

10. 행 18:18 — 인용(뒷부분)

11. 행 21:24 — 인용(뒷부분) / 행 21:26 — 인용

12. 행 21:25 — 요약(15:20, 29)

13. 행 21:27 — 인용 / 행 19:8-10; 20:19, 31 — 요약

14. 행 21:28 — 인용

15. 행 6:13 — 인용 / 행 8:1 — 요약

16. 행 21:29 — 인용

17. 딤후 4:20 — 인용(뒷부분)

18. 행 21:30 — 인용

19. 행 3:2 — 요약 / 행 3:6 — 인용 / 행 3:8 — 인용

20. 행 21:31 — 인용 / 행 21:32 — 인용

21. 행 21:33 — 인용

22. 행 21:11 — 요약 / 행 12:6 — 요약

23. 롬 15:31 — 인용 / 롬 15:32 — 요약

24. 행 28:20 — 인용(뒷부분)

25. 렘 26:2, 6 — 요약 / 렘 26:8 — 인용(뒷부분) / 렘 26:10 — 요약 / 렘 26:14 — 인용 / 렘 26:24 — 인용

26. 행 21:34-35 — 인용

27. 행 21:36 — 인용 / 눅 23:18 — 인용 ※ '없이하자·없이하고'가 헬라어 같은 외침 — 언어별로 같은 낱말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춤

28. 엡 3:1 — 인용 / 엡 6:20 — 인용 ※ '쇠사슬'이 행 21:33과 같은 말 — 언어별로 같은 낱말로 맞춤

29. 골 4:3 — 인용

30. 행 21:29 — 인용('생각함이러라')

31. 계 3:8 — 인용

32. 히 13:12 — 인용

33. 막 15:38 — 인용

34. 엡 2:14 — 인용 / 엡 2:19 — 요약

35. 막 16:3 — 인용

36. 히 13:13 — 인용(본문·마침 기도)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던 사람이 끌려 나오고 그 등 뒤에서 성전 문들이 닫히는 장면 —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을 받은 사람이 실은 정결 예식 중이었다 → 문단 끝에 바울

- 흔한 생각: 율법을 버렸다는 오해를 받은 바울의 수난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① 바울이 성전에 있었던 까닭은 화평(야고보·장로들의 권고를 따른 결례와 비용) ② 무리에게서 그를 건진 것은 아가보가 예고한 바로 그 결박(두 쇠사슬) — 롬 15:31의 기도가 쇠사슬을 차고 응답됨

- 원포인트: 문 밖으로 밀려난 자리에,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 여운 "그러니 문 밖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 원어 포인트: 생각함이러라(짐작하다), 두 쇠사슬(ἅλυσις = 엡 6:20), 없이하자(눅 23:18과 같은 외침)

- 평행본문 세 장면: 미문의 걷지 못하던 사람(행 3 —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 ↔ 문 밖으로 밀려난 사람) · 성전 뜰의 예레미야와 아히감의 손(렘 26 — 뜻밖의 손으로 지키심) ·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히 13:12-13, 막 15:38 휘장)

- 복선과 회수: 지난주 아가보의 띠 → 두 쇠사슬 / 지난주 롬 15:31 기도 → 쇠사슬을 찬 건짐, 28:20 / 드로비모(20:4) → 소동의 불씨 → 딤후 4:20 그 뒤로도 오래 남은 길동무 / 17절 열린 문 → 30절 닫힌 문 → 찢어진 휘장·굴려진 돌 / 스데반의 고발(6:13) → 1/17 '부형들아'로 이어짐 / "바울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 1/17 층대 위의 말

- 우리 자리: 화평을 구하다 밀려난 자리,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작은 교회, 그리고 짐작으로 문을 닫는 우리 자신

- 그리스도 착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히 13:12) →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막 15:38) →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엡 2:14) → 무덤 문의 돌(막 16:3) →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3)

- 중심 그림 하나: 성전 문 — 처음(등 뒤에서 닫히는 문) · 중간(미문 / 돌난간 / 쇠사슬) · 끝(찢어진 휘장, 굴려진 무덤 문). 1/17은 이 문 밖 층대에서 시작

- 제목: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 — 눈에 보이는 자리(문 밖에 서다). 다른 후보: 「문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 막 16:3(부활주일 3/28 본문)은 한 줄만 썼습니다 — 3/28 이야기와 겹치지 않게

- 매일묵상과의 관계: 1월 평일 마가복음 초반 — 겹침 없음

2027년 1월 17일 주일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

사도행전 21:37-22:29 · 본문 사도행전 21:37–22:29 (사도행전 7:2)

성경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군사들의 손에 들려 층대를 오르던 한 사람이, 층대 위에 서서 방금 자기를 치던 무리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리치던 무리가 조용해지자 그는 그들의 말로 이렇게 입을 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바울이 다메섹 길의 회심을 다시 들려주는 대목으로 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오는 회심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라고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니면 로마 시민권으로 채찍을 피한 바울의 지혜를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첫마디가 이 이야기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부형들아, 곧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이 말은 오래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시작할 때 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가운데에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 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부름을 향해 갑니다. 지난주 닫힌 성전 문 밖에서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어떻게 층대 위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은 놀랐습니다. 그는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무렵 스스로 선지자라 하며 무리를 이끌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가 로마 군대에 흩어진 한 애굽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붙잡히지 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성전 뜰을 뒤흔든 이 소동의 한가운데로 그 애굽인이 돌아온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점잖은 헬라 말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방금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청한 것은 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치던 그 백성에게 말할 기회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이 닫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층대 위에 또 하나의 문을 여셨습니다.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층대는 성전 뜰에서 로마 군대의 요새로 오르는 돌계단입니다. 조금 전 무리의 폭행 때문에 바울이 군사들에게 들려 올라가던 바로 그 계단입니다. 한쪽에는 이방 군대의 요새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를 끌어낸 성전 뜰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두 세계 사이의 계단 위에 섰습니다. 손짓하던 그 손에는 아직 쇠사슬이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22장 끝까지 그는 결박된 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부장과는 헬라 말로 이야기했지만, 백성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는 이 히브리 말을 당시 유대 땅 사람들이 날마다 쓰던 아람어로 봅니다. 22장 2절이 그 효과를 적어 둡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은 그들이 알아듣는 말, 그들의 집에서 쓰는 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다고 옮긴 말은, 새해 첫 이야기에서 본 그쳤노라와 같은 뿌리의 말입니다. 소리치던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거꾸로 천부장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는 무슨 일로 사람들이 이토록 떠드는지 알아내려고 채찍질 심문을 명합니다. 같은 층대 아래에서, 한 사람의 말이 한쪽은 잠잠하게 하고 다른 쪽은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절의 첫마디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르게 들리지만, 헬라어로 이 부름과 들으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첫마디와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십시오.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시작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두 번째 만남에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린 요셉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말의 끝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날 스데반 곁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그 청년이 스데반이 섰던 자리에, 스데반이 했던 첫마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 방금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마지막 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바울은 그들을 탓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4절은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갔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에서 바울은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길을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덧붙입니다.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 공문을 써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결박하던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다메섹 길의 정오가 나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땅에 엎드러진 바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고 묻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은 길 위에서 같은 빛을 보았지만, 그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결박당한 성도들을 당신 자신과 하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바울은 9장의 기록에 없던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 작고 초라한 고을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물음은 9장에는 없고 22장에만 나옵니다. 새해 첫 이야기에서 가이사랴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바울은 이날 다메섹 길에서 이 한 마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남을 끌어가려고 온 사람이, 남의 손에 끌려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 그는 주님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고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 왔다고 아뢰었습니다. 자기를 결박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두려웠지만 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 곁에 서서, 그가 처음 건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앞을 보지 못하던 바울이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의인이라는 말도 스데반이 마지막 변론에서 예수님을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죽었는데, 아나니아는 그 의인을 박해하던 사람에게 너는 그 의인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5절은 그 까닭을 밝힙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처음 불러 준 말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바울은 그 말을,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라 불린 사람이, 형제라 부릅니다.

17절부터 바울은 바로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꺼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순히 떠나지 않고 주님께 아룁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내 지난날을 아니, 내가 변한 것을 보면 들어 줄 것이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이 들어 주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훗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층대 위의 부형들아는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이 이어집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말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옷은 두 번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던 날, 사람들은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옷을 벗어 던집니다. 스데반의 죽음 곁에서 옷을 지키던 청년이, 이제 스데반이 받았던 그 외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듣기 힘든 대목에 이르자, 무리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들은 사람 가운데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형제라 부른 아나니아의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둘을 받은 사울이 오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형제와 아버지라 부릅니다. 형제라는 부름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간 요셉은 훗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그는 그들 앞에서 애굽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45장에서 요셉은 곁에 선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들 앞에서 소리 내어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기를 판 사람들에게 그는 가까이 오라고 했고, 스스로를 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말로, 자기를 아우라 부르며 말할 때 형들은 비로소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도 그날 그들의 말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무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부름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공회 앞에서도, 몇 해 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는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말을 엽니다.

24절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명합니다. 25절입니다.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법은 재판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 직접 와서 묻고, 바울은 그러하다고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29절은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가고, 천부장도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적습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는 로마 시민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불의한 매질까지 잠자코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층대 위의 바울은 두 세계에 다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동족을 형제라 부르는 유대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참된 소속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그날 무리를 들끓게 했던 이방인들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날 무리는 이방인이라는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은 복음은 바로 그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집안 식구로, 형제로 부르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를 형제라 부르던 그 입은 이방인 성도들도 형제라 불렀습니다. 형제라 불린 사람이, 형제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층대 위의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층대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형제라 부르고 계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쉽게 형제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오해하고 등을 돌린 가족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며 상처를 남긴 사람은요? 바울이 형제라 부른 사람들은 방금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너그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그렇게 불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결박하던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그런 그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용서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원수 앞에서도 형제라는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라는 말은 상처를 다 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바울의 몸에는 방금 맞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손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었습니다. 아픔이 다 가신 뒤에 부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채로, 묶인 채로 불렀습니다. 형제라는 부름은 마음이 다 풀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믿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층대 위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도 보여 줍니다. 그는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이라고 말하며 그들 곁에 섰습니다. 따지는 말 대신 자기가 만난 주님 이야기를 했고, 자기의 부끄러운 지난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래 믿은 여러분,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아직 복음을 꺼내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요?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나도 너와 같았다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꾸밈없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논리보다 형제라는 한 마디가 먼저 닿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날의 결과도 숨기지 않습니다. 무리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라고 불렀는데도 그들은 없애 버리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형제라 불러도 그 부름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름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그 부름을 했고,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 우리는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 곁에 서서 형제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가가기 두려운 사람, 교회가 오래 멀리해 온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처음 건네는 말이 형제여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께 그 두려움을 숨김없이 아뢰었고, 그다음에 일어나 갔습니다. 두려움을 지운 뒤에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채로 가서, 곁에 서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는 부름이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나니아보다, 스데반보다 먼저 그 부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그 기도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아침, 주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형제들은 사흘 전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숨어 버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내 형제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부활하여 형제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이 스데반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층대 위의 바울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오른 층대가 있었고, 무리를 잠잠하게 한 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발 앞에 놓였던 옷과 앞 못 보는 사울 곁에 선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빈 무덤 앞에서 들려온 내 형제들이라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형제라 불린 사람이, 형제라 부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불렸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먼저 형제라 불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밀어낸 사람 앞에서도 그 부름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다가가기 두려운 사람 곁에 서서 먼저 형제라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같은 첫마디 — 행 7:2 Ἄνδρες ἀδελφοὶ καὶ πατέρες, ἀκούσατε ↔ 22:1 Ἄνδρες ἀδελφοὶ καὶ πατέρες, ἀκούσατέ μου. 개역개정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 "부형들아 … 들으라"로 달리 옮겼습니다. 스데반 장면과의 겹침(고발 6:13 ↔ 21:28, 귀를 막고 달려듦 7:57 ↔ 22:22-23, 옷 7:58 ↔ 22:20, 23)은 많은 주석가가 짚는 점입니다.

2. 세 번의 회심 이야기 — 9:1-19(누가의 서술), 22:3-16(예루살렘 군중 앞), 26:9-18(아그립바 앞, 2/14 이야기). 22장에만 있는 것: '나사렛 예수'(8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10절),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12절), 성전 환상(17-21절). 9:7 "소리만 듣고"와 22:9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의 차이는 '소리를 듣다'와 '말을 알아듣다'의 구분(ἀκούω + 소유격/목적격)으로 푸는 설명이 흔하지만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3. 히브리 말(21:40; 22:2) — Ἑβραΐς διάλεκτος. 아람어로 보는 견해가 다수, 히브리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2:2 '조용한지라'(ἡσυχία)는 21:14 '그쳤노라'(ἡσυχάζω)와 같은 뿌리.

4. 로마 시민권(22:25-29) —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지 못하게 한 법(포르키우스 법 등, 키케로의 『베레스 탄핵』에도 언급). 16:37 빌립보. 천부장의 이름 글라우디오 루시아(23:26)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추정).

5. 애굽인(21:38) —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권, 『유대 고대사』 20권. 따르는 사람의 수는 요세푸스의 두 기록과 사도행전이 서로 다릅니다. 눅 23:34는 일부 이른 사본에 없는 구절이어서, 개역개정 각주나 역본 표기를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목사님을 처음 '형제'로 불러 준 사람, 그 부름이 목사님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그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 앞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 행 22장은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과 교차 대조, 2026-10-25. ※ churchofjesuschrist.org는 22:16 '세례'를 '침례'로 바꿔 놓았으므로 원고는 대한성서공회 본문의 '세례'를 따

름.

1. 행 22:1 — 인용(도입)
2. 행 7:2 — 요약(도입)
3. 행 21:37 — 인용 / 행 21:38 — 인용
4. 행 21:39 — 인용
5. 골 4:3 — 요약(지난 이야기)
6. 행 21:40 — 인용 / 행 21:35 — 요약
7. 행 22:2 — 인용 / 행 22:24 — 요약
8. 행 22:1 — 인용 / 행 7:2 — 인용 ※ 두 구절 첫마디가 헬라어로 같음 — 언어별로 같은 표현으로 맞출 것(조정 필요)
9. 행 7:2-53 — 요약(7:9-13 요셉)
10. 행 7:58 — 인용(뒷부분)
11. 행 22:3 — 인용
12. 행 22:4 — 인용 / 행 22:5 — 요약
13. 행 22:6 — 인용 / 행 22:7 — 인용(뒷부분) / 행 22:8 — 인용(일부)
14. 행 22:9 — 인용
15. 행 9:5 — 요약('나사렛' 없음)
16. 행 22:10 — 인용(일부) / 행 21:14 — 요약(지난 이야기)
17. 행 22:11 — 인용
18. 행 22:12-13 — 인용
19. 행 9:13-14 — 요약 / 행 9:15 — 인용
20. 행 22:14 — 인용 / 행 7:52 — 인용(뒷부분) / 행 22:15 — 인용
21. 행 22:16 — 인용
22. 행 22:17 — 인용 / 행 22:18 — 요약 인용
23. 행 22:19-20 — 인용
24. 롬 9:2 — 인용 / 롬 9:3 — 인용
25. 행 22:21 — 인용 / 행 22:22 — 인용 / 행 22:23 — 인용
26. 행 7:57 — 요약 / 행 7:60 — 인용(일부)
27. 창 42:23 — 인용
28. 창 45:1-2 — 요약 / 창 45:4 — 인용 / 창 45:5 — 인용(뒷부분)
29. 행 23:1, 6; 28:17 — 요약('여러분 형제들아')
30. 행 22:24 — 요약 / 행 22:25 — 인용
31. 행 22:26-27 — 요약 / 행 22:28 — 인용 / 행 22:29 — 요약
32. 행 16:37 — 요약
33. 빌 3:20 — 인용
34. 엡 2:19 — 인용
35. 딤전 1:15 — 요약('죄인 중에 괴수')
36. 딤후 2:9 — 인용
37. 행 9:13-14 — 요약(아나니아의 두려움)
38. 눅 23:34 — 인용(앞부분)
39. 마 28:10 — 인용
40. 히 2:11 — 인용(본문·마침 기도)

※ 원고 속 '여러분' 7회 가운데 3회는 성경 인용 안(22:1, 7:2, '여러분 형제들아')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쇠사슬에 묶여 층대를 오른 사람이 방금 자기를 치던 무리에게 손짓하고 "부형들아"라고 부르는 장면 → 문단 끝에 바울

- 흔한 생각: 다메섹 회심 이야기의 두 번째 판, 또는 로마 시민권으로 채찍을 피한 지혜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부형들아"는 스데반의 첫마디와 헬라어로 같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아나니아가 있다 — 형제라 불린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형제라 부른다

- 원포인트: 형제라 불린 사람이, 형제라 부릅니다. (+ 여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불렸습니다.")

- 원어 포인트: 부형들아(7:2와 같은 말), 히브리 말(아람어로 보는 견해), 조용한지라(ἡσυχία — 21:14 '그쳤노라'와 같은 뿌리), 그 의인(7:52)

- 평행본문 세 장면: 스데반(행 7 — 같은 첫마디, 옷,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 요셉과 형들(창 42, 45 — 통역을 거두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 부활하신 예수님(마 28:10 "내 형제들에게", 히 2:11)

- 복선과 회수: 지난주 닫힌 성전 문 → 층대 위에 열린 '전도할 문'(골 4:3) / 21:14 '그쳤노라' → 22:2 '조용한지라' / 21:14 '주의 뜻대로' → 22:10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 22:13 아나니아 '곁에 서서'·22:20 사울 '곁에 서서' → 1/24 '곁에 서신 주'로 넘김(이번 편에서는 풀지 않음) / 쇠사슬 → 딤후 2:9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 우리 자리: 우리를 오해한 가족,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 말하는 법(그들의 말로, 나도 너와 같았다, 꾸밈없는 간증) / 부름이 돌아오지 않을 때 / 두려운 채로 다가가는 아나니아

- 그리스도 착지: 십자가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 → 스데반의 기도 → 부활 아침 "내 형제들에게"(마 28:10 —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베드로) →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 2:11)

- 중심 그림 하나: 층대 — 처음(들려 오른 층대, 그 위에 선 사람) · 중간(두 세계 사이의 계단, 층대 위의 '부형들아') · 끝(층대 위의 바울에게 이어진 주님의 부름). 1/24는 이 층대 위 영내의 밤에서 시작

- 제목: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부르다). 다른 후보: 「층대 위에서 손짓하는 사람들」

- 원포인트 위치가 46·75·97%로 표본(49·73·98)보다 조금 앞뒤로 벌어졌습니다 — 첫 번째를 아나니아 장면 바로 뒤에 두려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 마 28:10은 4/4(요 20:1-18) 이야기와 겹치지 않게 요한복음 대신 마태복음 구절을 썼습니다

2027년 1월 24일 주일

그 밤, 곁에 서신 주님

사도행전 22:30-23:11 · 본문 사도행전 22:30–23:11 (디모데후서 4:17)

성경에는 재판 자리에 선 한 사람이 첫마디로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하자마자 입을 얻어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곧 성난 말을 내뱉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상대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자, 그는 성경 한 구절을 들어 자기 말을 거둬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한마디로 갈라놓은 바울의 지혜, 그리고 그 밤에 들려온 담대하라는 위로로 읽지 않습니까? 그 둘은 분명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바울에게 그날은 잘 풀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맞았고, 말이 엇나갔고, 공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또다시 군인들에게 끌려 영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낮에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은 그의 입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엉클어진 하루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것을 증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밤의 곁을 향해 갑니다. 지난주 층대 위에서 무리를 형제라 불렀던 바울이, 이튿날 어디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 결박을 풀고. 성전 뜰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뒤 처음으로 바울의 손이 풀립니다. 새해 첫 이야기에서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손발을 묶어 보였고, 그 띠는 두 쇠사슬이 되었고, 채찍질 심문 앞에서는 가죽 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박이 잠시 풀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쇠사슬 없이, 이번에는 제 발로 그 층대를 내려갑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세운 곳은 공회 앞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 의회입니다. 지난날 바울은 바로 이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 들고 길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공회의 공문을 들고 섰고, 이제는 공회 앞에 피고로 섰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이번에도 형제들아라고 말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옮긴 헬라어는, 원래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뜻의 말입니다. 층대 아래에서 로마 시민권을 밝혔던 바울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쓸 때에도, 바울은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범사에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그 세월 안에는 성도들을 결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하던 날들도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도 자기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을 두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양심은 처음부터 흠 없던 양심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마디는 끝나지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기서 한 이름이 눈에 걸립니다. 아나니아입니다. 바로 앞 장에서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 다메섹에서 바울 곁에 서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 준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였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한 아나니아는 곁에 서서 형제라 불렀습니다. 다른 아나니아는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맞받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직 아무것도 판결하지 않은 재판장이 피고의 입부터 치게 한 것은 분명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말에는 구약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13장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무너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희게 칠했지만 속은 무너질 담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노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정말 몰랐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천부장이 급히 모은 자리라 대제사장이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꼬집는 말로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분명히 적어 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 엇나간 그 자리에서 성경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노여움으로 뱉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같은 대제사장의 뜰, 곁에 선 사람의 손, 맞은 입입니다.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그분을 두고 이렇게 적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울은 그날 주님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적어 둡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공회를 둘러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이 외침도 두 갈래로 읽힙니다. 공회를 갈라놓은 영리한 한 수로 보는 이가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훗날 벨릭스 앞에서 이 한 소리를 다시 꺼내는데, 그것을 두고 뉘우침이 묻어 있다고 읽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노렸든 바울이 외친 말 자체는 참이었습니다. 그가 붙잡힌 까닭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들은 대로, 그는 로마에 가서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행전 5장이 보여 주듯, 대제사장 곁에 선 무리는 대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9절에서는 바리새인 편의 서기관들이 일어나 바울을 감싸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 말은 오래전 같은 공회에서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들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나 공회는 재판이 아니라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또다시 군인들에게 붙들려 층대를 올라 영내로 돌아갑니다. 성전 뜰에서에 이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무리의 손에서 빼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천부장은 진상을 알려고 공회를 모았지만, 끝내 진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다시 세어 봅니다. 첫마디에 입을 맞았습니다. 노여운 말이 나갔고, 그 말을 성경으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던진 한 마디에 공회는 둘로 갈라졌고, 그는 찢겨질 뻔한 몸으로 다시 영내에 갇혔습니다. 무엇 하나 매끄럽게 풀린 것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영내의 어둠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1절입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곁에 서서라고 옮긴 헬라어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때 쓴 말과 같은 동사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곁에 서서 찬성했다고 고백할 때 쓴 말도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날 낮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도 서다라는 같은 뿌리의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날 낮에는 곁에 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쳤습니다. 그날 밤에는 주님이 곁에 서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밤에는 곁에 서셨다고 누가는 적습니다.

엉클어진 하루 끝에도, 주님은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마디는 담대하라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안심하라와 담대하라로 달리 옮겼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들은 담대하라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말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담대하라는 용서와 함께 오는 말이었습니다. 엇나간 말을 거두며 하루를 보낸 바울에게, 주님은 먼저 그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주님은 그 하루를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실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하나하나 세지도 않으셨습니다. 층대 위에서 부형들아라고 불렀던 일, 다메섹 길에서 만난 주님을 들려준 일, 공회 앞에서 부활을 외친 일을 두고 주님은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하루는 엉클어져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그는 주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언이라는 말도 짚어 둘 만합니다. 헬라어로 증언하다와 증인은 한 뿌리의 말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층대 위에서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말했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낱말이 훗날 교회의 말로 순교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증언한 사람들이 목숨으로 그 말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곁에서 옷을 지키던 바울이, 이제 주님께 스데반과 같은 일을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해 첫 이야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친히 대답하신 셈입니다. 다만 주님은 내일 풀려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뒤 가이사랴에서 두 해 넘게 갇혀 지내고, 폭풍 속의 바다를 건너서야 로마에 이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의 세 친구입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들은 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수 있다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결박된 채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을 들여다본 왕이 놀라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박은 풀렸고, 불 속에 한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왕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넷째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적어 둡니다.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로 전해지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법정입니다. 바울은 다시 사슬에 매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예루살렘의 그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은 아무도 곁에 없던 자리에서 다시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두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썼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드린 기도와 닮은 말입니다. 주님이 곁에 서 계신 사람은 곁을 비운 사람들을 탓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약속은 그렇게 로마에서 지켜졌습니다. 그 사이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곁에 서신 분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엉클어진 하루 끝에도, 주님은 곁에 서십니다.

여기까지 공회 앞에서 영내의 밤까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밤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하려던 순간 일이 틀어지고, 참지 못한 말이 먼저 나가 버린 하루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회의가 다툼이 되어 버린 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언성만 높이고 돌아선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밤에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하나하나 세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 망쳤다.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그날을 곱씹으며 뒤척이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적은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바울이 먼저 찾아 나서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곁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가운데 주님을 증언한 자리를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엉클어진 하루에도 주님을 붙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서툰 기도 한 마디, 참아 낸 한 번, 끝내 놓지 않은 믿음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노여운 말도 괜찮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들어 자기 말을 거두었습니다. 엇나간 말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엉클어진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잘못은 말씀 앞에서 바로잡고, 그 밤은 곁에 서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운 원수 곁에 서서 형제라 불렀고, 다른 한 사람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곁에 서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의 곁에서, 우리는 어느 아나니아가 되어 있을까요? 엉클어진 하루를 보낸 사람 곁에 서서, 주님처럼 꾸짖기 전에 먼저 곁을 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고 돌아간 교우에게 그날 밤 먼저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 곁에 말없이 앉아 있는 일입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그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날 주님을 붙들었던 순간을 함께 찾아 주는 일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을, 우리도 서로에게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 남은 우리는 곁이 비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몇 사람마저 지쳐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법정에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같은 편지에서 그는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고 썼습니다. 곁이 비어 보이는 날에도, 곁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풀무불 속의 세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밤 바울 곁에 서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울이 그날 낮에 무엇 때문에 심문을 받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심문을 받은 그날 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이 외친 소망은 그날 밤 그의 곁에 살아서 서 계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영내, 문을 지키는 군인들과 다시 매였을지도 모르는 쇠사슬 사이로, 주님은 아무 막힘 없이 오셔서 서셨습니다.

그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곁에 선 사람에게 맞으시고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두가 떠나 혼자 남으실 밤을 앞두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스데반은 죽어 가며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경은 대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서 계십니다. 죽어 가는 증인을 맞으시려고 일어서 계셨다고 읽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날 스데반의 죽음 곁에서 찬성하며 서 있던 청년 사울 곁에, 이제 그 서신 주님이 와서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곁을 지나왔습니다. 형제라 부르며 곁에 선 아나니아와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곁에 선 사람에게 맞으신 주님, 풀무불 속의 넷째, 아무도 없던 로마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내의 밤, 바울 곁에 서신 부활의 주님이 계셨습니다.

엉클어진 하루 끝에도, 주님은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다음 길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 엉클어진 하루를 보내고 잠 못 드는 밤에 곁에 서신 주님을 알게 하소서. 엇나간 말은 말씀 앞에서 바로잡게 하시고, 서툴러도 주님을 증언한 하루로 받아 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지친 누군가의 곁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묵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곁에 서다'의 실 — 22:13 아나니아 ἐπιστάς · 22:20 사울 ἐφεστώς · 23:11 주 ἐπιστάς(모두 ἐφίστημι). 23:2, 4 '곁에 서 있는/선 사람들' παρεστῶτες(παρίστημι), 22:25 '곁에 서 있는 백부장' ἑστῶτα(ἵστημι). 바깥 짝: 요 18:22 '곁에 섰던 아랫사람' παρεστηκώς, 딤후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παρέστη, 행 7:55-56 '하나님 우편에 서신'(ἑστῶτα). 개역개정은 대부분 '곁에 서 서'로 맞춰 옮겨 한국어로도 실이 보입니다.

2. 두 아나니아 — 22:12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23:2 대제사장 아나니아(네데배오의 아들, 대략 주후 47-59년 재직)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20권)는 이 대제사장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가 훗날 살해되었다는 기록(『유대 전쟁사』 2권)은 원고에 넣지 않았습니다(절제).

3. "알지 못하였노라"(23:5) — ① 정식 재판 자리가 아니어서 알아보지 못함 ② 눈이 나빴다(갈 4:15; 6:11에서 추정) ③ 꼬집는 말 ④ 잘못을 인정함. 원고는 판단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 세웠습니다. 출 22:28 인용.

4. 23:6의 외침 — 전략인가 본심인가. 24:15, 21; 26:6-8; 28:20에서 부활과 '이스라엘의 소망'이 계속 고발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24:21을 뉘우침으로 읽는 견해는 소수입니다. 23:8 사두개인이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한 대목의 뜻도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5. '담대하라' θάρσει — 마 9:2, 22; 14:27; 막 6:50; 10:49; 요 16:33(θαρσεῖτε). 개역개정은 '안심하라'와 '담대하라'로 나눠 옮겼습니다. '하여야 하리라'(δεῖ)는 누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쓰는 말(눅 9:22; 24:26; 행 19:21 '보아야 하리라'). 23:1 '섬겼노라'(πεπολίτευμαι, 시민으로 살다) = 빌 1:27 '생활하라'(πολιτεύεσθε). μάρτυς(증인)가 '순교자'의 뜻으로 굳어진 것은 2세기 교회의 말입니다(계 2:13의 안디바가 그 다리로 자주 인용됨).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최근 "오늘은 다 망쳤다"고 느낀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짚어 주실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 목사님 곁에서 '입을 치라' 한 사람과 '형제라' 부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은 누구의 곁에, 어느 아나니아로 서고 싶으십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 행 22장은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과 교차 대조, 2026-10-25.

1. 행 23:3 — 인용(앞부분, 도입) / 행 23:1-5 — 요약(도입)

2. 행 22:30 — 인용

3. 행 21:11, 33; 22:25 — 요약(띠·쇠사슬·가죽 줄)

4. 행 22:5 — 요약(공문)

5. 행 23:1 — 인용 / 빌 1:27 — 인용(앞부분, 문장 속)

6. 딤전 1:13 — 요약('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 사이트가 이 장을 아랍어로 띄워 글자 대조를 못 했음 — 요약으로만 씀

7. 행 23:2 — 인용

8. 행 22:12-13 — 요약(다메섹의 아나니아)

9. 행 23:3 — 인용 / 레 19:15 — 요약('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10. 겔 13:10 — 인용(뒷부분) / 겔 13:11 — 요약 / 마 23:27 — 요약('회칠한 무덤')

11. 행 23:4 — 인용 / 행 23:5 — 인용

12. 출 22:28 — 인용

13. 요 18:22 — 인용 / 요 18:23 — 인용

14. 벧전 2:23 — 인용

15. 행 23:6 — 인용

16. 행 24:21 — 요약 / 행 28:20 — 요약(1/10 이야기에서 인용)

17. 행 23:7-8 — 인용 / 행 5:17 — 요약(사두개인)

18. 행 23:9 — 인용(뒷부분) / 행 5:38 — 인용(뒷부분) / 행 5:39 — 인용(앞부분)

19. 행 23:10 — 인용

20. 행 23:11 — 인용

21. 행 22:13, 20; 23:2, 4 — 요약('곁에 서다') / 행 18:9 — 요약(고린도의 환상)

22. 마 14:27 — 인용 ※ '안심하라'(마 14:27; 9:2)와 '담대하라'(행 23:11; 요 16:33)는 헬라어 같은 말 — 언어별로 같은 낱말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춤(조정 필요)

23. 마 9:2 — 인용(뒷부분)

24. 행 23:11 — 인용(일부, 여러 번)

25. 행 22:20 — 요약 / 행 22:15 — 요약

26. 롬 15:32 — 요약(1/3 이야기)

27. 행 24:27; 27–28장 — 요약

28. 단 3:17 — 요약 / 단 3:18 — 인용 / 단 3:19 — 요약 / 단 3:24 — 인용(뒷부분) / 단 3:25 — 인용(왕의 말 부분) / 단 3:28 — 요약

29. 딤후 4:16 — 인용 / 딤후 4:17 — 인용(앞부분)

30. 행 7:60 — 요약

31. 요 16:32 — 인용(뒷부분) / 요 16:33 — 인용(뒷부분)

32. 행 7:56 — 인용

33. 행 23:11 — 인용(마침 기도, 앞부분)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재판 자리 첫마디에 입을 맞고, 성난 말을 내뱉고, 곧 성경 한 구절로 그 말을 거두는 사람 → 문단 끝에 바울

- 흔한 생각: 공회를 갈라놓은 바울의 지혜와 "담대하라"는 위로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그날은 엉클어진 하루였다. 낮에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은 그의 입을 쳤고, 밤에 '곁에 서신' 분은 주님이셨다. 주님은 그 하루를 꾸짖지 않고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부활 때문에 심문받은 그 밤, 부활하신 분이 곁에 서셨다

- 원포인트: 엉클어진 하루 끝에도, 주님은 곁에 서십니다. (+ 여운 "그리고 다음 길을 말씀하십니다.")

- 원어 포인트: 곁에 서다(ἐφίστημι — 22:13·22:20·23:11), 섬겼노라(시민으로 살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마 14:27; 9:2), 하여야 하리라(δεῖ), 증언·증인(μάρτυς → 순교자)

- 평행본문 세 장면: 대제사장 앞의 예수님(요 18:22-23 — 곁에 선 사람에게 맞으심, 벧전 2:23) · 풀무불의 세 친구(단 3 —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 로마 법정의 바울(딤후 4:16-17 — 주께서 내 곁에 서서)

- 복선과 회수: 띠 → 두 쇠사슬 → 가죽 줄 → "그 결박을 풀고"(22:30) / 지난주 층대 → 내려가고 다시 들려 오름 / 지난주 '형제라 부른' 아나니아 ↔ '입을 치라' 한 아나니아 / 1/3 롬 15:32 "하나님의 뜻을 따라 … 로마" →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 22:20 '곁에 서서 찬성한' 사울 → 곁에 서신 주님 / 스데반이 본 '서신' 인자(7:56)

- 표본(18:9-10)과 다르게 간 곳: 표본의 원포인트("떨림이 멈춰서가 아니라, 붙들려 있어서 말합니다")와 '두려워하지 말라·침묵하지 말라'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표본이 고린도·예루살렘·폭풍의 세 밤을 묶었으므로, 이번 편은 '말하라'가 아니라 '곁에 서다'와 '증언한 것 같이'(주님이 엉클어진 하루를 증언이라 부르심)에 섰고, 고린도의 밤은 "환상 가운데 → 곁에 서서" 한 문장으로만 받았습니다. 27:23-24(2/21 본문)는 쓰지 않았습니다

- 우리 자리: 말이 엇나가고 회의가 다툼이 된 하루, "오늘은 다 망쳤다"는 밤 / 엇나간 말은 말씀 앞에서 바로잡기 / 어느 아나니아로 누구 곁에 설 것인가 / 곁이 비어 보이는 작은 교회

- 그리스도 착지: 부활 때문에 심문받은 밤 곁에 서신 부활의 주님 → 대제사장 앞에서 맞으시고도 욕하지 않으신 주님 → 십자가 전날 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스데반이 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7:56)

- 중심 그림 하나: 곁(바울 곁에 선 자리) — 처음(곁에 선 사람들이 입을 침) · 중간(그 밤 곁에 서신 주님 / 풀무불 속의 넷째 / 로마 법정의 곁) · 끝(서신 인자, 오늘 우리 곁). 1/31(23:12-35, 바울의 조카)은 '곁에 선 한 소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그 밤, 곁에 서신 주님」 — 이번 편의 주어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어서 「~하는 사람들」 꼴을 뺐습니다(「작은 식탁에서」처럼). 꼴을 살린다면 「곁에 서는 사람들」이 후보입니다

- 다니엘 3장의 넷째를 그리스도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왕은 '그의 천사'라 함)

2027년 1월 31일 주일

밤길을 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3:12-35 · 본문 사도행전 23:12–35 (시편 121:8)

성경에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한 청년이 로마 군대의 영내로 걸어 들어가, 죄수가 된 외삼촌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전한 말 때문에 그날 밤 보병과 기병과 창병 사백칠십 명이 성을 나섭니다. 청년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친족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는 대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을 나왔고, 빌립보에서는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맹세한 사십여 명, 이름 없는 청년, 백부장과 천부장, 그리고 군인과 말과 편지 한 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따라갑니다. 날이 밝아 오는 예루살렘으로 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지난주 이야기는 바로 그 앞 절에서 끝났습니다. 공회 앞에서 엉클어진 하루를 보낸 그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이 맹세가 시작됩니다. 약속을 받은 밤과 죽이자는 맹세가 나온 아침 사이에는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13절은 그 수를 적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2절에서 맹세한다고 옮긴 헬라어는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둔다는 뜻입니다. 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14절과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공회가 바울의 일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하면,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고,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거짓 핑계를 꾸며 달라고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굳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맹세가 이렇게 단단할 때, 전날 밤 들은 주님의 한 마디는 어떻게 될까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 누이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려 줍니다. 청년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집안이 바울을 어떻게 여겼는지,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적어 둔 것은 세 마디뿐입니다. 듣고, 와서, 알렸다.

그런데 그 세 마디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십 명이 넘는 사람이 저주를 걸고 맹세한 일입니다. 그 계획을 듣고 로마 군대의 영내로 걸어 들어가는 일은 청년에게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들은 것을 혼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밤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이, 날이 밝자 바울 곁에 이 청년을 세우신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움직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기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전날 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이 있으니 가만히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믿는 일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서로 부딪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속을 믿었기에 허둥대지 않고 백부장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백부장은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며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방의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제는 죄수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19절은 짧지만 따뜻합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 명을 거느린다는 뜻의 직함을 가진 지휘관이, 잔뜩 긴장했을 청년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쪽으로 데려가 묻습니다. 누가는 이 작은 몸짓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20절과 21절에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공회가 내일 바울을 데려와 달라고 청할 테니 그 청을 따르지 말라고, 사십여 명이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 천부장은 청년을 돌려보내며, 이 일을 자기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제삼시는 오늘로 치면 밤 아홉 시쯤입니다. 사십여 명을 피하려고 사백칠십 명이 움직입니다. 창병이라고 옮긴 헬라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 드문 말이라, 정확히 어떤 군인이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죄수 한 사람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수비대의 큰 병력이 한밤에 성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은 바울이 탈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무사히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십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무사히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두 주 전 우리는 바울이 층대 위에서 다메섹 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을 기다린 것은 죽이려는 공모였습니다. 그 공모는 누군가를 통해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은 밤에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이십 년쯤 지난 예루살렘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죽이려는 공모가 있고,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이 알려지고, 바울은 밤에 성을 떠납니다. 다만 그때는 제자들이 내린 광주리 하나였고, 이번에는 로마 군인 사백칠십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밤에도 이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늘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발로였습니다.

25절부터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26절에서 비로소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런데 27절의 편지 내용을 읽으면 쓴웃음이 조금 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장과 22장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했고, 채찍질하며 심문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다음에야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편지는 순서를 슬쩍 바꾸어, 자기를 로마 시민을 구해 낸 유능한 지휘관으로 그립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사람의 체면과 계산이 섞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지까지 쓰셨습니다. 29절에서 천부장은 이렇게 적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로마 관리가 자기 손으로 써서 총독에게 보낸 문서가, 바울에게 죽을 죄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자기 자랑을 섞은 편지가 바울을 지키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짙게 느껴지는 책도 드뭅니다. 에스더서 2장에서 모르드개는 대궐 문에 있다가 왕을 해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뢴지라. 그 일은 궁중 일기에 한 줄로 기록되었고, 모르드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채 잊혔습니다.

몇 해가 지나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두 없애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청합니다.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사도행전의 사십 명은 사람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스더의 백성은 살길을 구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금식이 정반대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 못 든 왕 앞에서 읽힌 기록이 하필 모르드개가 음모를 알린 그 대목이었습니다. 잊혔던 그 한 줄이 모르드개를 높이고, 이야기 전체를 뒤집습니다.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왕을 잠 못 들게 하셨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밤에도 누군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사도행전 23장도 그렇습니다. 듣고 와서 알린 청년, 손을 잡아 준 천부장, 밤길을 걸은 군인들, 자기 자랑이 섞인 편지 한 통.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전날 밤의 약속은 그 모든 것을 지나 한 걸음씩 로마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약속은 길을 갑니다.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따서 세운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육십 킬로미터 안팎 떨어진 곳으로 여겨집니다. 군인들은 산지를 내려가는 그 길을 밤새 걸었을 것입니다. 32절에서 보병은 영내로 돌아가고, 기병 칠십 명이 바울을 호송해 남은 길을 갑니다. 매복의 위험이 큰 산길을 벗어났기에 보병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밤 짐승 등에 실려 어둠 속을 지나던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에는 전날 밤 들은 말씀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밤길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사이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나가 본 사환이 놀라 어찌하리이까 하고 외치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은 불말을 보았고, 바울 곁에는 로마의 말 칠십 필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군대였을까요? 하나는 하늘의 군대였고, 하나는 황제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분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불말도 그날 아침 새로 생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 있었는데, 눈이 열려 비로소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말로 지키실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말발굽으로도 당신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과 35절에서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묻습니다.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답을 듣고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말을 듣겠다며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지은 궁으로, 그 무렵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두 해를 지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바다에 면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기듯 떠난 밤길의 끝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바울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로 자기 손발을 잡아매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자 이렇게 말하고 그쳤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새해

첫 이야기에서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그 가이사랴로, 바울은 결박된 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의 뜻은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결박을 지나갔지만, 결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약속은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십 명의 맹세는 성경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해 뒤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길에 매복하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것은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주님의 한 마디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2절의 맹세와 11절의 약속을 나란히 놓아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사십 명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도 짚었듯이, 하여야 하리라는 말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갈 뜻을 밝혔을 때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 길을, 이제 주님이 같은 말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주님의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은 사십 명의 맹세보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사람의 힘만큼만 단단하지만, 주님의 반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만큼 단단합니다. 그 밤길에서 바울을 지킨 것은 결국 칠십 명의 기병이기 전에 이 한 마디였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약속은 길을 갑니다.

여기까지 날이 새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의 바닷가까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밤길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즘은 어떤 날들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런 날을 압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날들입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고, 같은 일터에 나가고, 같은 식탁에 앉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루처럼 느껴지는 날입니다. 작아진 교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난주 들은 담대하라는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일을 아시는지 묻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그런 날을 위해 남겨진 장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그 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먼 길을 갔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사십 명의 맹세도, 체면이 섞인 편지도, 이름 없는 청년의 발걸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사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청년은 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혼자 품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알리는 사람입니다. 아픈 교우의 소식을 듣고 먼저 전화를 거는 일,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일,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 조용히 알려 주는 일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청년의 발걸음은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 위에 세웠습니다. 모르드개가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그 청년에게도,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것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도 누군가의 길 위에서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백부장을 부른 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들었기에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병원에 가고, 믿는 사람도 길을 살핍니다.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길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밤길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면, 겹쳐 보이는 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공모, 다른 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적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키려고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바울의 생질은 생명을 지키려고 알리러 갔고, 유다는 넘겨주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군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지키려고 나선 군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 든 제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바울에게는 사백칠십 명의 군인이 붙었지만, 예수님은 열두 군단의 천사를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무도 지켜 주지 않은 그 밤길을 예수님이 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밤길에는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아끼셨지만, 당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하신 분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밤에는 주님이 곁에 서 계셨고, 날이 새자 본문에서 주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루 내내 청년의 발걸음 속에, 천부장이 잡아 준 손 속에, 밤길의 말발굽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여러 발걸음을 만났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매복하던 사십 명의 발걸음, 듣고 와서 알린 청년의 발걸음, 바울을 무사히 보내려고 밤길을 걸은 군인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켜 주지 않는 밤길을 홀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발걸음 때문에, 여러분이 걷는 오늘의 밤길에도 약속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약속은 길을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속이 오늘도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들은 것을 혼자 품지 않고 필요한 이에게 달려가는 작은 발걸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하게 하소서. 어떤 밤길에서도 졸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사십여 명의 맹세(23:12, 14 ἀνεθεμάτισαν ἑαυτούς — 스스로를 아나테마, 곧 저주 아래 둠) —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후대 랍비 문헌(미쉬나 『네다림』 3:1-3)은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막힌 서원은 풀린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 뒤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설교가 있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까지만 썼습니다.

2. 바울의 생질(23:16 ὁ υἱὸς τῆς ἀδελφῆς Παύλου) —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친족이 직접 나오는 유일한 장면(23:6 '바리새인의 아들'은 아버지를 말할 뿐 등장하지 않음).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청년이 신자였는지, 왜 영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모두 추정입니다(22:3 바울의 예루살렘 유학과 이어 가족의 예루살렘 연고를 짐작하는 견해, 빌 3:8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를 가족과의 단절로 읽는 견해 — 둘 다 근거가 약함). 롬 16:7, 11, 21의 '친척'(συγγενής)은 혈육인지 같은 민족인지 갈립니다.

3. 470명의 호송(23:23-24) — '창병'(δεξιολάβοι)은 신약에 여기뿐이고 성경 밖에서도 드물어 창병·경무장병·궁수·기병 시종 등 해석이 갈립니다. 예루살렘 수비대(대대, 이론상 천 명)의 절반 가까이라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21:38의 '애굽인'과 자객(시카리이)이 날뛰던 무렵을 생각하면 이해된다는 주석가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안디바드리 약 60km 안팎, 안디바드리→가이사랴 약 40km 남짓(지도마다 조금씩 다름). 보병이 하룻밤에 간 거리로는 너무 멀다며 '밤에 출발해 이튿날까지'로 읽는 견해도 있습니다.

4. 루시아의 편지(23:26-30)와 실제 순서(21:31-33; 22:24-29) — 누가는 체면이 섞인 공문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이 편지에서 시작해 23:29 → 25:25 → 26:31-32로, 로마 관리들의 '죽을 죄 없음' 판정이 누가의 사도행전 후반부에 되풀이됩니다(2/14 이야기로 이어짐).

5.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장(23:12-35)과 에스더 — 히브리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헬라어 칠십인역의 추가 부분에는 나옴). '하여야 하리라'(δεῖ): 19:21 '보아야 하리라', 23:11, 27:24 '서야 하겠고', 27:26 '반드시'; 눅 24:7, 26, 44. 섭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읽을 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건마다 하나님 뜻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수위를 지켰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하루를, 지나고 돌아보니 약속이 걷고 있던 날로 기억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 지금 내가 들은 것 가운데,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가서 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약속을 믿기에 오늘 차분히 '백부장을 불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9, 19, 21, 22, 23장 · 에 2, 4, 6장 · 왕하 6장 · 마 26장 · 막 14장 · 요 18장 · 롬 8장. 시편은 그 사이트가 다른 언어로 띄워 글자 대조를 못 함 → 확인 필요.

1. 행 23:12-35 — 요약(도입) / 행 23:11 — 요약

2. 행 12:7-10; 16:26 — 요약(천사·지진)

3. 행 23:12 — 인용

4. 행 23:11 — 인용("담대하라"부터)

5. 행 23:13 — 인용 / 23:14-15 — 요약

6. 행 23:16 — 인용

7. 행 23:17 — 인용

8. 행 23:18 — 인용(일부,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9. 행 23:19 — 인용 / 23:20-22 — 요약

10. 행 23:23 — 인용

11. 행 23:24 — 인용(일부)

12. 행 9:23 — 인용 / 9:24 — 인용(앞부분), 요약(뒷부분) / 9:25 — 인용

13. 행 23:25-26 — 요약(이름 '글라우디오 루시아'만 인용)

14. 행 23:27 — 인용

15. 행 21:33; 22:24-29 — 요약

16. 행 23:29 — 인용

17. 에 2:21-23 — 요약 / 에 2:22 — 인용

18. 에 3장 — 요약 / 에 4:16 — 인용(가운데, "밤낮 삼 일을 … 마소서")

19. 에 6:1 — 인용 / 에 6:2-3, 10-11 — 요약

20. 행 23:31 — 인용 / 23:32 — 요약

21. 왕하 6:14-15 — 요약 / 6:16 — 인용("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많으니라"까지) / 6:17 — 인용(뒷부분)

22. 행 23:33 — 인용 / 23:34-35 — 요약

23. 행 21:8-14 — 요약 / 21:14 — 인용(일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24. 행 25:3 — 요약

25. 행 23:11 — 인용(뒷부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6. 행 19:21 — 인용(뒷부분)

27. 롬 8:28 — 인용

28. 에 4:14 — 인용(뒷부분)

29. 막 14:1 — 요약 / 막 14:10 — 인용

30. 요 18:1, 3 — 요약 인용("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31. 마 26:51-52 — 요약 / 마 26:53 — 인용

32. 막 14:50 — 인용

33. 롬 8:32 — 인용

34. 시 121:4 — 인용 ※ 확인 필요(대조 못 함)

35. 시 121:8 — 인용(마침 기도) ※ 확인 필요(대조 못 함)

※ 행 23:11 '하여야 하리라'와 19:21 '보아야 하리라'는 헬라어 같은 말(δεῖ) — 원고가 "같은 말"이라고 말하므로 언어별로 같은 낱말로 맞추거나 그 문장 조정 필요.

※ 행 23:12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와 에 4:16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는 원고에서 나란히 놓음 — 언어별로 같은 말로 들리게.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이름 없는 한 청년이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 죄수가 된 외삼촌에게 들은 것을 전하고, 그 말 때문에 사백칠십 명이 밤에 성을 나섬 → 문단 끝에 '바울의 누이의 아들'

- 흔한 생각: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12장 베드로, 16장 빌립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23:12-35에는 '하나님'도 '주'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대조 확인). 전날 밤(11절) 곁에 서신 주님의 약속이 이름 없는 청년·백부장·천부장·군대·체면 섞인 편지를 지나 로마 쪽으로 간다 / 약속을 받은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백부장을 불렀다(약속과 분별)

- 원포인트: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약속은 길을 갑니다. (+ 여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속이 오늘도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 원어 포인트: 맹세하다(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다), 창병(드문 낱말, 뜻이 갈림), 하여야 하리라(δεῖ — 19:21과 같은 말, 1/24에서 한 번 짚은 것을 받아 19:21로 넓힘)

- 평행본문 세 장면: 다메섹 성벽의 광주리(행 9:23-25 — 바울 자신의 첫 공모와 밤) · 모르드개와 에스더(에 2:22; 4:16; 6:1 — 하나님의 이름 없는 책, 들은 음모를 알림, 먹지도 마시지도, 그 날 밤) · 도단의 엘리사(왕하 6:16-17 — 불말과 로마의 말) — 각 장면이 '알려지니라'·'먹지도 마시지도'·'칠십 기병'을 받침

- 복선과 회수: 1/24 '그 밤 곁에 서신 주님'·'엉클어진 하루' → 12절 '날이 새매', 곁에 세우신 청년 / 1/17 층대 위의 다메섹 이야기 → 9장 광주리 / 1/3 가이사랴·아가보의 띠·"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 결박된 몸으로 가이사랴에 돌아옴 / 25:3 다시 매복(2/14로 넘김) / 헤롯 궁의 두 해(2/7로 넘김) / 19:21 → 23:11 → 27:24, 26(δεῖ, 2/21에서 회수)

- 우리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하루(병원과 집, 같은 일터와 식탁, 작아진 교회) / 이름 없는 청년처럼 듣고 가서 알리기(에 4:14 '이 때를 위함') / 약속을 믿기에 차분히 오늘 할 일

- 그리스도 착지: 같은 공모, 다른 밤 — 유다는 넘겨주려고 갔고(막 14:10), 군인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왔고(요 18:3), 예수님은 열두 군단의 천사를 마다하셨고(마 26:53),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막 14:50) → 롬 8:32 '아끼지 아니하시고' → 부활 → 23:11 곁에 서신 부활의 주님

- 중심 그림 하나: 밤길 — 처음(영내로 걸어 들어가는 청년의 발걸음) · 중간(밤 제삼시 성을 나서는 사백칠십 명과 짐승 등의 바울 / 다메섹 성벽의 광주리 / 도단의 불말) · 끝(동산으로 오는 횃불, 아무도 지켜 주지 않은 예수님의 밤길 → 가이사랴 바닷가)

- 제목: 「밤길을 가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다른 후보: 「듣고 와서 알리는 사람들」(16절), 「이름 없이 걷는 사람들」

- 지난주 잇기: 1/24 「그 밤, 곁에 서신 주님」(원포인트 "엉클어진 하루 끝에도, 주님은 곁에 서십니다", 중심 그림 '곁')이 마무리 직전 폴더에 생겨, '엉클어진 하루'와 '곁에 세우신 청년' 두 군데로 받았습니다. 1/24의 '하여야 하리라' 풀이는 되풀이하지 않고 "지난 이야기에서도 짚었듯이"로 받았습니다. 1/24가 다니엘 3장을 썼기에 이 편과 2/14에서는 다니엘을 쓰지 않았습니다.

- 매일묵상과의 관계: 같은 주 평일 막 3:22–4:29, 당일 팩 시 112("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 겹침 없음. 시 112는 같은 날이라 원고에 쓰지 않음.

- 절제: 매복·살해 계획은 본문이 말하는 만큼만, 에스더의 하만 처형 장면은 넣지 않음.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본문·장면 그대로).

2027년 2월 7일 주일

나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4장 · 본문 사도행전 24:1–27 (히브리서 3:15)

성경에는 두 해 동안 한 죄수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끝내 그 죄수가 전한 말에는 대답하지 않은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두려워 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사람의 이름은 벨릭스,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복음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한 불신자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벨릭스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22절은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다고 적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많이 알고, 자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까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중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 마디를 향해 갑니다. 가이사랴의 재판석 앞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난주 우리는 사십 명의 맹세를 피해 밤길로 가이사랴에 들어온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 밤길 끝에서 바울은 헤롯 궁에 머물며 고발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닷새 뒤 대제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말 잘하는 변호사를 데리고서였습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법정에서 재판관을 먼저 추어올리는 것은 그 시대 연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가 다스리던 무렵 유대 땅에 강도와 자객과 거짓 선지자가 들끓었다고 전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두고, 종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고 적었습니다. 벨릭스는 본래 종의 신분에서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에서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 했다고 덧붙입니다. 전염병, 소요, 이단, 성전 모독. 로마 총독이 가장 싫어할 만한 말만 골라 놓았습니다.

10절에서 총독이 머리로 표시하자 바울이 입을 엽니다. 벨릭스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고, 바울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마디에는 아첨이 없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사실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시중에서도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더둘로는 말을 꾸몄고, 바울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도라고 옮긴 헬라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주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그 길이 새로 생긴 이단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은 그 길의 끝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게 장차 올 그날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뒤에 같은 그날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쓴다고 옮긴 헬라어는 신약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본래 무언가를 공들여 다듬고, 몸을 단련하듯 꾸준히 연습한다는 뜻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바울에게 양심을 지키는 일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날마다 연습하는 사람과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러 온 길이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법정에 정작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짚습니다.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처음 고발한 사람들은 정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지난주 자기 자랑을 섞은 편지를 썼던 바로 그 천부장입니다. 더 자세히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가을 함께 앉았던 에베소의 작은 식탁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개역개정은 더 정확하게와 더 자세히로 달리 옮겼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낱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그 길, 곧 도에 대해 쓰였습니다.

아볼로는 그 길을 더 정확하게 알고 나서 아가야로 건너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벨릭스도 그 길을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앎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천부장이 내려오면 처결하겠다고 했지만, 성경에는 루시아가 내려왔다는 기록도, 벨릭스가 판결을 내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23절에서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풀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드루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헤롯 왕, 곧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딸입니다. 요세푸스는 그녀가 본래 다른 나라 왕의 아내였는데, 벨릭스가 사람을 보내 설득해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전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꺼낸 세 가지를 보십시오. 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뇌물을 바라던 총독 앞에서 꺼냈습니다. 절제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온 사람 앞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은, 지금 재판석에 앉은 사람도 언젠가 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서서, 재판석의 사람에게 그가 설 재판을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석방을 얻어 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더둘로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성경은 그 속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여라고 옮긴 헬라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세 마디가 그의 삶 어디를 건드렸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말씀이 그에게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말씀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지금은 가라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틈이 있으면이었습니다. 틈이라고 옮긴 헬라어는 카이로스, 곧 알맞은 때라는 뜻입니다. 벨릭스는 알맞은 때가 나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를 흔들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기 몇 해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같은 낱말을 써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고 했고, 바울은 지금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26절은 더 씁쓸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정말로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틈이 없었을까요? 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틈마다 그가 기다린 것은 회개가 아니라 뇌물이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한 말이 그의 귀에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이야기한다고 옮긴 헬라어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훗날 교회는 이 말에서 나온 낱말로 성경을 풀어 들려주는 말씀을 부르게 됩니다. 벨릭스는 두 해 동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들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자주 듣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흔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의 바로입니다.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해 견딜 수 없게 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여호와께 구해 달라고 청합니다. 모세가 언제 구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내일이니라.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보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사라지자 15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는 괴로울 때 불렀고, 숨을 돌리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일은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미루는 마음은 한 번에 굳지 않습니다. 내일과 숨 돌림이 되풀이되면서 조금씩 굳어 갑니다.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자주 부를수록 그 말씀은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계산이 들어섰습니다. 처음 들을 때 우리를 떨게 하던 말씀이, 열 번째 들을 때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걸까요?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법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미루면, 미루는 것이 몸에 밴 버릇이 됩니다.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의 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묶어 둔 채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성경은 그 뒤 벨릭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남긴 그의 마지막 대답은 나중에였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 한 데에는 까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무렵 가이사랴에서 유대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벨릭스가 그 일로 로마에 고발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형제 팔라스의 힘으로 겨우 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자기 앞날이 걸린 때에 벨릭스가 고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풀어 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두 해 내내 재판석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언제 부를지, 언제 돌려보낼지 그가 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들을 때와 그칠 때를 자기가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벨릭스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해 동안 정말로 부르고 있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부르고 계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 벨릭스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두 해를 바울 쪽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해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 있었습니다. 약속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두셨을까요? 그 두 해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다니던 누가가 무엇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21장에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27장에서 가이사랴를 떠나는 배에 다시 우리라고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는 그 사이 누가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서를 준비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누가는 복음서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같은 가이사랴에서 한 사람은 그 길을 자세히 알고도 미루었고, 또 한 사람은 그 길을 자세히 살펴 기록으로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 해 내내 벨릭스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벨릭스를 위해 바울을 그 자리에 두 해나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지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미루셔서가 아니라 기다리셔서입니다. 벨릭스가 누린 두 해의 틈은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흔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까지 가이사랴의 재판석과 총독의 방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벨릭스의 방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벨릭스는 정말 우리와 먼 사람일까요? 그를 불신자로만 읽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자세히 알았고, 자주 들었고, 말씀 앞에서 떨 줄도 알았습니다. 오래 믿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압니다. 자주 듣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중으로 미뤄 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몇 해째 마음에 걸려 있는 화해일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한 사과, 미뤄 둔 헌신, 오래 닫아 둔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그랬듯이, 말씀은 대개 우리 삶의 의와 절제를 건드리는 자리를 정확히 짚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미루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벨릭스의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언제 들을지, 어디까지 들을지 내가 정하는 자리입니다. 바쁠 때는 돌려보내고, 마음이 편할 때 다시 부릅니다. 벨릭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부르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로 그 익숙함 속에서 굳어 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며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가 오늘이라는 말을 붙든 것은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은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가 서로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이것일지 모릅니다. 서로의 나중을 오늘로 불러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나중을 오늘로 불러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나중을 불러 주고 있습니까?

바울의 16절도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특별한 날에 큰 결단을 한 사람이기 전에, 날마다 조금씩 연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건드린 그날 바로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날마다였습니다. 그 한 걸음은 대개 작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오늘 저녁 다시 펴는 성경 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를 떨게 한 장차 오는 심판이 어떻게 바울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또 하나의 재판석에 있습니다. 그보다 이십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또 한 사람의 로마 총독이 한 죄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적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도 그 죄수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적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묶어 둔 벨릭스와 꼭 닮았습니다.

그 재판석 앞에 선 죄수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가을 우리가 함께 따라간 아덴에서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장차 오실 재판장이 사람의 재판석 앞에 서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벨릭스는 듣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에게, 그날은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생애 끝에 감옥에서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벨릭스에게 그날은 미루고 싶은 날이었고, 바울에게 그날은 사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번의 나중을 만났습니다. 바로의 내일이 있었고, 벨릭스의 틈이 있으면이 있었습니다. 무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진실을 미룬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중을 지나, 사람의 재판석

앞에 서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중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마음을 흔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중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 순간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오래 들어 익숙해진 말씀 앞에서도 다시 떨 줄 알게 하시고, 서로의 나중을 오늘로 불러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더 자세히'(24:22 ἀκριβέστερον) = 18:26 '더 정확하게'(같은 비교급, 둘 다 '그 도'에 대해). 18:25 '자세히', 눅 1:3 '자세히'(ἀκριβῶς). 원고는 아볼로(10/25 「작은 식탁에서」)·벨릭스·누가를 이 말로 잇되, 가이사랴 두 해 동안의 누가의 활동은 학자들의 '짐작'으로만 두었습니다(성경에 기록 없음).

2. 낱말들 — 틈(24:25 καιρός, 고후 6:2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같은 말, 사 49:8 인용) · 두려워하여(ἔμφοβος γενόμενος) · 힘쓰나이다(24:16 ἀσκῶ — 신약에 이곳뿐, 공들여 다듬다·단련하다) · 같이 이야기하더라(24:26 ὁμιλέω — 명사 ὁμιλία가 훗날 교회에서 '성경을 풀어 들려주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 됨) · 도(ὁδός, 9:2; 19:9, 23; 22:4; 24:14, 22).

3. 벨릭스와 드루실라 — 타키투스 『역사』 5.9(종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연대기』 12.54;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0.7.2(드루실라는 에메사 왕 아지주스의 아내였음), 20.8.5-9(강도·자객·거짓 선지자, 가이사랴의 유대인과 시리아인 다툼, 고발과 형제 팔라스). 원고는 드루실라의 혼인을 한 줄로만, 벨릭스의 잔혹함은 타키투스 한 문장으로만(절제).

4. 24:6하-8상 — 개역개정은 본문에서 빼고 난외주에 둠(일부 사본에 있음). 24:2-3 절 나눔도 역본마다 다름(사이트는 "벨릭스 각하여"부터 3절 — 개역개정은 확인 필요). 번역자 주의.

5. 두 해(24:27 διετία)와 28:30 '온 이태' — 사도행전 마지막의 두 해와 짝. 벧후 3:9의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의 두 해를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읽은 것은 원고의 해석입니다("어쩌면 … 모릅니다"로 수위를 낮춤). 벨릭스의 소환 연대(주후 59/60년 무렵)는 학자마다 1-2년 차이.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지금 내 마음에 "틈이 있으면"으로 미뤄 둔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은 내 삶의 의와 절제 가운데 어디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 말씀을 언제 들을지, 어디까지 들을지 내가 정하는 '재판석'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17, 18, 24장 · 요 5, 19장 · 막 15장 · 눅 1장 · 롬 8장 · 히 3장. 출애굽기·고린도후서 6장·베드로후서·디모데후서 4장은 그 사이트 페이지를 열 수 없어 대조 못 함 → 확인 필요.

1. 행 24:25 — 인용(뒷부분, 도입)

2. 행 24:22 — 요약

3. 행 24:1 — 인용

4. 행 24:2-3 — 인용("벨릭스 각하여"부터) ※ 확인 필요: 행 24:2-3 — 사이트 절 나눔 '2절은 이르되까지, 벨릭스 각하여부터 3절' / 개역개정(기억) 절 나눔 확실치 않음 — 원고에서 '3절에서'를 빼 절 번호에 기대지 않게 고침. 녹음 전 성경 확인

5. 행 24:5 — 인용 / 24:6 — 요약

6. 행 24:10 — 인용(뒷부분) / 24:11-13 — 요약

7. 행 24:14 — 인용

8. 행 24:15 — 인용

9. 행 24:16 — 인용

10. 행 24:17 — 요약 / 24:18 — 요약 / 24:19 — 인용

11. 행 24:21 — 인용("하니" 앞까지)

12. 행 24:22 — 인용

13. 행 18:26 — 요약 / 18:27 — 요약 ※ 24:22 '더 자세히'와 18:26 '더 정확하게'는 헬라어 같은 낱말 — 원고가 그렇게 말하므로 언어별로 같은 말로 맞추거나 이 문장 조정 필요

14. 행 24:23 — 요약

15. 행 24:24 — 인용

16. 행 12:1-4 — 요약

17. 행 24:25 — 인용

18. 고후 6:2 — 인용(뒷부분) ※ 확인 필요

19. 행 24:26 — 인용

20. 출 8:8-9 — 요약 / 8:10 — 인용("내일이니라") ※ 확인 필요

21. 출 8:15 — 인용(앞부분) ※ 확인 필요(히브리어 성경은 8:11 — 역본별 절 번호 다름)

22. 행 24:27 — 인용

23. 행 21:17-18; 27:1 — 요약(누가의 '우리')

24. 눅 1:3 — 인용(앞부분)

25. 벧후 3:9 — 인용 ※ 확인 필요

26. 히 3:9-10 — 요약 / 히 3:15 — 인용(가운데, "오늘 … 완고하게 하지 말라") / 히 3:13 — 인용

27. 행 24:16 — 인용(뒷부분)

28. 요 19:8 — 인용(앞부분) / 요 19:13 — 인용

29. 막 15:15 — 인용

30. 행 17:31 — 인용("하니라" 앞까지)

31. 요 5:24 — 인용

32. 롬 8:1 — 인용

33. 딤후 4:8 — 인용 ※ 확인 필요

34. 히 3:15 — 인용(마침 기도, 가운데)

※ 24:25 '틈'과 고후 6:2 '때'는 헬라어 같은 말(καιρός) — 원고가 "같은 낱말"이라고 말하므로 언어별 조정 필요.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두 해 동안 한 죄수를 자주 불러 이야기하고, 듣다가 두려워 떨기까지 한 권력자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 벨릭스

- 흔한 생각: 복음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한 불신자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벨릭스는 '이 도를 더 자세히 아는' 사람(22절), 자주 들은 사람(26절),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25절) — 오래 믿은 사람의 거울 / 바울 쪽에서 본 두 해는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 같은 '그날'이 바울에게는 소망(15절), 벨릭스에게는 두려움(25절)

- 원포인트: 말씀이 마음을 흔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 여운 "나중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 원어 포인트: 도(길), 힘쓰나이다(ἀσκέω, 신약 1회), 더 자세히(= 18:26 더 정확하게), 틈(카이로스 = 고후 6:2 '때'), 같이 이야기하다(ὁμιλέω)

- 평행본문 세 장면: 바로의 "내일이니라"(출 8:10, 15 — 숨 돌리자 굳어짐) · 광야 세대와 히브리서의 '오늘'(히 3:13, 15 —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 빌라도의 재판석(요 19:8, 13; 막 15:15 — 두려워하고도 무리의 마음을 얻으려 함) — 아볼로(18:26)는 '더 자세히'의 짝으로

짧게

- 복선과 회수: 지난주 밤길·루시아의 편지 → 22절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 10/25 「작은 식탁에서」 아볼로의 '더 정확하게' → 벨릭스의 '더 자세히' / 15절 소망 ↔ 25절 두려움 / 16절 '항상 힘씀' ↔ 25절 '틈이 있으면' / 10/11 「손을 뻗는 사람들」 아덴의 17:31 → 장차 오실 재판장 / 27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2/14 베스도도 같은 말(25:9) / 드루실라 → 2/14 그 오라비 아그립바

- 우리 자리: 많이 알고 자주 듣는 오래 믿은 사람이 미뤄 둔 말씀(화해, 습관, 사과, 헌신, 닫아 둔 성경) / 말씀을 언제 들을지 내가 정하는 자리 / 서로의 나중을 오늘로 불러 주는 소수의 교회(히 3:13)

- 그리스도 착지: 이십여 년 전 또 하나의 재판석 — 빌라도도 두려워했고 무리의 마음을 얻으려 넘겨줌 → 그 죄수가 장차 오실 재판장(행 17:31) → 우리 대신 정죄받고 다시 사심 → 요 5:24(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 롬 8:1, 딤후 4:8(그날을 사모함)

- 중심 그림 하나: 재판석 — 처음(재판석의 벨릭스, 그 앞에 선 바울) · 중간(두 해 동안 부르고 돌려보내는 총독의 방 / 바로의 궁) · 끝(가이사랴 뜰의 재판석과 그 앞에 선 예수님 →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

- 제목: 「나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말하다). 벨릭스를 우리의 거울로 세우려고 부정 쪽 동작을 그대로 씀. 다른 후보: 「오늘 듣는 사람들」, 「틈을 기다리는 사람들」

- 처음 설계에서 바꾼 것: 중심 그림을 '문'(계 3:20)으로 잡았다가, 1/10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이 문을 중심 그림으로 쓰고 계 3장(빌라델비아)을 썼기에 '재판석'으로 바꾸고 계 3:20을 뺐습니다.

- 매일묵상과의 관계: 다음 주 평일 2/12-13이 헤롯과 세례 요한(막 6:14-29, "헤롯의 두려움 — 요한을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 같은 꼴(두려워하며 달갑게 들은 권력자)이라 막 6:20을 평행본문으로 쓰지 않고 바로·광야 세대로 갔습니다. 같은 주 평일 막 4:30–5:34, 당일 팩 시 113 — 겹침 없음.

- 절제: 드루실라의 혼인은 요세푸스를 따라 한 줄로만, 사실 서술로.

- 계획과 다른 곳: 없음.

2027년 2월 14일 주일

사슬을 찬 채 초대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5:1-26:32 · 본문 사도행전 25:1–26:32 (요한복음 8:36)

성경에는 왕과 왕의 누이와 총독,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선 넓은 방이 나옵니다. 그 한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심문하러 온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매인 사람이 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재의 수요일을 지나 사순절의 첫 주일에, 우리는 이 결박된 사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장면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위대한 사도의 담대한 변론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그립바 왕이 거의 믿을 뻔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는 내가 훌륭하니 나를 닮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기 직전,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나처럼 은혜를 입으라는 초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초대를 향해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방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벨릭스가 바울을 묶어 둔 채 떠나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25장 1절에서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울을 고소합니다. 3절은 그 속셈을 이렇게 적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두 해 전 밤길로 피했던 그 매복의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엽니다. 그러나 9절에서 그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베스도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그 길이, 이제 로마의 법으로 열렸습니다.

13절에서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새 총독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버니게는 아그립바의 누이입니다. 이 아그립바는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아들이고, 지난주에 만난 드루실라의 오라비입니다. 그의 증조부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 없애려 했습니다. 같은

집안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게 했고,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집안은 대마다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왕이라 불린 마지막 사람이 바울 앞에 앉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립바에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19절에서 로마 총독의 입으로 복음의 한가운데를 짚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고 옮긴 헬라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차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사슬에 매인 죄수 하나가 들어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든 손에는 아마 쇠사슬이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남짓 전 우리는 성전 뜰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해가 넘게 지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매인 몸이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것이라고 말할 때 가리킨 것도 그 사슬이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젊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절부터 바울은 숨기고 싶었을 과거를 꺼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과 11절에서 그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으며, 외국 성까지 쫓아가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왕과 총독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다메섹 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몇 주 전 층대 위에서 히브리 말로 들려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을 세 번 적는데, 세 번째인 이번에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소를 몰 때 쓰던,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소가 고집을 부려 뒷발로 걷어차면 찔리는 것은 소 자신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쓰이던 속담이었습니다. 신을 거스르는 사람의 헛된 몸부림을 두고 하던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말을 쓰는 왕과 총독 앞에서 그 말을 빼지 않고 전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그 시절, 정말로 아팠던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다는 고백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서 주님은 엎드러진 사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시고, 17절과 18절에서 그에게 맡기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은 다메섹 길에서 눈이 먼 사울에게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슬에 매인 바울이, 갇힌 사람들을 풀어 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사람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말씀 앞에서 일어선 사람이, 이십여 년이 지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라는 말처럼,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앞에서도, 지금 이 방의 왕 앞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증언한 것은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었습니다.

그때 24절에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5절에서 바울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온전하다고 옮긴 헬라어는 미쳤다는 말과 정반대, 곧 정신이 맑고 분별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골방에서 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던 때였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왕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에서 아그립바가 대답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대답은 옛 영어 성경에서 네가 나를 거의 설득하는구나로 옮겨져, 거의 믿을 뻔한 왕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짧은 시간에, 혹은 몇 마디 말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말을 진지한 고백보다,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셈이냐는 비꼼이나 웃어넘김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세 번만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그립바가 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대답합니다. 적은 말로 하든 많은 말로 하든, 짧게 걸리든 오래 걸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슬이 풀리면 그때 다시 말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슬에 매인 그대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슬만은 나누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고난은 빼고, 은혜만 나누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슬을 찬 채로도, 초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밤입니다. 지난가을 우리는 그 밤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와 떨며 엎드린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밤에도 묶인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었고, 정말로 매여 있던 사람은 열쇠를 쥔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가기 전에, 간수와 그 온 집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고향과 가족을 잃고 적국 장군의 집에 끌려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붙잡아 온 집의 주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는 집에 보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은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람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그리고 요단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그립바 앞의 그 방도 그랬습니다. 그 방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사슬에 매인 바울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왕은 체면에 매여 있었고,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자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에서 정말로 매여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과 왕의 누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와서, 화려한 옷을 입은 채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앉아서 들었고, 바울은 끝까지 서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문 밖의 이야기에서 함께 읽었듯이, 바울은 훗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슬에 매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슬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를 묶은 것은 로마의 사슬이었지만, 그의 삶을 쥐고 있던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슬이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슬 때문에 복음이 그를 지키던 군인들 사이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30절과 31절에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며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천부장의 편지도, 베스도의 말도, 이제 왕과 총독이 함께 내린 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상소는 실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란 것은 석방이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라고 부른 그 상소가,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슬에 매인 바울이 그날 그 방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슬은 그대로였지만, 그 방의 모든 사람이 초대를 들었습니다. 그 초대가 아그립바의 마음에 어떻게 남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 그 방에서 일어선 사람들은 매이지 않은 몸으로 돌아갔고, 매인 사람은 더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사슬을 찬 채로도, 초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이사랴의 화려한 방에서 사슬에 매인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방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가 풀려야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건강이 돌아오면, 교회가 다시 커지면 그때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몇 해가 흘러갑니다. 나이도, 작아진 교회도, 오래 낫지 않는 병도, 풀리지 않는 집안 문제도 우리를 묶는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슬이 있습니까?

바울은 사슬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슬에 매인 그대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사슬이 있는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초대할 만한 삶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 들고,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편지로 한 일은, 주인 곁을 떠났다가 바울이 갇힌 중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 달라는 초대였습니다. 나이도 사슬도 그 초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형편도 여러분의 초대를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망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본이 되겠는가. 나와 같이 되자고 말할 만큼 내 삶이 떳떳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의 9절부터 11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훌륭해서 나와 같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까닭은 후에 주를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본이 된 것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용서하신 분을 당신도 만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슬을 찬 사람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거창한 연설이 아니어도 됩니다. 병상으로 찾아온 이웃에게 건네는 감사의 한마디일 수도 있고, 같은 사슬로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나누는 오래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말보다, 사슬에 매인 사람의 말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초대는 우리가 하고, 그 마음을 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슬 이야기는 결국 한 분에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8장은 겟세마네 동산의 밤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게 했던 천부장이라는 그 직함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결박당하셨습니다. 두 주 전 우리는 그 밤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마다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그 결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에게,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는 그분을 다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 헤롯이 바로 아그립바 집안의 헤롯 안디바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적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끌려온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 같은 집안의 아그립바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결박된 바울 앞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서셨기에, 바울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신 것은 우리를 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사흘 뒤 하나님은 죽음의 사슬마저 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서 증언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주시는 자유는 사슬이 하나도 없는 자유가 아니라, 사슬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슬을 만났습니다. 다시 길에 매복하려는 사람들의 미움이 있었고, 체면에 매인 왕과 총독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매인 것과,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예수님을 묶은 결박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박 때문에, 사슬에 매인 바울은 그 방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었기에 바울은 사슬을 든 손으로 왕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슬을 찬 채로도, 초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슬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풀려난 사람이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도, 우리를 위해 결박되신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사슬을 찬 채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건네는 초대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가시채(26:14 κέντρον) —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는 그리스 사람들 사이의 속담(에우리피데스 『바카이』 794-795 등에 비슷한 말). 개역개정 9:5에는 없고(일부 후대 사본과 KJV는 9:5에도 넣음) 26:14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하신 말씀에 그리스 속담 꼴이 들어 있다는 점을 두고 설명이 여럿입니다(유대 쪽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다는 견해 등).

2. 적은 말로(26:28 ἐν ὀλίγῳ) — KJV "Almost thou persuadest me"(거의 설득하는구나)는 지금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 몇 마디로'. 29절에서 바울이 ἐν ὀλίγῳ καὶ ἐν μεγάλῳ('말이 적으나 많으나')로 그 말을 받아 대답합니다. 진지함·비꼼·웃어넘김 사이에서 해석이 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약에 세 번(행 11:26; 26:28; 벧전 4:16).

3. 헤롯 집안 — 헤롯 대왕(마 2) → 아리스토불로스 → 아그립바 1세(행 12) → 아그립바 2세·버니게·드루실라(요세푸스). 헤롯 안디바(막 6; 눅 23:6-12)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아그립바 2세의 작은할아버지뻘이자 고모 헤로디아의 남편. 버니게에 얽힌 소문(요세푸스·유베날리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절제). '크게 위엄을 갖추고'(25:23 μετὰ πολλῆς φαντασίας —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4. 갇힌 자(δέσμιος) — 엡 3:1; 4:1; 몬 1:1, 9; 딤후 1:8.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속격). 몬 1:9 '나이가 많은'(πρεσβύτης)을 '사신'(πρεσβευτής)으로 읽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옥중서신의 기록 장소(로마·에베소·가이사랴)는 갈리므로 원고는 "갇힌 몸으로"까지만 썼습니다. 빌 1:13 '시위대'(πραιτώριον)도 장소에 따라 뜻이 달라져 "그를 지키던 군인들"로만 풀었습니다.

5. 상소(25:11-12)와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26:32) — 로마 시민의 황제 상소권. 상소가 받아들여진 뒤에는 총독이 임의로 풀어 주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누가는 '죽을 죄 없음'을 거듭 적습니다(23:29; 25:25; 26:31-32). 개역개정은 같은 사람을 25:10-12 '가이사', 25:21, 25-26 '황제'로 옮겼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내가 "이 사슬만 풀리면"이라고 미뤄 둔 초대는 무엇입니까?

- "나와 같이 되기를" — 나는 누구에게,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은혜를 보여 주며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2, 11, 16, 21, 25, 26장 · 왕하 5장 · 사 42장 · 빌 1장 · 몬 1장 · 요 8, 18장 · 눅 23장. 디모데전서·디모데후서 2장은 그 사이트 페이지를 열 수 없어 대조 못 함 → 확인 필요. (이 사이트는 '세례'를 '침례'로 바꾼 곳이 있으나 이 편에는 세례 인용이 없음)

1. 행 26:29 — 인용(가운데, 도입)

2. 행 26:9-11 — 요약(도입)

3. 행 25:1-2 — 요약 / 25:3 — 인용

4. 행 25:6-9 — 요약 / 25:10 — 인용(앞부분, "바울이 이르되" 다음부터 "받을 것이라"까지) / 25:11 — 인용(뒷부분)

5. 행 25:12 — 인용(뒷부분) / 행 23:11 — 요약

6. 행 25:13 — 요약 / 행 12:1-2 — 요약 / 마 2:16 — 요약 / 막 6:17-28; 눅 23:11 — 요약

7. 행 25:19 — 인용

8. 행 25:23 — 인용

9. 행 26:1 — 인용

10. 행 21:33 — 요약(1/10 회수)

11. 행 26:4-5 — 요약 / 26:8 — 인용

12. 행 26:9 — 인용 / 26:10-11 — 요약

13. 행 26:12-13 — 요약 / 26:14 — 인용(뒷부분)

14. 행 26:15 — 인용(부분 둘)

15. 행 26:16-17 — 요약 / 26:18 — 인용

16. 사 42:7 — 인용

17. 행 26:19 — 인용 / 26:22 — 요약

18. 행 26:23 — 인용("하니라" 앞까지)

19. 행 26:24 — 인용(뒷부분) / 26:25 — 인용(뒷부분)

20. 행 26:26 — 인용(끝 문장)

21. 행 26:27 — 인용 / 26:28 — 인용(뒷부분)

22. 행 26:29 — 인용

23. 행 16:25 — 인용 / 16:26 — 인용 / 16:29 — 요약 / 16:30 — 인용(뒷부분) / 16:34 — 요약

24. 왕하 5:2 — 인용 / 5:3 — 인용(가운데) / 5:14 — 요약(요단 강)

25. 엡 3:1 — 요약(1/10 이야기에서 인용한 구절을 다시 인용하지 않고 받음)

26. 빌 1:12 — 인용 / 빌 1:13 — 인용

27. 딤후 2:9 — 인용 ※ 확인 필요

28. 행 26:31 — 인용(뒷부분) / 25:25 — 요약 / 26:32 — 인용(뒷부분)

29. 몬 1:9 — 인용 / 몬 1:10 — 요약

30. 딤전 1:15 — 인용 ※ 확인 필요 / 딤전 1:16 — 요약 ※ 확인 필요

31. 요 18:12 — 인용(앞부분)

32. 마 26:53 — 요약(1/31 회수)

33. 요 18:13, 24; 막 15:1; 눅 23:7 — 요약

34. 눅 23:11 — 인용

35. 행 2:24 — 인용

36. 행 26:23 — 인용(앞부분)

37. 요 8:36 — 인용(본문과 마침 기도 두 번)

※ 26:28 '적은 말로'와 29절 '말이 적으나 많으나'는 헬라어 같은 말을 받은 것 — 원고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라고 말하므로 언어별로 두 절이 이어지게 조정 필요.

※ 26:29 '결박된', 행 2:24 '풀어'·'매여', 요 8:36 '자유롭게' — 매임·풀림 낱말을 언어별로 되도록 같은 계열로.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화려한 방 한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손을 들고 왕에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 바울

- 흔한 생각: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사도의 담대한 변론, 거의 믿을 뻔한 왕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나와 같이'는 자랑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 — 바울은 그 말 직전에 자기 박해의 과거부터 털어놓았다(9-11절) / '거의'는 옛 영어 번역에서 온 그림 / 바울은 풀어 달라고 하지 않고 초대했다

- 원포인트: 사슬을 찬 채로도, 초대는 할 수 있습니다. (+ 여운 "사슬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풀려난 사람이니까요.")

- 원어 포인트: 크게 위엄을(화려한 차림), 가시채(그리스 속담), 온전한(맑은 정신, '미쳤다'의 반대), 적은 말로(짧은 시간·몇 마디 — 29절이 받아 대답), 갇힌 자(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 평행본문 세 장면: 빌립보 감옥(행 16:25-30 — 묶인 사람이 노래하고 열쇠 쥔 간수가 떪, 지난가을 회수) · 나아만 집의 어린 소녀(왕하 5:2-3 — 사로잡힌 아이가 자기를 사로잡은 주인을 하나님께 초대) · 이사야의 종(사 42:7 — 갇힌 자를 감옥에서) + 바울의 옥중 편지(빌 1:12-13; 딤후 2:9; 몬 1:9)

- 복선과 회수: 1/31 밤길의 매복 → 25:3 다시 매복 / 2/7 벨릭스·드루실라·'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베스도 25:9, 드루실라의 오라비 아그립바 / 1/10 두 쇠사슬·엡 3:1 → 26:29 '이렇게 결박된 것'·'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 1/17 층대 위의 다메섹 이야기 → 세 번째 이야기에만 있는 가시채 / 23:11 로마 → 25:12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 1/31 열두 군단 → 스스로 받으신 결박

- 우리 자리: 풀려야 초대할 수 있다는 생각(형편·건강·교회 크기·나이·병·집안 문제) /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본이 — 딤전 1:15-16 은혜의 본 / 나이 많고 갇힌 바울의 빌레몬서(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 달라는 초대)

- 그리스도 착지: 천부장과 군대에게 결박되신 예수님(요 18:12) → 같은 집안 헤롯 안디바의 조롱과 빛난 옷(눅 23:11) → 십자가와 부활(행 2:24 '풀어 살리셨으니', 26:23) → 요 8:36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 중심 그림 하나: 바울의 쇠사슬(사슬 찬 손) — 처음(화려한 방 한가운데 사슬 찬 손을 든 바울) · 중간(빌립보의 벗어진 매인 것, 사로잡힌 소녀, 갇힌 자의 편지) · 끝(동산에서 결박되신 예수님의 손 → 풀린 사망의 매임 → 사슬 든 손으로 하는 초대)

- 제목: 「사슬을 찬 채 초대하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다른 후보: 「나와 같이 되기를 비는 사람들」, 「매인 채 자유로운 사람들」

- 사순절: 2/10 재의 수요일 뒤 첫 주일 — 첫머리 한 줄("재의 수요일을 지나 사순절의 첫 주일에")만, 설명 없이 이야기 그대로.

- 본문 고르기: 25장은 다리로 짧게(3절 매복, 10-12절 상소, 13절 아그립바 집안, 19절 베스도의 요약, 23절 위엄). 따라 읽기는 26장 아그립바 앞 변론 중심. 26장 다메섹 이야기는 1/17과 겹치지 않게 26장에만 있는 것(가시채, 16-18절 사명, 19절)만 짚음.

- 처음 설계에서 바꾼 것: 평행본문으로 다니엘 3장(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을 썼다가, 1/24가 같은 장면·같은 구절을 써서 나아만 집의 어린 소녀로 바꿨습니다. 엡 3:1도 1/10이 이미 인용해서 다시 인용하지 않고 "한 달 전 함께 읽었듯이"로 받았습니다.

- 매일묵상과의 관계: 같은 주 평일 2/12-13이 헤롯과 세례 요한(막 6:14-29) — 아그립바 집안을 소개하며 안디바를 한 줄로만 언급(다른 각도: 한 집안 네 대가 복음 앞에 선 이야기). 당일 팩 시 114 — 겹침 없음.

- 계획과 다른 곳: 계획 장면의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을 개역개정 26:29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로 맞춤.

2027년 2월 21일 주일

폭풍 한가운데 서는 사람들

사도행전 27:1-26 · 본문 사도행전 27:1–26 (시편 107:29-30)

성경에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이 탄 배 한가운데 한 죄수가 일어나 안심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를 지키던 군인도, 배를 몰던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던 그 죄수는,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장면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웅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건넨 첫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말은 대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 폭풍 속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은 자기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말씀을 향해 갑니다. 가이사랴의 항구에서 배에 오르는 바울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야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배에 함께 탔다는 표시로 읽힙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를 직접 겪은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한 노련한 항해가가 이 장을 실제 해안과 바람에 맞추어 하나하나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의 기록이 항해의 실제와 놀랍도록 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그립바 앞에서 사슬에 매인 채 왕을 초대하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은 훗날 편지에서 아리스다고를 함께 갇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3절도 따뜻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죄수의 길이었지만, 그 길에도 친구와 친절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배는 줄곧 바람과 싸웁니다.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해안을 끼고 돌고, 무라에서 이달리야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뒤에 나오는 대로 밀을 실은 배였으니, 이집트의 곡식을 로마로 실어 나르던 큰 곡물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과 8절에는 간신히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처음부터 순한 바닷길이 아니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로 여겨집니다. 대략 오늘의 9월 말에서 10월 초 무렵입니다. 지중해는 그 무렵부터 거칠어져서, 겨울에는 배가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다를 아는 선장과 배의 주인이 한쪽에 있었고, 죄수 한 사람이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 뵈닉스로 가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의 말과 다수의 뜻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한 바람은 늘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순하게 불면, 그 바람이 내 생각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그리스 말과 북풍을 뜻하는 라틴 말이 합쳐진 이름으로, 북동쪽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말과 라틴 말이 뒤섞인 배 위에서 선원들이 부르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과 17절에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며 간신히 거루를 끌어 올립니다. 간신히라는 말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줄로 선체를 둘러 감아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하고, 아프리카 북쪽 바다의 모래톱인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립니다. 18절에서는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절에서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그다음에는 배를 움직이는 기구를 버립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같은 바다, 같은 폭풍, 짐을 던지는 같은 손입니다.

그런데 두 배에 탄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이었고, 폭풍이 이는 동안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은 요나 때문에 왔고, 요나는 끝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가던 사람이었고, 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의 위험이었고,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을 까닭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나침반이 없던 시절, 바다의 배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로 길을 찾았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라는 말을 쓰던 그 손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헬라어로 읽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자기도 그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그 배 위에서 희망을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절망을 감추지 않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밤하늘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별을 볼 수 있을 때 믿는 것과, 별이 사라진 밤에 믿는 것은 같은 믿음일까요?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은 먼저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고 옮긴 헬라어는 마음을 좋게 가지라, 기운을 내라는 뜻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그 까닭을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배 위에서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을 섬긴다. 폭풍 속에서 바울이 먼저 붙든 것은 자기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고 부르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의 밤에 들었던 말씀과 같은 꼴의 말입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 밤에는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다 네게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고 옮긴 헬라어는 은혜를 뜻하는 낱말과 뿌리가 같은 말로, 선물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를 죄수로 끌고 가는 군인들과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선장과 선주까지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는 조금 뒤 37절에서 배에 탄 사람이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 말은, 헬라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와 거의 같은

꼴입니다. 바울은 몇 해 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배 위에서, 바울은 자기가 썼던 그 문장을 살아 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세며 믿었고, 바울은 별 하나 없는 밤에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별이 사라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바울은 안심하라는 말을 22절과 25절에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기가 붙든 말씀을,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두 번 건넨 것입니다.

24절의 마지막 마디, 다 네게 주셨다는 말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입니다. 종으로 팔려 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종이었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았고, 죄수였던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의인 열 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폭풍을 바로 그치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는 잃을 것이고,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지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걸린다고 옮긴 헬라어는 배가 떠밀려 뭍에 부딪친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사공들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할 때도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사공들이 가장 두려워한 일은 배가 떠밀려 어딘가에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길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바다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항해보다 몇 해 앞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폭풍 없는 삶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10절의 경고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바다를 겪어 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믿음도, 바다를 모르는 사람의 낙관이 아니라 바다를 아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라고 옮긴 말은, 23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쓰인 낱말과 같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4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에도 같은 낱말이 있습니다. 세 주 전 밤길 이야기에서 들었던 그 반드시가,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배를 이리저리 밀었지만, 하나님의 반드시는 한 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오래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새해 첫

이야기에서도 함께 읽었던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그 좋은 길은 죄수의 몸으로, 폭풍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쓸 때, 그 길에 유라굴로가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도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편히 쉬기를 바랐던 사람이, 굶주림과 풍랑 속에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린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생각과 전혀 달랐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순한 남풍 같은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때로 유라굴로를 지나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은 순한 남풍을 믿고 닻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닻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닿습니다. 그 섬이 어디이고 그 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도 별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말씀 하나를 붙들고 선 사람 곁에 머물러 봅니다.

별이 사라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여기까지 미항을 떠나 유라굴로 속을 지나는 배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바다는 어떻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결정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병과 간병 앞에서,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나이 앞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 작아진 교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다음에는 기구를 버리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희망까지 놓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틀렸다는 말이 입에서 새어 나오는 날입니다. 누가도 그랬습니다.

그날 바울을 붙든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해를 보고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무엇을 보고 길을 찾고 있습니까? 순한 바람입니까, 다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해도 별도 사라진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는 해였고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들은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경고를 듣지 않았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앞에서, 같은 처지의 죄수들 앞에서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서는 사람은 폭풍이 그친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붙든 소망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순한 바람을 믿고 감아 올린 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내린 닻입니다.

지난주 사슬에 매인 채 왕을 초대하던 바울은, 이번 주에는 폭풍 한가운데서 지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형편은 더 나빠졌지만, 바울이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곁의 사람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는 어쩌면 큰 배에 탄 몇 사람과 같습니다. 이 시대라는 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에 복을 내리셨고, 바울 한 사람에게 배에 탄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탄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 곧 가족과 이웃과 일터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폭풍의 밤에 그랬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 이야기는 결국 한 분에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요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폭풍을 잠재우려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폭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그 낮을 이렇게 적습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한낮이었는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어둠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영혼의 닻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휘장 안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로 앞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배가 떠날 때 이미 지나 버린 그 금식하는 절기의 참된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울에게 배에 탄 사람들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새벽 별은 밤이 끝나 간다는 표시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떠올라, 곧 해가 뜬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어두운 밤 끝에 떠오르는 새벽 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바다와 하늘을 만났습니다. 간신히 나아가던 그레데 해안, 순한 남풍 뒤에 몰아친 유라굴로, 요나가 잠들었던 배의 밑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려다본 별이 가득한 하늘과, 한낮에 어두워진 골고다의 하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하늘 위에 같은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별이 사라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한가운데 서서 안심하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누가의 항해 기록 —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 of Jordanhill), 『The Voyage and Shipwreck of St. Paul』(1848)이 27장을 실제 해안·바람과 맞춰 검토한 고전입니다. 27장은 '우리' 단락(27:1–28:16). 유라굴로(Εὐρακύλων — 동풍 Euros + 라틴어 북풍 Aquilo, 일부 사본 Εὐροκλύδων, KJV 'Euroclydon'), 스르디스(대 시르티스, 리비아 앞바다의 모래톱), 선체를 둘러 감음(17절 ὑποζωννύντες), 알렉산드리아 곡물선(27:6, 38).

2. 금식하는 절기(27:9) = 대속죄일(레 16장; 23:27) — 항해 연도를 주후 59년으로 보면 10월 5일 무렵이라는 계산이 널리 인용됩니다(연대는 추정). 로마 시대 지중해 항해는 9월 중순부터 위험, 1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거의 닫혔다고 전합니다(베게티우스 『군사론』 4.39).

3. 낱말의 실 — '간신히'(μόλις) 7, 8, 16절 세 번 / '걸리다'(ἐκπίπτω) 17절 스르디스, 26절 섬, 29절 암초(다음 주) / '반드시·서야 하겠고'(δεῖ) 23:11; 27:24, 26 / '주셨다'(24절 κεχάρισται, χαρίζομαι — χάρις와 같은 뿌리) / '안심하라'(εὐθυμέω 22, 25절 → 36절 '다 안심하고', 다음 주) / '두려워하지 말라'(μὴ φοβοῦ — 18:9와 같은 꼴) / 20절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소망'(ἐλπὶς πᾶσα τοῦ σῴζεσθαι ἡμᾶς).

4. '하나님을 믿노라'(27:25 πιστεύω τῷ θεῷ) ↔ 창 15:6 칠십인역 ἐπίστευσεν Αβραμ τῷ θεῷ ↔ 롬 4:3, 18. 로마서는 이 항해 몇 해 전(주후 57년 무렵 고린도)에 쓰였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롬 1:10; 15:32의 기도(1/3, 1/24에서도 다룸)가 폭풍의 길로 응답됨.

5. 바울의 파선 — 고후 11:25 '세 번 파선'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27장 파선은 그 뒤의 일). 아리스다고(19:29; 20:4; 27:2; 골 4:10 '나와 함께 갇힌'). 24절 '다 네게 주셨다'를 바울의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읽는 것은 해석입니다("읽을 수 있습니다"로 수위를 낮춤).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요즘 나는 무엇을 보고 길을 찾고 있습니까 — 순한 바람, 다수의 뜻, 아니면 들은 말씀입니까?

-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이며,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27장 · 창 15, 39장 · 롬 1, 4, 15장 · 고후 11장 · 히 6장 · 마 12장 · 막 15장 · 요 6장 · 계 22장. 요나서·시편은 대조 못 함 → 확인 필요.

1. 행 27:25 — 인용(뒷부분, 도입)

2. 행 27:24 — 요약("두려워하지 말라")

3. 행 27:1 — 인용

4. 행 27:2 — 인용 / 골 4:10 — 요약

5. 행 27:3 — 인용

6. 행 27:4-6 — 요약 / 27:38 — 요약(밀)

7. 행 27:7 — 인용(부분) / 27:8 — 인용(부분)

8. 행 27:9 — 인용

9. 행 27:10 — 인용(뒷부분)

10. 행 27:11 — 인용 / 27:12 — 요약

11. 행 27:13 — 인용

12. 행 27:14 — 인용

13. 행 27:15 — 인용

14. 행 27:16-19 — 요약

15. 욘 1:4 — 요약 / 욘 1:5 — 인용(앞부분) ※ 확인 필요 / 욘 1:5하, 12 — 요약

16. 행 27:20 — 인용(두 번째는 뒷부분)

17. 창 15:5 — 인용 / 창 15:6 — 인용

18. 행 27:21 — 인용(앞부분), 요약(뒷부분)

19. 행 27:22 — 인용

20. 행 27:23 — 인용 / 27:24 — 인용

21. 행 18:9 — 요약(같은 꼴, 표본 「떨면서도 말하는 사람들」 회수)

22. 행 27:37 — 요약(276명, 다음 주 범위를 한 줄로)

23. 행 27:25 — 인용

24. 롬 4:18 — 인용(앞부분)

25. 창 39:5 — 인용

26. 창 18:32 — 요약

27. 행 27:26 — 인용 / 27:17 — 요약('걸리다')

28. 고후 11:25 — 인용(뒷부분)

29. 행 23:11 — 인용(뒷부분) / 27:24 — 인용(부분)

30. 롬 1:10 — 인용

31. 롬 15:32 — 인용

32. 행 27:13 — 요약('닻을 감아')

33. 히 6:19 — 인용

34. 마 12:40 — 인용 / 마 12:41 — 요약

35. 막 15:33 — 인용

36. 히 6:20 — 요약

37. 요 6:39 — 인용

38. 계 22:16 — 인용(뒷부분)

39. 시 107:29-30 — 인용(마침 기도) ※ 확인 필요

※ 27:25 '하나님을 믿노라'와 창 15:6 '여호와를 믿으니'·롬 4:3 '하나님을 믿으매'는 헬라어 같은 꼴 — 원고가 그렇게 말하므로 언어별로 같은 동사로 맞추거나 그 문장 조정 필요.

※ '간신히'(7·8·16절), '걸리다'(17·26절), '반드시/하여야/서야'(23:11; 27:24, 26) — 원고가 "세 번째", "같은 말"이라고 말하므로 역본이 다르게 옮기면 해당 문장 조정 필요.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해도 별도 없는 바다, 굶주린 사람들 가운데 한 죄수가 일어나 안심하라 —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 바울

- 흔한 생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웅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사자의 첫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떨던 바울) / 누가도 '우리'의 소망을 놓았다고 적음(20절) /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고 지나게 하겠다고 하심 — 사공들이 가장 두려워한 '걸림'(17절)이 구원의 길(26절)

- 원포인트: 별이 사라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 여운 "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남아 있으니까요.") — 1/31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와 꼴이 겹치지 않게 '밤에도'를 피함

- 원어 포인트: 간신히(세 번), 유라굴로(그리스 말+라틴 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소망(누가 포함), 안심하라(기운을 내라), 주셨다(은혜와 같은 뿌리), 하나님을 믿노라(창 15:6 칠십인역과 같은 꼴), 걸리다(17절과 같은 말), 반드시(δεῖ)

- 평행본문 세 장면: 요나의 배(욘 1:4-5, 12 — 같은 폭풍, 정반대의 하나님의 사람) · 아브라함의 별(창 15:5-6 + 롬 4:18 — 별이 가득한 밤과 별 없는 밤) · 요셉 때문에 복 받은 집(창 39:5 + 창 18:32) — 각각 '짐을 던지다', '해도 별도', '다 네게 주셨다'를 받침

- 복선과 회수: 지난주 사슬 찬 초대 → 폭풍 한가운데의 초대 / 2/14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 '내가 속한 바' / 표본(10/18) 고린도의 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꼴 / 1/31 '하여야 하리라'(δεῖ) → 27:24, 26 '반드시' / 1/3 롬 15:32 기도 → 폭풍의 길 / 13절 '닻을 감아' → 히 6:19 영혼의 닻 / 9절 대속죄일 → 히 6:19-20 휘장 안, 십자가 / 다음 주(2/28) 섬·떡·'다 안심하고'는 남겨 둠

- 우리 자리: 해도 별도 없는 날들(결정·병과 간병·나이·작아진 교회), "이제는 틀렸다" / 무엇을 보고 길을 찾는가 / 같은 배의 사람들(가족·이웃·동료)을 이름 불러 기도

- 그리스도 착지: 요나보다 더 큰 이(마 12:40-41) → 한낮의 어둠(막 15:33) →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히 6:19-20) → 부활 → 요 6:39(하나도 잃지 않음) → 광명한 새벽 별(계 22:16)

- 중심 그림 하나: 별 — 처음(해도 별도 없는 폭풍의 하늘, 배 한가운데 선 바울) · 중간(아브라함이 우러른 뭇별의 하늘) · 끝(한낮에 어두워진 골고다의 하늘 → 밤 끝에 떠오르는 새벽 별)

- 제목: 「폭풍 한가운데 서는 사람들」 — 21절 '가운데 서서', 눈에 보이는 동작. 다른 후보: 「별 없는 밤에 믿는 사람들」, 「안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 매일묵상과의 관계: 같은 주 평일 2/17이 막 6:45-52("바다 위로 오신 밤 — 안심하라 나니"), 2/2가 막 4:35-41(광풍을 잠잠하게) — 그리스도 착지를 폭풍을 잠잠케 하신 장면으로 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한낮의 어둠·새벽 별로 잡았습니다. 마가 4·6장은 원고에서 인용하지 않음(1/24가 마 14:27 "안심하라"를 이미 씀). 당일 팩 시 115 — 겹침 없음.

- 사순절: 둘째 주일이지만 절기 언급은 하지 않음(2/14에서 한 줄로 했음). 9절 '금식하는 절기'(대속죄일)가 자연스러운 절기의 결.

- 계획과 다른 곳: 없음. 27:37(276명)은 다음 주 범위지만 한 줄 요약으로 미리 씀 — 2/28 원고와 겹치면 그쪽에서 살리고 이쪽 한 줄은 빼도 됩니다.

2027년 2월 28일 주일

동트기 전에 떡을 떼는 사람들

사도행전 27:27-44 · 본문 사도행전 27:27–44 (로마서 13:12)

성경에는 열나흘 동안 폭풍에 떠밀린 배 위에서,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한 죄수가 떡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는 어디쯤인지도 모르는 바다에 닻 넷을 내리고 겨우 버티고 있었고, 몇 시간 뒤면 파도에 부서질 참이었습니다. 그 죄수는 감사를 마치자 떡을 떼어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장면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폭풍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살아서 육지에 오른 기적, 그리고 그 뒤에 드린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는 대개 육지에 오른 다음에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바울이 떡을 들고 감사한 때는 육지가 보이기 전이었습니다. 날이 새어 가는 어둠 속이었고, 배는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구원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육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새벽의 떡 한 조각을 향해 갑니다. 열나흘째 되는 밤, 어둠 속에서 물을 재던 사공들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난주 우리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안심하라고 말하던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 뒤로도 배는 열나흘을 떠밀렸습니다. 그 무렵 아드리아 바다는 오늘의 아드리아해보다 넓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바다를 두루 가리키던 이름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무엇을 보고 육지가 가깝다고 짐작했는지 성경은 적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으니, 어디선가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은 줄에 추를 달아 물 깊이를 잽니다.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한 길은 사람이 두 팔을 벌린 길이입니다. 바다 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걸린다는 말은 지난 이야기에서도 두 번 들었습니다. 사공들은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했고,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걸림이 눈앞에 왔습니다. 배 뒤쪽에서 닻 넷을 내린 것은,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둔 채 밤을 버티려는 노련한 뱃사람의 솜씨로 읽힙니다.

그리고 고대하니라고 옮긴 헬라어는 기도한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날이 밝기를 기도했다고 옮깁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빌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밤,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아침을 빌고 있었습니다. 닻 넷에 매달려 빛을 기다리는 밤이었습니다.

30절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지난 이야기에서 가우다 섬 아래를 지나며 간신히 끌어 올렸던 그 작은 배입니다.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몰래 먼저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이미 배에 탄 사람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공 몇이 빠져나간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러나 바울은 약속을 핑계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라는 말 안에는 도망치려던 그 사공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해안에 대려면 그들의 솜씨가 있어야 했습니다. 약속은 사람의 몫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제 빠져나갈 작은 배는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말 그대로 한 배를 탔습니다. 따로 살 길은 사라졌고, 함께 사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날이 새어 가매라는 말은, 아직 날이 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때였습니다. 그 시간에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회를 열자고 하지도, 다시 한번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먹자고 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열나흘을 꼬박 굶었다는 뜻인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뜻인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뱃멀미 때문이었는지, 젖은 배에서 불을 피울 수 없어서였는지, 두려움에 목이 막혀서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그 열나흘을 다 보여 줍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34절에서 바울이 다시 권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먹으라는 말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이 낱말은 몸이 살아남는 것도,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도 함께 가리킵니다. 앞서 20절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할 때와 같은 뿌리의 말입니다. 바울이 권한 떡 한 조각은 날이 밝으면 헤엄쳐야 할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는 말은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박해를 앞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말을 폭풍 속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건넸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해마다 실로의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한나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가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고 물어도 한나는 먹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목을 막으면 떡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먹는 일조차 짐이 됩니다.

한나는 성막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고, 제사장 엘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이는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받은 것은 말씀 한 마디였고,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이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나흘을 먹지 못한 배 위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육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이 먼저 떡을 들었습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누가는 바울의 몸짓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먹으라고 말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열나흘을 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보다 그 모습이 먼저 보이지 않았을까요? 축사했다고 옮긴 헬라어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주의 만찬을 두고 써 온 낱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식사가 주의 만찬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에 탄 사람 대부분은 로마 군인과 선원과 죄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고른 말은 분명합니다. 그 새벽 바울이 한 일은, 주님이 떡을 드실 때 하시던 일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갑판 한쪽에서 몰래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군인들과 사공들과 죄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죄수가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아직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날 일을 두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큰 군대가 유다로 몰려왔을 때,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적습니다. 군대가 앞서 간 것이 아니라 감사가 앞서 갔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주를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배 위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39절을 미리 보면, 날이 샌 뒤에도 그들은 그곳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감사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라고 옮긴 헬라어는, 지난주 바울이 22절과 25절에서 두 번이나 안심하라고 할 때 쓴 바로 그 말입니다. 말로 두 번 건넨 안심이, 떡 한 조각과 함께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그쳐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감사하고 먹자, 지친 사람들이 따라 먹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기 전에, 감사의 떡을 뗍니다.

37절에서 누가는 사람을 셉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 누가는 떡을 나누어 먹은 자리에서 사람 수를 적고, 자기도 그 우리 안에 넣습니다. 이 숫자는 그 새벽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의 수이고, 곧 해변에 닿아야 할 사람의 수였습니다. 누가가 굳이 이 숫자를 적은 것은, 끝에 가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배는 이집트의 밀을 로마로 실어 나르던 곡물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떡을 먹었고, 그다음에 싣고 온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해안 가까이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바다를 건너온 까닭이 바로 그 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사람을 일으킨 것은 실어 나르던 밀이 아니라, 감사하고 나눠 먹은 떡이었습니다. 살게 하는 떡을 먹은 사람은, 평생 실어 나르던 짐을 바다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나서 떠날 채비를 하는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먹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쥔 채 먹었습니다. 그 식사는 구원 뒤의 잔치가 아니라 구원 앞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도 동트기 전에 먹었고, 먹고 나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기다리던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도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래가 깔린 해변 하나가 보였습니다.

40절에서 그들은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밤새 매달려 있던 닻 넷을 끊어 버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영혼의 닻이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배의 닻은 그들이 밤을 버티게 해 주었지만, 그들을 육지로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자 그들은 붙들고 있던 것을 놓고, 바람에 배를 맡겼습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은 물속에 숨은 모래톱이나, 두 물살이 만나는 좁은 물목으로 풀이됩니다. 뱃머리는 박혀 꼼짝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파도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순간 또 하나의 위험이 닥칩니다.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맡은 죄수를 놓친 군인은 그 죄를 대신 져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43절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내려 뭍으로 나간 뒤, 44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부서진 배의 널빤지와 배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붙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깨어진 배가, 깨어진 채로 사람들을 해변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다라는 말을 누가는 이 장에서 세 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약속의 다가 떡을 먹는 자리의 다가 되었고, 떡을 먹은 다가 해변에 오른 다가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떡을 받아 먹은 사람 가운데 해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기 전에, 감사의 떡을 뗍니다.

여기까지 열나흘째 되는 밤부터 널조각을 붙들고 해변에 오른 아침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새벽의 갑판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감사를 육지에 오른 뒤로 미룹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하겠다고, 자녀의 일이 풀리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시 사람이 차면 그때 마음껏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폭풍 한가운데서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바다에 계십니까?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의 떡을 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렸고, 날은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지난 이야기에서 함께 읽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모양을 입은 것이 그 새벽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의 말만 하지 않고 먼저 먹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먹지 못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큰일을 겪은 뒤 기도가 목에 걸리고, 성경을 펴도 한 줄이 넘어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보다, 곁에서 먼저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는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고 먹자, 지친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렇게 지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곁에 앉아 먼저 떡을 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소수로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이것입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떼고 함께 먹는 일입니다. 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식탁은 날이 밝을 때 헤엄쳐 나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지막에 밀을 버렸습니다. 사순절을 걷는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밀이 있습니다. 오래 실어 날라 온 체면일 수도 있고,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붙들어 온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해변까지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에 실린 밀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떡을 먹은 사람은 그 밀을 바다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배가 가벼워져야 해안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배에는 거룻배를 타고 몰래 빠져나가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힘든 공동체를 떠나 나 혼자 살 길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남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던 그 사공들도 끝내 해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다 안에는 빠져나가려던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새벽 바울의 몸짓을 보면 떠오르는 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보다 몇 해 앞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떡을 들고 감사하신 밤은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폭풍을 몇 시간 앞둔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지나간 뒤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깨어지기 전의 배 위에서 떡을 떼었다면, 주님은 깨어질 당신의 몸을 두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 몸은 정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아침이 왔기에, 주님의 식탁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편지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교회는 아직 밤인 세상에서 떡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탄 배가 향하던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사실과 낮이 가깝다는 사실을 함께 붙든 사람은, 동트기 전에도 떡을 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식탁을 지나왔습니다. 닻 넷에 매달린 배 위의 떡, 실로에서 다시 먹기 시작한 한나의 식탁, 신을 신고 선 채 먹은 유월절 밤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싸움 앞에서 먼저 울린 여호사밧의 감사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 주님이 떼어 주신 떡이 있었습니다. 모두 날이 밝기 전의 식탁이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기 전에, 감사의 떡을 뗍니다.

육지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벽은 이미 오고 있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먹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떡을 떼어 함께 먹게 하시고, 같은 배에 탄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남게 하소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구원의 낱말 실 — 27:20 σῴζεσθαι(구원의 여망) · 27:31 σωθῆναι(구원을 얻지) · 27:34 σωτηρία(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 · 27:43 διασῶσαι(구원하려) · 27:44; 28:1, 4 διασωθῆναι(구조되니라). 개역개정은 '구원'과 '구조'로 나눠 옮겼지만 한 뿌리입니다. 3/14(28:28 τὸ σωτήριον)까지 이어 볼 수 있습니다.

2. 35절의 네 동사 — λαβὼν ἄρτον εὐχαρίστησεν … καὶ κλάσας ἤρξατο ἐσθίειν. 눅 22:19; 24:30; 고전 11:23-24와 같은 순서. 27:35를 성찬으로 보는 견해는 소수이고(배에 탄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 '누가가 성찬의 말로 그린 식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사본(서방 사본)은 35절 끝에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며'를 덧붙입니다.

3. 29절 '고대하니라' ηὔχοντο(εὔχομαι, 빌다·기도하다) — 26:29 '하나님께 원하노니'(εὐξαίμην, 2/14 본문)와 같은 동사. ESV·NRSV 'prayed for day to come'. 36절 '다 안심하고' εὔθυμοι = 22, 25절 εὐθυμεῖν. 37절 276명 — 바티칸 사본은 '약 76명'(ὡς ἑβδομήκοντα ἕξ)으로 읽음.

4. 항해 사실 — '아드리아'는 당시 시칠리아·그리스·그레데 사이의 넓은 바다(요세푸스 『자서전』 15). 고물 닻 넷(뱃머리를 해안 쪽으로 두기), 41절 τόπος διθάλασσος(모래톱·물목, 전통적으로 몰타 '성 바울 만'의 살모네타 섬 물목). 42절 군인의 책임(행 12:19; 16:27 참고)은 원고에서 한 문장으로만.

5. 44절 '배 물건에' ἐπί τινων τῶν ἀπὸ τοῦ πλοίου — '배에서 나온 어떤 것들' 또는 '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등에)'로도 읽힘. 한나(삼상 1:7-18 '먹지 아니하니' → '가서 먹고')와 유월절(출 12:11)은 '구원 앞의 식사'의 짝으로 고른 해석입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는 지금, 목사님이 미리 감사의 떡을 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 목사님 곁에서 '열나흘째 먹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곁에서 먼저 떡을 떼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27장 · 삼상 1장 · 출 12장 · 고전 11장 · 롬 13장 · 눅 21장.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는 접속이 막혀 교차 대조 못 함.

1. 행 27:35 — 요약(도입)

2. 행 27:27 — 인용

3. 행 27:28 — 인용

4. 행 27:29 — 인용

5. 행 27:17, 26 — 요약('걸리다', 2/21)

6. 행 27:30 — 인용 / 27:16 — 요약(거룻배)

7. 행 27:31 — 인용 ※ 대조 사이트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원고도 그대로 씀). 기억으로는 '받지'일 수도 있어 확인 필요

8. 행 27:24 — 요약 / 27:11 — 요약

9. 행 27:32 — 인용

10. 행 27:33 — 인용

11. 행 27:34 — 인용 / 27:20 — 요약

12. 눅 21:18 — 인용

13. 삼상 1:7 — 인용(끝부분) / 1:8 — 요약 / 1:17 — 인용 / 1:18 — 인용(끝부분)

14. 행 27:35 — 인용

15. 행 27:2 — 요약(아리스다고)

16. 대하 20:12 — 인용(부분) / 20:21 — 인용(부분) / 20:22 — 요약 ※ 확인 필요(대조 사이트 접근 실패)

17. 행 27:39 — 요약(미리)

18. 행 27:36 — 인용 / 27:22, 25 — 요약('안심하라' 같은 말)

19. 행 27:37 — 인용

20. 행 27:38 — 인용 / 27:6 — 요약(곡물선)

21. 출 12:11 — 인용

22. 행 27:39 — 인용

23. 행 27:40 — 인용 / 히 6:19 — 요약(2/21)

24. 행 27:41 — 인용 / 27:22 — 인용(부분)

25. 행 27:42 — 인용 / 27:43 — 요약

26. 행 27:44 — 인용

27. 행 27:24 — 인용(부분) / 27:36 — 인용 / 27:44 — 인용(부분)

28. 행 27:25 — 인용(뒷부분)

29. 행 27:31 — 인용(다시)

30. 고전 11:23 — 인용 / 11:24 — 인용

31. 고전 11:26 — 인용

32. 롬 13:12 — 인용(앞부분, 마침 기도에서 다시)

※ '다'(27:24 πάντας, 36 πάντες, 44 πάντας)를 원고가 "세 번"이라 셉니다 — 역본이 '모두/all'을 빼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안심하라'(22, 25절)와 '안심하고'(36절)는 헬라어 같은 말 — 역본에서 다른 낱말이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27:34 '머리카락'과 눅 21:18 '머리털'은 같은 헬라어(θρίξ).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열나흘 폭풍에 떠밀린 배, 날이 새기 전 한 죄수가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들고 감사하고 먼저 먹기 시작함 → 바울

- 흔한 생각: 모두 살아서 육지에 오른 기적, 그 뒤에 드린 감사로 읽지 않습니까? (감사는 육지에 오른 다음)

- 놓치기 쉬운 틈: 감사가 구원보다 먼저 왔다(날이 새어 가매 = 아직 새지 않음, 배는 아직 안 깨짐) / 떡을 받아 먹은 '다'가 해변에 오른 '다'가 됨(24·36·44절) / 약속은 사람의 몫을 없애지 않음(31절, 도망치려던 사공도 '다' 안에)

- 원포인트: 육지가 보이기 전에, 감사의 떡을 뗍니다. (+ 여운 "육지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벽은 이미 오고 있으니까요.")

- 원어 포인트: 고대하니라(εὔχομαι, 빌다), 구원(σωτηρία 한 뿌리 — 구원·구조), 축사하고(εὐχαριστέω), 다 안심하고(εὔθυμοι = 22, 25절)

- 평행본문 세 장면: 한나(삼상 1:7-18 — 먹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먹음) · 여호사밧(대하 20:12, 21 —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감사의 노래가 먼저) · 유월절 밤(출 12:11 — 구원 앞의 식사, 떠날 채비) — 각각 '먹으니', '축사하고', '먹고 배를 가볍게'를 받침

- 복선과 회수: 2/21 '안심하라' → 36절 '다 안심하고' / 2/21 '걸리다'(17·26) → 29절 / 2/21 27:11(백부장이 선장 말을 더 믿음) → 32절 / 2/21 히 6:19 영혼의 닻 → 40절 닻을 끊음 / 2/21 27:24 '다 네게 주셨다' → 36·44절 / 3/7로: 28:1 '구조된 후에', 28:2 '영접하더라'(27:36 '받아 먹으니'와 같은 동사)

- 우리 자리: 감사를 육지 뒤로 미루는 우리 / 감사는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 / 먹지 못하는 계절의 사람 곁에서 먼저 떡을 떼기, 작은 식탁 / 거룻배로 혼자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 / 사순절에 내려놓을 '밀'

- 그리스도 착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고전 11:23-24 — 고난 앞의 감사, 깨어질 몸) → 십자가와 부활 → '그가 오실 때까지'(11:26) →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롬 13:12)

- 중심 그림 하나: 떡 — 처음(동트기 전 갑판, 닻 넷에 매달린 배 위에서 떡을 든 손) · 중간(실로의 한나 앞 식탁 / 유월절 밤 선 채 먹는 식사 / 다 안심하고 받아 먹는 사람들) · 끝(잡히시던 밤 떼어 주신 떡 → 새벽빛).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어둠 속 갑판 위 떼어진 떡과 수평선의 희미한 빛)

- 제목: 「동트기 전에 떡을 떼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떡을 떼다). 다른 후보: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먹는 사람들」,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

- 지난주 잇기: 2/21 「폭풍 한가운데 서는 사람들」(원포인트 "별이 사라져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중심 그림 별)이 폴더에 있어 그 원고가 남겨 둔 '다 안심하고'·떡·섬을 받았고, 그 원고가 쓴 요나(배·표적)와 시 107편은 쓰지 않았습니다. 27:37(276명)은 2/21에서 한 줄로 미리 나왔지만 이쪽에서 '떡 자리에서 센 수'로 살렸습니다.

- 매일묵상과의 관계: 앞 주 평일 2/24 막 8:1-10(사천 명), 2/26 막 8:14-21(떡 한 개뿐인 배) — 배·떡이 겹치므로 오병이어·칠병이어를 평행본문으로 쓰지 않고, 각도를 '구원 앞의 감사'로 잡았습니다. 3/25 성목요일(막 14:22-26)과는 고전 11:23의 '잡히시던 밤·그가 오실 때까지'로 다르게 감. 2026-11-15 「돌아와 엎드리는 사람들」이 눅 22:19(감사하신 주님)를 착지로 썼기에 이번에는 고전 11장 쪽으로. 당일 팩 시 116은 쓰지 않음.

- 사순절: 셋째 주일 — 절기 설명 없이 우리 자리에 '사순절을 걷는 우리'만 한 번.

- 절제: 42절(죄수를 죽이려는 계획)은 두 문장으로만.

- 계획과 다른 곳: 없음.

2027년 3월 7일 주일

마중 나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8:1-16 · 본문 사도행전 28:1–16 (고린도후서 7:6)

성경에는 쇠사슬에 매인 늙은 죄수가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폭풍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마음을 얻는 쪽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했던 바울, 섬의 병자들을 고친 바울의 능력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의 이야기는 흔히 사도의 이적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끝까지 읽으면, 성경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적은 자리는 독사 곁도, 병상 곁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부를 때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길가에서 자기를 맞으러 걸어 나온 형제들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이,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길가의 얼굴들을 향해 갑니다. 비에 젖은 해변에서 불을 피우던 섬사람들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난주 우리는 널조각과 배 물건에 의지해 사람들이 다 상륙하는 데까지 따라왔습니다. 구조되었다는 말도 지난주 44절과 같은 말입니다. 멜리데는 오늘의 몰타 섬으로 여겨집니다. 시칠리아 남쪽의 작은 섬입니다. 사공들도 몰라보던 그 해변은, 지금도 그곳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만으로 전해집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이라고 옮긴 헬라어는 그리스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이 섬 사람들은 페니키아 계통의 말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에 젖고 지친 이백칠십여 명의 낯선 사람들을 맞아 불을 피웠습니다.

특별한 동정이라고 옮긴 말은 흔하지 않은 사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낱말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두고도 쓰였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섬사람들의 친절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더라는 말은 지난 이야기 36절에서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었다고 할 때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 새벽에는 사람들이 떡을 받았고, 이 해변에서는 섬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몇 해 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옮긴 말이, 2절에서 원주민이라고 옮긴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서 먼저 친절을 베푼 것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가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불 앞에서 먼저 몸을 녹였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폭풍 속에서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바울이, 해변에서는 젖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죄수였고, 사도였고, 이백칠십여 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불을 살리려고 나뭇단을 넣는 순간, 열기에 놀란 뱀이 튀어나와 그 손에 매달렸습니다.

4절에서 섬사람들은 그 광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서 공의라고 옮긴 말은 헬라어로 디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정의의 여신으로 섬기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 나왔는데 다시 뱀에 물렸다면,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섬사람들과 제자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불행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멜리데의 해변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은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지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섬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섬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꾸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털어서 불 속에 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끝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는 그 말씀을 복음서에 적어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독사 사건을 바울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야기로 키우지 않습니다. 두 절로 짧게 지나갑니다.

6절에서 섬사람들의 판단이 다시 뒤집힙니다.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한나절 사이에 바울은 살인자가 되었다가 신이 되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이 말 앞에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자, 무리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은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그 뒤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충동을 받은 그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신이라 부르던 입이 얼마 안 가 돌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죄인이라 하고 내일은 신이라 합니다. 멜리데에서 바울이 무어라 대답했는지 성경은 이번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뱀을 털어 버리듯, 사람들의 판단도 붙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에도, 신이라는 말에도 그의 이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이야기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갑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 섬의 으뜸 관리를 부르던 칭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의사였던 누가는 병명을 꼼꼼히 적습니다. 열병과 이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기도했다고 적습니다.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순서가 말해 줍니다. 낯선 이들을 영접한 집에 고침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다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짐도, 밀도, 배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섬사람들이 실어 준 것으로 배가 채워졌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로 여겨지던 신들로, 뱃사람들이 바다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밤하늘의 쌍둥이자리 별로도 그려졌습니다. 누가는 그 이름을 덤덤하게 적을 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그 폭풍의 밤에 배를 지킨 것은 별의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배는 시칠리아의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이탈리아 남쪽 끝의 레기온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두 주 전 이야기에서, 그레데 해안에 순하게 불던 남풍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번 남풍은 배를 하루 만에 보디올 항구까지 실어다 줍니다. 같은 남풍이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위에서 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는 이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복음이 이탈리아에 와 있었습니다. 누가 그 복음을 가져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은 신자들이 먼저 와서

믿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파선과 독사와 겨울을 지나, 죄수의 몸으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마중 나온 얼굴로도 옵니다.

압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육십 킬로미터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오십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로마로 이어지는 큰길, 아피아 가도 위의 쉼터였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두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 무리는 더 멀리까지 걸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오는 죄수 한 사람을 맞으러, 하루가 넘는 길을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들은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다는 말도, 바울을 풀어 달라고 탄원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걸어 나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얼굴들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쇠사슬도 군인도 그대로였지만, 로마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를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맞으러라고 옮긴 헬라어는, 그 시대에 귀한 손님이 도착할 때 성의 사람들이 멀리까지 나가 맞이하고 함께 들어오는 일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에게도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로마의 형제들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를 귀한 손님처럼 맞으러 나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누가는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지 적습니다. 얼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문안한 이름들 가운데 몇이 그 길에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몇 해 전 그 교회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어서 썼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하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던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던 그 바람이, 압비오 광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주 바울은 깨어지기 전의 배 위에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같은 낱말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떡을 들고 감사했고, 이번에는 얼굴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이라고 옮긴 말은, 여섯 주 전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영내의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하실 때 쓰신 말과 같은 뿌리입니다.

그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뒤로 바울은 두 해를 갇혀 지냈고, 폭풍을 지났고, 파선했고, 독사에 물렸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하루 남짓 앞둔 길가에서, 하나님은 그 담대하라를 형제들의 얼굴에 담아 다시 건네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적어 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시절, 그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바울을 하늘의 음성으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도라는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던 사람이, 반가운 얼굴 하나가 찾아오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남을 일으켜 세우던 사람도 지칩니다. 남을 위로하던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보내실까요? 자주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마중 나온 얼굴로도 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따로 머무는 집에서, 군인 한 사람과 사슬로 이어진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써 온 우리라는 말도 여기서 그칩니다. 바다를 건너온 우리의 이야기가 로마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비에 젖은 멜리데의 해변에서 아피아 가도의 길가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길가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오래 남을 붙들어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가족을 오래 돌보는 사람, 교회의 크고 작은 짐을 늘 맡아 온 사람, 누구에게나 괜찮다고 말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작 자기가 지쳐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폭풍 속에서 안심하라고 말하던 바울에게도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남을 붙들던 사람이 지치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담대함을 준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독사도, 병 고침도, 사람들의 칭송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적은 곳은 형제들의 얼굴을 본 길가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한 사람의 얼굴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마중 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교우를 문 앞에서 반겨 맞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가는 일입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믿음 앞에 선 사람에게 먼저 걸어가 이름을 불러 주는 일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걸었던 육십 킬로미터를, 우리는 전화 한 통으로, 버스 몇 정거장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마중 나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길일지 모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처음 불을 피워 준 사람들은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섬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웃의 친절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 사랑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받은 친절을 감사로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빚졌다고 말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 이웃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에게는 보디올과 로마의 이름 없는 형제들도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이탈리아에 닿기 전에 복음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처음 심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로 가는 큰 이야기의 길목마다,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문을 열고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가의 얼굴들로 사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중 이야기는 결국 한 분에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장 먼 길을 나와 우리를 맞으셨습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에 닿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 나갔습니다. 압비오 광장까지 걸어 나온 로마의 형제들도, 이 아버지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마중을 받은 사람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마중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영접한다고 옮긴 말이, 15절의 맞으러와 같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을 맞으러 나갈 것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아피아 가도로 걸어 나갔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까지 서로를 마중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얼굴을 만났습니다. 빗속에 불을 피운 섬사람들, 독사에 물린 손을 지켜보던 얼굴들, 사람을 신으로 불렀다가 돌을 든 루스드라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들어선 디도의 얼굴과, 아피아 가도에 서 있던 로마 형제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먼저 달려 나온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마중 나온 얼굴로도 옵니다.

혼자 걷는 길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길 끝에서 누군가 벌써 걸어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주님, 지친 날 우리 곁에 마중 나온 얼굴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붙들다 지친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얼굴이 되게 하시고, 먼저 달려 나와 우리를 맞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러 나갈 그날까지, 서로를 위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맞으러' εἰς ἀπάντησιν(28:15) — 귀빈이 도착할 때 성의 사람들이 나가 맞아 함께 들어오는 관용 표현(마 25:6 '맞으러 나오라', 살전 4:17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와 같은 말). 압비오 광장(Forum Appii)은 로마에서 약 43로마마일(약 64km), 트레이스 타베르네(Tres Tabernae)는 약 33로마마일(약 49km) — 수치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름.

2. '담대한 마음' θάρσος(28:15) — 신약에서 이 명사는 여기 한 번. 23:11 θάρσει(담대하라, 1/24)와 같은 뿌리. '감사하고' εὐχαριστήσας = 27:35(2/28). '영접하더라' προσελάβοντο(28:2) = 27:36 '받아 먹으니'(προσελάβοντο τροφῆς), 롬 15:7 '서로 받으라'도 같은 동사(원고에는 넣지 않음).

3. 2절 '원주민' βάρβαροι — 그리스 말을 쓰지 않는 사람(멸시의 뜻이 꼭 있는 말은 아님), 롬 1:14 '야만인'과 같은 말. 몰타는 당시 페니키아(카르타고) 계통 말을 썼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특별한 동정' οὐ τὴν τυχοῦσαν φιλανθρωπίαν = 딛 3:4 φιλανθρωπία, 27:3 '친절히'(φιλανθρώπως). 4절 '공의' Δίκη(정의의 여신).

4. 독사 — 오늘날 몰타에는 독사가 없다는 점 때문에 여러 설명(멸종, 다른 뱀)이 있습니다. 원고는 섬사람들이 독사로 알았다는 본문 그대로만 씀. 5절 '떨어 버리매' ἀποτινάξας — 신약에서 눅 9:5('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와 여기만. 7절 '가장 높은 사람' πρῶτος — 몰타 비문에 관리 칭호로 남아 있다고 알려짐. 8절 '열병과 이질'(누가의 의학 용어, 이른바 '몰타열'로 보는 견해는 추정).

5. 11절 디오스구로(Διόσκουροι, 카스토르와 폴룩스) — 뱃사람의 수호신, 쌍둥이자리. 14절 보디올(푸테올리)에 이미 신자가 있었음 — 로마 교회의 기원은 성경이 말하지 않음. 16절에서 '우리' 단락(27:1–28:16) 끝. 고후 7:5-6(디도의 도착)은 바울 자신의 '사람으로 오는 위로' 증언.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남을 붙들어 오느라 지친 목사님께, 하나님이 최근 '마중 나온 얼굴'로 보내 주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이번 주 목사님이 압비오 광장까지 걸어 나가 맞아야 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28장 · 요 9장 · 행 14장 · 눅 10장 · 고후 7장 · 롬 1장 · 딛 3장 · 히 13장 · 롬 5장 · 눅 15장 · 마 25장. 살전 4장은 대조 사이트 접근 실패.

1. 행 28:15 — 요약(도입)

2. 행 28:1 — 인용 / 27:44 — 요약

3. 행 28:2 — 인용

4. 딛 3:4 — 인용 / 행 27:36 — 요약

5. 롬 1:14 — 인용

6. 행 28:3 — 인용 ※ 대조 사이트 '나무 한 묶음'(원고 그대로)

7. 행 28:4 — 인용(두 마디로 나눠 읽음)

8. 요 9:2 — 인용(부분) / 9:3 — 인용(부분)

9. 행 28:5 — 인용 ※ '떨어 버리매'

10. 눅 10:19 — 인용 / 10:20 — 인용(부분)

11. 행 28:6 — 인용 ※ '오래 기다려도'

12. 행 14:11 — 인용(부분) / 14:15 — 인용(부분) / 14:19 — 요약

13. 행 28:7 — 인용 ※ '가장 높은 사람' / 28:8 — 인용

14. 히 13:2 — 인용

15. 행 28:9-10 — 인용

16. 행 28:11 — 인용 ※ '겨울을 난'

17. 행 28:12 — 요약 / 28:13 — 인용(부분) / 27:13 — 요약(2/21의 남풍)

18. 행 28:14 — 인용

19. 행 28:15 — 인용

20. 마 25:6 — 인용(부분)

21. 롬 16장 — 요약 / 롬 1:11 — 인용 ※ 대조 사이트 '간절히 원하는 것은' / 롬 1:12 — 인용 ※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22. 행 27:35 — 요약 / 행 23:11 — 인용

23. 고후 7:5 — 인용 / 7:6 — 인용(마침 기도에서 다시)

24. 행 28:16 — 인용

25. 롬 5:8 — 인용

26. 눅 15:20 — 인용(뒷부분)

27. 살전 4:16 — 인용 / 4:17 — 인용 / 4:18 — 인용 ※ 확인 필요(대조 못 함)

※ '맞으러'(28:15)와 '영접하게'(살전 4:17), '맞으러 나오라'(마 25:6)를 원고가 "같은 말"이라 함 — 역본에서 다르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원주민'(28:2)과 '야만인'(롬 1:14)을 "같은 말"이라 함 — 역본에 따라 조정 필요(영어 ESV는 native people / barbarians).

※ '영접하더라'(28:2)와 '받아 먹으니'(27:36)를 "같은 동사"라 함 — 조정 필요.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쇠사슬에 매인 늙은 죄수가 로마로 끌려가는 길가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음 — 폭풍 속에서 안심하라고 하던 그 사람 → 바울

- 흔한 생각: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한 사도, 병을 고친 사도의 이적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성경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적은 곳은 독사·병상·칭송이 아니라 형제들의 얼굴을 본 길가뿐이다 / 23:11 주님의 '담대하라'가 형제들의 얼굴로 다시 건네짐 / 독사 사건은 두 절로 짧게(눅 10:20)

- 원포인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마중 나온 얼굴로도 옵니다. (+ 여운 "혼자 걷는 길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길 끝에서 누군가 벌써 걸어 나오고 있으니까요.")

- 원어 포인트: 맞으러(ἀπάντησις), 담대한 마음(θάρσος — 23:11 θάρσει), 특별한 동정(φιλανθρωπία — 딛 3:4), 원주민(βάρβαροι — 롬 1:14), 공의(Δίκη)

- 평행본문 세 장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요 9:2-3 — 불행 뒤에 죄가 있다는 생각) · 루스드라(행 14:11-19 — 신이라 부르던 입이 돌을 듦) · 마게도냐에 온 디도(고후 7:5-6 — 사람으로 오는 위로) — 각각 4절·6절·15절을 받침

- 복선과 회수: 2/28 '구조되니라'(27:44) → 28:1 / 2/28 '받아 먹으니' → 28:2 '영접하더라' / 2/28 '축사하고' → 28:15 '감사하고' / 2/21 순한 남풍(27:13) → 28:13 남풍 / 2/21 별(해도 별도) → 디오스구로 / 1/24 '담대하라'(23:11) → 28:15 / 3/14로: 28:16 따로 있게 허락 → 셋집

- 우리 자리: 남을 오래 붙들어 온 사람의 지침 / 담대함은 기적이 아니라 얼굴로 / 마중 나가기(교회 문 앞, 퇴원, 이름 불러 주기, 전화 한 통) / 믿지 않는 이웃의 친절도 감사로, 그들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 / 보디올과 로마의 이름 없는 형제들

- 그리스도 착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맞으러 나오신 하나님(롬 5:8 — 십자가) → 달려 나온 아버지(눅 15:20) → 부활의 날 주를 '영접'(살전 4:16-17, 같은 말) →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4:18)

- 중심 그림 하나: 얼굴 — 처음(빗속 해변 모닥불가, 독사 물린 손을 지켜보는 섬사람들의 얼굴) · 중간(신이라 부르는 얼굴 / 마게도냐의 디도) · 끝(아피아 가도 위, 죄사슬 찬 바울을 향해 걸어오는 형제들의 얼굴 → 달려 나오는 아버지).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저물녘 가도 저편에서 다가오는 작은 무리, 바울은 뒷모습)

- 제목: 「마중 나가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다른 후보: 「불을 피워 맞아 주는 사람들」, 「길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 원포인트 위치: 첫 번째를 15절 낭독 바로 뒤에 두어 50%, 두 번째는 디도 장면 뒤 71%(표본 73%보다 조금 앞) — 16절과 '우리' 단락의 끝을 그 뒤에 두려고 그대로 둠

- 매일묵상과의 관계: 같은 주 평일 3/1-3/6 막 8:27-9:24, 다음 주 9:25-10:16 — 겹침 없음. 당일 팩 시 117은 쓰지 않음.

- 절제: 루스드라의 돌 맞음(14:19)은 한 문장으로만.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멜리데의 불과 독사 →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2027년 3월 14일 주일

문을 열어 두는 사람들

사도행전 28:17-31 · 본문 사도행전 28:17–31 (누가복음 9:11)

성경에는 로마 군인 한 사람과 사슬로 이어진 늙은 죄수가, 셋집 한 칸에서 꼬박 두 해를 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든 맞아들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은, 그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책은 사도행전이고, 그 죄수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을 읽으면 우리는 대개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로마에 이른 사도의 승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판 결과도 순교 장면도 없이 끝나 버린, 어딘가 덜 끝난 이야기로 느낍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며 책을 덮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지막 장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본문은 거침없이라는 한 낱말로 끝납니다. 사슬에 매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누가가 앞서 쓴 복음서 속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셋집의 열린 문을 향해 갑니다.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람들을 청하는 바울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지난주 우리는 압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을 보았습니다. 로마에 들어온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청했습니다. 사슬에 매여 회당에 갈 수 없었으니, 그들을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머리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며 그 순서를 밝혔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그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의 민족이었지만, 그는 그 민족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층대 위에서 그랬듯이, 자기를 고발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여기서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자기가 갇힌 사연을 짧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죽일 죄목이 없어 풀어 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맹세하고 매복했던 사람들의 민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슬이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입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기 백성 때문에 그토록 애를 먹은 사람이, 그 백성 대신 자기 이름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 모세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끝까지 형제라 부르는 마음입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그 사슬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곧 이스라엘이 기다려 온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매인 사람이, 그 소망을 함께 나누자고 자기를 고발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지도자들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유대에서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누가 와서 나쁜 말을 전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이 무리가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소문은 이미 로마까지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고발장이 자기보다 먼저 와 있을까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발이 아니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무리의 이야기를, 로마의 회당 지도자들이 직접 들어 보겠다고 찾아옵니다.

반대를 받는다고 옮긴 헬라어는 맞서서 말한다, 거슬러 말한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했다고 할 때도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이 낱말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가운데 첫째 권,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서 비방을 받는다고 옮긴 말이, 22절에서 반대를 받는다고 옮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성전 뜰에는 늙은 선지자 안나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했다고 적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먼저 그 아기를 알아보았고, 알아본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의 첫째 권은 그렇게 아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늙은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아기를 안은 늙은 시므온으로 시작해서, 로마의 셋집에 매인 늙은 바울로 끝나 갑니다. 처음에 시므온이 노래한 구원과 이방의 빛과 비방받는 표적이, 마지막 장에 다시

모입니다. 거슬러 말하는 소리는 그 아기를 처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분을 막지 못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무리도 막지 못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슬에 매인 사람에게 하루는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중까지 말씀을 이어 가던 그 사람답습니다. 강론했다고 옮긴 말은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아니라, 성경을 한 장씩 짚어 가며 앉아서 나누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이 말 앞에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펴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가을 빌립보의 강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도 그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로 끝납니다. 그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제국의 한가운데, 사슬에 매인 한 사람의 셋집에 와 있습니다. 로마가 땅 끝은 아니었지만, 땅 끝으로 가는 모든 길이 거기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은 말씀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서로 맞지 아니하여라고 옮긴 헬라어는,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을 품은 말입니다. 한 방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방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셋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갑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들려준 말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겁고 아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서 나왔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제단의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은 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가 들은 첫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가서 말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바울은 바로 그 이사야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말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구절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말은,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할 때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신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낱말인데, 누가는 그것을 자기 두 권 책의 처음과 끝에 두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본 그 구원이, 로마의 셋집에서 온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 바로 뒤에, 듣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또 준비해 두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했지만, 다음 도시에 가면 또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문을 닫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이 더 넓은 데까지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30절에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는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집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달 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낸 뒤 문들이 곧 닫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바울이 머무는 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 길가에서 바울을 맞았던 로마의 형제들도 그 문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그 두 해 동안 그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자기 셋집이라는 말은 그가 그 집을 세 들어 지냈다는 뜻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지냈다고 옮기는 성경도 있습니다. 죄수가 집세를 내며 갇혀 지냈습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교회들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 집세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가이사랴에서는 두 해를 갇혀 기다렸고, 로마에서는 두 해를 갇힌 채 맞아들였습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는 그 가르침에 두 마디를 붙여 둡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옮긴 말은,

숨김없이 드러내 말하는 담대함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위협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날 처음 드린 그 기도가, 책의 마지막 절까지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헬라어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낱말입니다. 막는 것 없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막다, 금하다라는 말이 고비마다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 사도행전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낱말이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 집에서 나간 말씀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소리도, 서로 맞지 않는 마음도, 군인과 사슬도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했습니다.

작은 셋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갑니다.

그 뒤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책을 마쳤다고 보는 이도 있고, 일부러 여기서 멈추었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승은 바울이 끝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열린 문 안에서 이어지는 하루로 끝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열두 사도도 이야기 중간에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사도행전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의 셋집에서 두 해를 지낸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열린 문 앞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결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병이 어떻게 끝날지, 자녀의 믿음이 어디에 닿을지, 작아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결말 대신 바울의 하루를 남겼습니다. 문을 열어 두고, 오는 사람을 맞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루입니다.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무대가 큰 회당도, 황제의 궁전도 아니라 셋집 한 칸이라는 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는 자주 우리 자리가 너무 작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무엇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고른 마지막 장면은 군인 한 사람과 사슬, 세 든 방 한 칸, 그리고 열린 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방에서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 영접하는 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던 날 뒤에도 바울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교회의 문은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떠난 사람, 오래 발길을 끊었던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열려 있습니까?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말은 오늘도 맞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 정말 세상일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돌아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고백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설 뻔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방식, 우리끼리의 편안함, 이 사람은 안 된다는 판단이 문 앞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셋집의 장면은 결국 한 분을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쉬러 떠나셨을 때, 무리가 알고 뒤따라왔습니다. 누가는 그때를 이렇게 적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과 같은 말이 같은 순서로 놓여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앞의 책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적었다고 말합니다.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사람들을 맞아들인 이는 바울이었지만, 그 집에서 일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는 그분이 맞아들이신 한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 줍니다. 함께 달린 행악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못 박혀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몸으로, 주님은 그 나라의 문을 한 죄인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매인 몸으로 문을 여는 일은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뒤 이렇게 이으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울이 셋집에서 가르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말씀이, 이제 로마의 열린 문에서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문 앞에 섰습니다. 아기를 안은 시므온이 서 있던 성전 뜰, 이사야가 엎드렸던 보좌 앞, 고넬료의 집 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죄인에게 열린 낙원의 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셋집, 군인과 사슬 곁에 열려 있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셋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갑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문을 열어 둔 채로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주님, 결말을 다 알지 못해도 오늘 문을 열어 두게 하소서.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맞아들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우리 앞을 막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방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마지막 낱말 ἀκωλύτως(28:31, '거침없이', 막힘없이 — 법률 문서에서도 쓰던 말). κωλύω의 실: 8:36 '무슨 거리낌이'(τί κωλύει), 10:47 '누가 능히 … 금하리요'(κωλῦσαι), 11:17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κωλῦσαι). 같은 실이 눅 18:16(막 10:14) '금하지 말라'에도 있으나 3/13 매일묵상 본문이라 원고에서 뺐습니다. '담대하게' μετὰ πάσης παρρησίας = 4:29 μετὰ παρρησίας πάσης.

2. 처음과 끝 — '하나님의 이 구원' τὸ σωτήριον τοῦ θεοῦ(28:28)는 신약에서 눅 2:30; 3:6; 행 28:28; 엡 6:17에만. '반대를 받는'(28:22 ἀντιλέγεται, 19절 ἀντιλεγόντων) = 눅 2:34 '비방을 받는 표적'(ἀντιλεγόμενον). 하나님 나라: 행 1:3 ↔ 28:23, 31. 행 1:1 '시작하심'(ἤρξατο). 눅 3:6은 2027-12-05 주일 본문(눅 3:1-6)이라 원고에서 쓰지 않음.

3. '영접하고' ἀπεδέχετο(28:30) = 눅 9:11 ἀποδεξάμενος('영접하사'), 신약에서 누가만 쓰는 동사(눅 8:40; 9:11; 행 2:41; 18:27; 21:17; 24:3; 28:30). 30절 '자기 셋집' ἐν ἰδίῳ μισθώματι — '자기 비용으로'로도 옮김(ESV at his own expense). 23절 '유숙하는 집' ξενία(몬 1:22 '숙소'와 같은 말). '서로 맞지 아니하여' ἀσύμφωνοι.

4. 열린 결말 — 누가가 왜 여기서 멈췄는지: ① 재판 전 집필설 ② 의도적 결말(복음의 무제한 진행)설 ③ 셋째 권 계획설. 바울의 로마 순교는 클레멘스1서 5장, 유세비우스 등 전승. 28:29는 개역개정에 '(없음)'(일부 후대 사본에만).

5. 28:26-27 = 사 6:9-10(칠십인역).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한 세 번(13:46; 18:6; 28:28)과, 그 뒤에도 회당을 찾은 모습. 롬 9:3; 11:1, 11, 26. 원고가 28:28을 '유대인을 버리심'으로 읽지 않도록 30절 '다 영접하고'로 받음. 출 32:32(모세의 중보)와 롬 9:3의 짝은 오래된 해석.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결말을 알 수 없는 지금, 누가가 바울에게 남긴 '하루'(문을 열고, 맞고, 말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목사님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 나라 앞을 막고 선 것이 혹시 목사님 안의 익숙함이나 판단은 아닙니까 —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11:17)?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행 28장 · 롬 1, 9, 11장 · 출 32장 · 눅 2, 9, 23, 24장 · 행 1, 4, 8, 10, 11장 · 사 6장.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는 접속이 막혀 교차 대조 못 함.

1. 행 28:30-31 — 요약(도입)

2. 행 28:17 — 인용(앞부분)

3. 롬 1:16 — 요약(먼저는 유대인에게)

4. 행 21:40; 22:1 — 요약(층대 위 '형제들')

5. 행 28:17 — 인용(뒷부분) / 28:18-19 — 요약 / 28:19 — 인용(끝부분)

6. 롬 9:3 — 인용

7. 출 32:32 — 인용 ※ 대조 사이트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원고 그대로). 기억으로는 '합의하시오면'이 들어간 본도 있어 확인 필요

8. 행 28:20 — 인용

9. 행 28:21 — 요약 / 28:22 — 인용

10. 눅 2:29-30 — 인용 / 2:31-32 — 인용 / 2:34 — 인용(부분) / 2:36-38 — 요약(안나)

11. 행 28:23 — 인용 / 행 20:7 — 요약(드로아)

12. 눅 24:44 — 인용(부분) / 24:45 — 인용 / 행 16:14 — 요약(루디아)

13. 행 1:3 — 요약 / 행 1:8 — 인용

14. 행 28:24-25 — 인용

15. 행 28:26 — 인용 ※ 대조 사이트 '도무지 깨닫지 … 도무지 알지'(원고 그대로) / 28:27 — 요약

16. 사 6:1-7 — 요약 / 사 6:3 — 인용(부분) / 6:5 — 인용(부분) / 6:8 — 인용(부분 두 곳) / 6:11 — 인용(부분)

17. 눅 8:10 — 요약

18. 행 28:28 — 인용

19. 행 13:46; 18:6 — 요약 / 롬 11:1 — 인용(부분)

20. 행 28:30 — 인용 / 행 21:30 — 요약(닫힌 문, 1/10)

21. 행 24:27 — 요약(가이사랴 두 해)

22. 행 28:31 — 요약(풀어 씀) ※ 확인 필요: 행 28:31 — 사이트 어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개역개정(기억)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일 수 있음 — 원고는 인용하지 않고 풀어 썼고, '우리말 성경도 거침없이를 거의 맨 끝에 두었다'는 문장은 뺌. 녹음 전 성경 확인

23. 행 4:29 — 인용(부분) ※ 대조 사이트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원고 그대로) — 확인 필요

24. 행 8:36 — 인용(끝부분, '세례') / 행 10:47 — 인용(부분) / 행 11:17 — 인용(끝부분,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25. 눅 9:10 — 요약 / 눅 9:11 — 인용(마침 기도에서 다시, 앞부분)

26. 행 1:1 — 인용(부분)

27. 눅 23:42 — 인용(부분) / 23:43 — 인용(부분)

28. 눅 24:46 — 인용(부분, 문장 속) / 24:47 — 인용

※ '반대를 받는'(28:22)과 '비방을 받는'(눅 2:34), '하나님의 이 구원'(28:28)과 '주의 구원'(눅 2:30), '영접하고'(28:30)와 '영접하사'(눅 9:11)를 원고가 "같은 말"이라 함 — 역본에서 다르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거침없이'가 "헬라어 본문의 맨 마지막 낱말"이라는 문장은 그대로 두고, 각 언어 역본의 어순은 따로 확인.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군인 한 사람과 사슬로 이어진 늙은 죄수가 셋집 한 칸에서 두 해,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맞아들이고 — 그 책은 그의 결말을 말하지 않음 → 사도행전, 바울

- 흔한 생각: 로마에 이른 사도의 승리, 혹은 결말 없이 덜 끝난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헬라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낱말은 '거침없이' — 사슬에 매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로 끝남 / 마지막 장면(영접하고 + 하나님 나라)은 눅 9:11의 예수님을 같은 순서로 닮음 / 이야기의 처음(시므온: 구원·이방의 빛·비방받는 표적)이 마지막 장에 다시 모임

- 원포인트: 작은 셋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갑니다. (+ 여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문을 열어 둔 채로요.")

- 원어 포인트: 거침없이(ἀκωλύτως, 마지막 낱말 · κωλύω의 실), 반대를 받는(ἀντιλέγω = 눅 2:34), 하나님의 이 구원(σωτήριον = 눅 2:30), 영접하고(ἀποδέχομαι = 눅 9:11), 담대하게(παρρησία = 4:29), 서로 맞지 아니하여(ἀσύμφωνοι)

- 평행본문 세 장면: 모세의 중보(출 32:32 — 자기를 거스른 백성을 위해 이름을 내놓음, 롬 9:3의 짝) ·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눅 2:29-38 — 처음과 끝) · 이사야의 부르심(사 6 —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보냄받음) — 각각 19절·22·28절·26-27절을 받침

- 복선과 회수: 3/7 압비오 광장의 형제들·28:16 따로 있게 → 셋집 / 1/17 층대 위 '형제들아' → 28:17 / 1/10 닫힌 성전 문(21:30) → 열린 셋집 문(한 문장) / 2/7 가이사랴의 두 해(24:27) → 로마의 두 해(28:30) / 9/27 루디아의 열린 마음(16:14) → 눅 24:45(한 문장) / 3/21로: '하나님의 나라' ↔ '다윗의 나라'

- 시리즈 정리: 지시대로 길게 하지 않음 — 지난 편 회수는 모두 한 문장 이내, 끝은 본문처럼 열어 둠("문을 열어 둔 채로요"). 맺음의 '여러 문' 회상은 이번 편 장면만.

- 우리 자리: 결말을 모르는 사람의 하루 / 마지막 무대가 셋집 한 칸 — 작은 자리 / 다 영접하는 문 — 섭섭하게 떠난 사람, 발길 끊은 사람, 믿지 않는 이웃 / 하나님을 막고 서 있는 우리 자신(11:17)

- 그리스도 착지: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예수님(눅 9:11) → 행 1:1 '시작하심'(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계속하신 일) → 십자가 위에서 한 죄인에게 낙원의 문을 여심(눅 23:42-43) → 고난·제삼일 부활·모든 족속에게(눅 24:46-47)

- 중심 그림 하나: 셋집의 열린 문 — 처음(군인과 사슬로 이어진 바울, 반쯤 열린 셋집 문으로 드는 빛) · 중간(아침부터 저녁까지 펼친 두루마리와 둘러앉은 사람들 / 성전 뜰의 시므온 / 이사야의 보좌 환상) · 끝(십자가 위 열린 낙원 → 다시 셋집의 열린 문, 문지방 너머 길).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저녁빛 속 열린 문과 문지방에 놓인 사슬 그림자)

- 제목: 「문을 열어 두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1/10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과 짝. 다른 후보: 「찾아오는 이를 다 맞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는 사람들」

- 매일묵상과의 관계: 같은 주 평일 3/8-3/13 막 9:25-10:16(어린아이를 영접, 냉수 한 그릇, '금하지 말라') — '영접'·'금하다'가 닿으므로 막 9:37, 9:41, 10:14를 인용하지 않고 행 8·10·11장과 눅 9:11로 감. 당일 팩 시 118은 쓰지 않음.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로마 셋집 두 해 — 담대하게 거침없이). (2026-10-25 감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순은 대조 사이트 본문이라 그 어순에 기댄 문장을 빼고 31절은 풀어 씀 — 확인 필요)

2027년 3월 21일 주일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마가복음 11:1-11 · 본문 마가복음 11:1-11 (스가랴 9:9)

성경에는 한 사람이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깔린 길로 도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이르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둘러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를 데리고 성 밖 마을로 나갑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날을 우리는 흔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환호의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호가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다며, 사람의 변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으면 조금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지만, 마가는 종려나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과 며칠 뒤 빌라도의 뜰에서 소리친 무리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리는 입성은 환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주님의 조용한 눈길로 끝납니다. 그 눈길 다음에, 주님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눈길을 향해 갑니다. 감람 산 기슭의 마을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로마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서른 해쯤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여리고 길가의 바디매오가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줄곧 오르막인 길입니다. 그 길 끝에 감람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성전이 내려다보입니다. 스가랴는 그 산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부리지 않은 짐승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일에 쓰였습니다. 민수기는 정결 예식에 쓸 송아지를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것으로 고르라고 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게 되는데, 그 처음 태운 이가 주님이셨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같은 말을 거듭 씁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라. 4절에서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고, 5절에서 사람들이 왜 풀어 가느냐고 묻습니다. 매여 있고, 풀고, 또 풉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결박되고 매인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 한 마디에 매인 것이 풀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왕의 지팡이를 약속하며, 그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 축복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에서 날 왕과 매인 나귀 새끼라는 그림이 겹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쓰시겠다고 옮긴 말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주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다시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쓰신 뒤 곧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으로 읽는 이가 많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고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예수님과 미리 약속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 쓰시겠다는 한 마디에, 문 앞에 매여 있던 것이 내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안장 대신 자기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밤의 이불이자 구걸할 때 펴 두는 자리였습니다. 마가의 이야기에서 겉옷이 두 번 연달아 내려놓아집니다. 한 번은 주님께 가려고, 한 번은 주님을 태우려고였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이 장면에 스가랴의 말씀을 붙여 두었지만, 마가는 장면만 보여 주고 읽는 사람이 알아보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왕, 전쟁을 끝내러 오는 왕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입니다. 늙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이렇게 명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혼으로 내려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소리를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다윗의 아들이 왕의 짐승을 타고, 백성의

환호 속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천 년쯤 지나,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던 또 한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의 환호 속에 그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을 길에 까는 것은 새 왕을 맞을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에도 무리가 자기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새 왕을 외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나뭇가지를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만 적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가 본 길에는 들에서 꺾어 온 푸른 가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길이라는 말도 마가에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첫머리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이 이제 사람들의 겉옷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가장 가까운 것을 벗어, 주님이 지나가실 길에 깔았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시편 118편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이, 명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환호가 되었습니다. 본디 도와 달라는 외침이었던 말이 찬양의 말이 된 것입니다. 그날 길 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기쁨으로 외쳤지만, 그 말의 뿌리는 지금 구원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순례자들은 명절마다 이 시편을 부르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날 그들은 그 노래를 한 사람에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만 적은 외침이 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누가는 왕이라 하고,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적습니다. 마가는 나라를 외치는 소리를 적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많은 이들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 나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첫 장에서부터 다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외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외침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반쯤 어긋난 기대가 섞인 호산나를 들으시며,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환호는 거기서 끝납니다. 무리가 어디로 흩어졌는지 마가는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성 밖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람 산 너머 작은

마을로, 그 주간 주님은 밤마다 성 밖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님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 보시고도, 주님은 다시 들어오십니다.

둘러 보시고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실 때도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실 때도, 부자가 근심하며 떠난 뒤 제자들을 향하실 때도 주님은 둘러보셨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거의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눈길은 늘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에 노하셨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품으셨습니다. 떨며 숨은 한 사람을 찾아내셨고, 재물을 붙든 마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지 마가는 그날 밤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그다음 이야기로 남겨 둡니다. 마태와 누가는 입성한 그날 곧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이어서 적지만, 마가는 그 사이에 하룻밤을 둡니다. 둘러보심과 그다음 일 사이에, 해가 지고 밤이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날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까닭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는 다 보시고, 밤을 지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려 보입니다.

같은 날을 적으며 누가는 마가가 적지 않은 한 장면을 남겼습니다. 감람 산 내리막에서 성이 내려다보이자, 주님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눈물을 적지 않고 눈길을 적었습니다. 두 복음서를 나란히 두면, 모든 것을 둘러보신 그 눈은 우시던 눈이기도 했습니다. 다 보시는 눈은 차가운 감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머리에 인용된 말씀 가운데 하나인 말라기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길을 준비할 사자가 오고, 그다음에 주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께서 성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는 그분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에 견줍니다. 주께서 성전을 둘러보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눈길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뜰에서 벌어지던 모든 일과,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자기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뒤에 이렇게 적습니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열둘을 세우실 때 첫째 까닭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그 저녁에도 열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열둘 가운데는 며칠 뒤 주님을 넘겨줄 사람도, 세 번 모른다고 할 사람도,

모두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보시는 주님은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그 열둘을 데리고 나가셨고, 이튿날 그 열둘과 함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라는 이 작은 말이 그 한 주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성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는 그 한 주간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음으로 적습니다. 주님은 저녁이면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아침이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신 뒤였습니다. 성전의 모습도, 무리의 속마음도, 제자들의 연약함도 다 보신 뒤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발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신 뒤라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대로 그 성을 떠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성이 주님께 무엇을 하려는지 주님은 이미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침마다 다시 그 산을 넘어 성으로 오셨습니다. 날마다 다시 들어오셨고, 끝내 그 성 밖 언덕으로 끌려 나가실 때까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다 보시고도, 주님은 다시 들어오십니다.

여기까지 감람 산 기슭의 매인 나귀 새끼에서 해 저문 베다니 길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문을 열어 둔 셋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문을 열어 두지 않은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서른 해의 시간이 있지만, 두 이야기는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 위의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길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 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외로움에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외침에는 자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양의 응답, 내 뜻대로 회복되는 교회, 내 생각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호산나에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섞인 호산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반쯤 어긋난 기대를 안고 겉옷을 벗어 깐 사람들의 길 위를 지나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바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위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깊은 구원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우리의 삶과 집과 교회를,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숨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안심이 됩니까? 마가가 보여 준 주님은 다 보신 뒤에 떠나 버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시고도 이튿날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이날의 위로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이 늘어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움, 오래 미뤄 둔 순종, 식어 버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끝내 숨게 만들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다 보신 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는 무엇이 매여 있습니까? 우리 문 앞에도 무언가 매여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오래 아껴 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쓰신 뒤에는 돌려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내어 드린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타고 가신 길이 됩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 한 마리, 낡은 겉옷 한 벌, 들에서 꺾은 가지 몇 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쓰신 것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왕의 길이 깔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 길의 끝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을 노래한 스가랴는 그 왕에 대해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는 그 시대에 사람을 가두던 웅덩이 감옥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빠져나올 길 없는 깊은 곳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은, 언약의 피로 그런 데 갇힌 자들을 풀어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날 주님의 말씀 한 마디에 매인 나귀 새끼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끝나기 전에, 매인 것을 푸시던 그분이 결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마가는 그 새벽을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문 앞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는 풀려났고, 그 나귀를 타셨던 주님은 매이셨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매고 있던 것이 풀리도록, 주님이 대신 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십 일 뒤 다시 그 감람 산에 서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적고,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두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산을 내려와 성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이, 그 산에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오르셨습니다.

다 보시고도 다시 들어오셨던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작은 성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길을 걸었습니다. 매인 나귀 새끼가 풀려 나온 마을의 길, 다윗의 노새를 탄 솔로몬이 내려간 기혼의 길, 겉옷과 들의 나뭇가지가 깔린 감람 산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 저문 베다니로 나가는 길과, 이튿날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길 끝에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우리 삶의 문 앞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다 보시고도, 주님은 다시 들어오십니다.

모든 것을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주님, 섞인 마음으로 외치는 우리의 호산나를 들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도 다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게 하시고, 문 앞에 매인 것을 주님께 풀어 드리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둘러 보시고' περιβλεψάμενος — 신약 7회 가운데 6회가 마가(3:5, 34; 5:32; 9:8; 10:23; 11:11), 1회 눅 6:10. 9:8만 제자들의 눈길. 개역개정은 3:34를 '보시며'로 옮겨 우리말로는 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2. 3절 '주가 쓰시겠다' ὁ κύριος αὐτοῦ χρείαν ἔχει — '주'가 예수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나귀 주인인지 견해가 갈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καὶ εὐθὺς αὐτὸν ἀποστέλλει πάλιν ὧδε — πάλιν(다시) 때문에 예수님이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으로 읽는 견해가 많음(ESV 'will send it back here immediately'). '매여'(δεδεμένον, 2·4절)·'풀다'(λύω, 2·4·5절) — 사도행전의 결박(δέω)과 같은 동사, 막 15:1 '결박하여'(δήσαντες).

3. 가지 — 막 11:8 στιβάδας(들에서 벤 잎 달린 가지·풀), 마 21:8 '나뭇가지', 요 12:13 '종려나무 가지'(τὰ βαΐα τῶν φοινίκων), 눅 19:36 가지 없이 겉옷만. 종려 가지는 마카비 시대 승리·해방의 상징(마카비1서 13:51)이라 무리의 '다윗의 나라' 기대와 이어 읽기도 함 — 3/20 절기이야기와 겹치지 않게 원고에서는 두 문장만.

4. 호산나 ὡσαννά ← 히브리어 הוֹשִׁיעָה נָּא(시 118:25 '이제 구원하소서'). 시 113–118편(할렐)은 명절에 불렸다고 전함. 10절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는 마가에만(마 21:9 다윗의 자손, 눅 19:38 왕, 요 12:13 이스라엘의 왕). 마가는 슥 9:9를 인용하지 않음(마 21:5, 요 12:15는 인용). 창 49:11과의 연결은 해석이라 원고에서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로 낮춤.

5. 마가의 한 주간 — 11:11 둘러보심 → 11:12 이튿날 → 11:15 들어가니라 → 11:19 저물매 성 밖으로 → 11:27 '다시 들어가니라'. 마태·누가는 입성 당일 성전 정화(마 21:12; 눅 19:45), 마가는 하룻밤을 둠. 눅 19:41(성을 보고 우심)은 누가에만. 말 3:1 → 막 1:2(출 23:20과 함께 인용). 행 1:9-12 승천은 감람원 산.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목사님의 호산나에는 지금 어떤 '다윗의 나라'가 섞여 있습니까? 주님은 그 외침 위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 주님이 목사님의 성전(삶과 교회)을 둘러보신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도 다시 들어오신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을 고친 판 — 공식 본문 아님) 장별 대조, 2026-10-25 — 막 11장(1-11, 15, 27) · 막 1, 3, 15장 · 슥 9장 · 시 118편 · 말 3장 · 행 1장. 왕상 1장·슥 14장은 대조 사이트 접근 실패.

1. 막 11:1-11 — 요약(도입)

2. 막 11:1 — 인용

3. 행 28:31 — 요약(지난주)

4. 막 10:46-52 — 요약(바디매오)

5. 슥 14:4 — 인용(앞부분) ※ 확인 필요

6. 막 11:2 — 인용 / 민 19:2 — 요약

7. 막 11:4-5 — 요약('풀다' 반복) / 창 49:10-11 — 요약

8. 막 11:3 — 인용

9. 막 11:4 — 인용 / 11:5-6 — 요약

10. 막 11:7 — 인용 / 막 10:50 — 요약(겉옷을 내버리고)

11. 마 21:5; 요 12:15 — 요약

12. 슥 9:9 — 인용 / 슥 9:10 — 인용(부분)

13. 왕상 1:33 — 인용(부분) / 1:38 — 요약 / 1:39 — 인용(부분) / 1:40 — 인용 ※ 확인 필요

14. 막 11:8 — 인용 / 왕하 9:13 — 요약 / 요 12:13 — 요약

15. 막 1:3 — 인용(부분)

16. 막 11:9-10 — 인용

17. 시 118:25 — 인용(앞부분) / 118:26 — 인용(앞부분, '오는 자가')

18. 마 21:9; 눅 19:38; 요 12:13 — 요약

19. 막 1:15 — 인용(부분)

20. 막 11:11 — 인용

21. 눅 19:41 — 요약

22. 막 3:5 — 인용(부분) / 3:34 — 요약 / 5:32; 10:23 — 요약

23. 말 3:1 — 인용(부분, '임하시리니') / 말 3:2 — 인용(앞부분, '임하시는') / 3:2하 — 요약

24. 막 3:14 — 인용(부분)

25. 막 11:15 — 인용(첫 문장) / 11:27 — 인용(첫 문장) / 11:19 — 요약

26. 막 8:31; 9:31; 10:33-34 — 요약(세 번의 예고)

27. 슥 9:11 — 인용

28. 막 15:1 — 인용(뒷부분)

29. 행 1:10 — 요약 / 1:11 — 인용(부분) / 1:12 — 요약

30. 슥 9:9 — 인용(앞부분, 마침 기도)

※ '매여'·'풀다'의 반복(2·4·5절), '둘러 보시고'(3:5; 11:11 등)를 원고가 "같은 말"이라 함 — 역본에서 다른 낱말이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막 11:3 '다시'(πάλιν)는 개역개정에 드러나지 않음 — 원고가 "헬라어에 다시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설명하므로 역본이 이미 'back'을 넣었으면 그 문장 줄여도 됨.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과 들에서 벤 가지가 깔린 길로 들어간 이가, 성전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감 → 예수님

- 흔한 생각: 종려 가지를 흔든 환호의 날, 닷새 만에 '못 박으라'로 바뀐 변덕의 날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마가에는 종려나무가 없고, 두 무리가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 / 마가의 입성은 환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의 조용한 눈길로 끝나고, 하룻밤 뒤 주님은 '다시' 들어오신다(11:15, 27) /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 다 아시고도

- 원포인트: 다 보시고도, 주님은 다시 들어오십니다. (+ 여운 "모든 것을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니까요.")

- 원어 포인트: 매여·풀다(δέω·λύω), 쓰시겠다(χρείαν ἔχει)와 다시(πάλιν), 들에서 벤 나뭇가지(στιβάδας), 호산나(시 118:25 '이제 구원하소서'), 둘러 보시고(περιβλέπομαι)

- 평행본문 세 장면: 스가랴의 겸손한 왕(슥 9:9-11 — 나귀 새끼, 병거를 끊음, 언약의 피로 갇힌 자를 놓음) · 솔로몬의 즉위(왕상 1:33-40 — 다윗의 노새, 땅이 갈라질 듯한 환호, 그리고 그가 지은 성전) · 말라기의 성전에 임하시는 주(말 3:1-2 — 마가복음 첫 줄이 인용한 약속, 누가 능히 서리요) — 각각 7절·8-10절·11절을 받침

- 복선과 회수: 3/14 '하나님의 나라'(28:31) ↔ '다윗의 나라'(11:10) / 3/14 열린 셋집 문 ↔ 문을 열어 두지 않은 성 / 사도행전 석 달의 결박(δέω) → 매인 나귀 새끼가 풀림 → 결박되어 넘겨지신 주님(막 15:1) / 막 1:3 '주의 길' → 11:8 겉옷 깐 길 / 바디매오의 겉옷(10:50) → 제자들의 겉옷(11:7) / 감람 산(11:1) → 승천의 감람원(행 1:12)

- 우리 자리: 섞인 호산나(내 뜻대로의 응답·회복) / 그 외침 위로 지나가시는 주님 /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심 — 다 보시고도 다시 오심 / 문 앞에 매인 것을 주가 쓰시겠다 — 소수로 남은 우리의 작은 것들

- 그리스도 착지: 슥 9:11 언약의 피로 갇힌 자를 놓으시는 왕 → 나귀를 푸신 분이 결박되심(막 15:1) → 십자가, 사흘째 부활 → 감람원에서 오르시며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 오늘도 우리 삶으로 다시 들어오심

- 중심 그림 하나: 매인 나귀 새끼(그리고 그것을 타신 주님의 길) — 처음(문 앞 거리에 매인 어린 나귀) · 중간(겉옷을 얹은 나귀와 겉옷·푸른 가지가 깔린 감람 산 내리막 / 다윗의 노새를 탄 솔로몬) · 끝(해 저문 성전 뜰을 둘러보시는 뒷모습 → 이튿날 아침 다시 성으로 오르는 길).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저녁빛 성전 뜰에 선 예수님의 뒷모습과 텅 빈 돌바닥)

- 제목: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우리를 그 무리에 세우려고. 다른 후보: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 「매인 것을 풀어 드리는 사람들」

- 매일묵상과 다르게 간 곳: 그 주(3/22-3/27) 매일묵상 결론과 겹치지 않게 — 성전 정화(3/22 '만민이 기도하는 집')는 "다음 이야기로 남겨 둡니다"로 넘기고, 막 10:45(3/19 대속물), 10:32(3/18 앞서 가심), 14:22-24(3/25 이것은 내 몸·언약의 피), 15:39(3/26), 무덤(3/27)을 착지로 삼지 않음. 착지는 슥 9:11과 승천의 약속(행 1:11)으로. 3/20 절기이야기('종려나무'는 요한복음에만)와 겹치지 않게 그 사실은 두 문장으로만. 3/14 팩 시 118은 주일 팩 본문이지만 다른 날이라 25-26절만 출처로 씀.

- 사실 지킴: '종려나무'는 마가에 없음 — 원고는 "교회는 종려주일이라 부르지만 마가는 종려나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요한복음에" 두 곳에서만 그 말을 씀. 두 무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통설은 본문에 없다고 밝힘.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2027년 3월 28일 주일

향품을 들고 가는 사람들

마가복음 16:1-8 · 본문 마가복음 16:1-8 (열왕기하 7:9)

성경에는 돈을 들여 산 향품을 끝내 한 번도 쓰지 못한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가 돋을 무렵 그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다가, 몹시 놀라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들이 도망쳐 나온 그 아침이 첫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기쁨에 찬 여인들이 달려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했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으면 다른 결이 보입니다. 마가가 그린 그 아침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람과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여인들이 들은 첫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찾던 분이 거기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 마디를 향해 갑니다. 안식일이 저물던 저녁, 향품을 사러 나선 여인들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난주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신 주님은 날이 저물면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아침이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오시던 주님이 그 주간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곳은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마가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고운 베로 싸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막을 때에도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세 번 적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자리에서,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에서입니다. 그 아침의 증인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려는 듯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진 그 금요일 저녁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무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어서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팔 수 없었으니, 여인들은 하루를 꼬박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해 진

뒤에 향품을 샀을 것입니다. 향품은 향이 나는 기름과 가루로, 장례 때 시신에 발라 마지막 예를 갖추는 데 썼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께 드릴 마지막 정성을 돈을 들여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무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조금 앞으로 넘겨 보면, 향유가 부어진 장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위한 향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것도 살아 계신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저녁에 세 여인이 산 향품은, 끝내 쓰일 데가 없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는 시간을 두 번 적습니다. 매우 일찍이, 그리고 해 돋을 때에. 동이 트자마자 길을 나섰다는 뜻입니다.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적지 않았지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훗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걸어간 그 첫날이, 교회가 주마다 모여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길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입니다. 왕은 자기가 도장을 찍어 내린 금령 때문에, 아끼던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았고, 왕은 자기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돌을 봉했습니다. 궁에 돌아간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돌로 막힌 굴, 봉인된 입구, 잠 못 이룬 밤, 그리고 새벽의 급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두 걸음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왕은 굴 앞에서 슬피 소리 질러 불렀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혹시라도 대답이 들려올까 해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굴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왕은 돌을 봉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대답하지 않을 몸에 바를 향품이었습니다.

3절은 그 길에서 오간 말을 적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들은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풀 방법이 없는 문제를 안은 채, 향품을 들고 걸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서로 말했다고 적습니다. 혼자 지고 가기에는 무거운 걱정을, 세 사람이 함께 나누어 들고 새벽길을 걸은 셈입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 보았다는 말은, 그때까지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려져 있다고 옮긴 헬라어는, 이미 굴려진 상태가 지금까지 그대로라는 꼴입니다. 누가 굴렸는지 마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적지만, 마가는 그 순간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걱정하며 걷던 그 길 끝에서, 문제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뒤에야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가는 그를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만 적습니다. 놀라매라고 옮긴 헬라어는 신약에서 마가만 쓰는 강한 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실 때에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깊이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고까지 적습니다. 놀라 굳어 버린 쪽은 여인들이었고, 청년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한 절에는 들여다볼 말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못 박힌 일이 지나간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로 남는 꼴로 적혀 있습니다. 살아나신 분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문법으로 보면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수동의 꼴입니다. 신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이 찾는 분은 맞았습니다. 다만 그분을 찾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빈자리를 가리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틀 전 여인들은 예수 둔 곳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잃어버렸다는 소식처럼 들립니다. 향품을 들고 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를 몸이 없습니다. 마지막 정성을 드릴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 앞에서 들려온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의 첫 줄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은 까닭은 누가 옮겨 가서가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일을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 그때 마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아침에도,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적진에 가서 항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해 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것이 굶주린 성을 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의 빈 진영과 예루살렘 성 밖의 빈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된 자리입니다.

7절에서 청년은 여인들에게 할 일을 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은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입니다. 처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나섰던 바닷가,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던 마을들입니다.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 감람 산으로 가시는 길에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그날 밤 모두 흩어졌습니다. 청년이 전한 것은 새로 생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장막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늙은 몸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었느냐고 물으시자,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음과 두려움과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미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의 두려움은 약속을 거두어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약속은 사라의 두려움보다 먼저 있었고, 그 두려움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라는 말을 우리는 마가복음 첫 장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병환자를 고치신 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서 그 일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말하라는 당부를 들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에서 멈춥니다. 8절의 헬라어 문장은 그들이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는 말로 맺고, 그 마지막 낱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작은 접속사입니다. 마가는 여인들의 두려움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사람이 처음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이 끝이었을까요? 마가는 그 침묵이 언제 깨졌는지 적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의 나병환자들도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빈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감추다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헬라어로 옮긴 구약성경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신약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과 같은 뿌리의 말로 옮겼습니다. 여인들의 두려움도, 사라의 두려움도, 나병환자들의 침묵도 그 소식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앞서 가 계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안식일이 저문 저녁의 향품에서, 해 돋는 무덤과 도망쳐 나오는 여인들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무덤 앞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품을 들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새 지나간 시절을 돌보는 일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처음의 기억, 사람이 가득하던 예전의 교회, 응답이 잦던 그때의 기도를 우리는 향품처럼 소중히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지막 예를 다하려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무덤을 정성껏 지키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가 애써 지키는 지나간 자리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특별한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밥을 짓고 아픈 식구를 돌보던, 날마다의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도 다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내일 아침 다시 돌아갈 그 평범한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는 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일주일 가운데 하루에, 삶의 한쪽 구석에, 오래된 기억 속에 모셔 두고 이따금 향품을 들고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모셔 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고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길에서 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돌을 굴려 주리요. 우리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점점 작아지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돌을 굴릴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돌 걱정만 하며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빈 무덤의 소식은 처음부터 사람을 떨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의 질서가 뒤집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소식 앞에서 자주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도 그 소식이 너무 커서 오히려 말문이 막혔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가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는 말로 이야기를 맺지 않습니다. 대신 그 침묵 앞에 이미 하신 약속을 세워 둡니다.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이 소식은 사람의 담대함에 기대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입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품을 들고 서 보았던 무덤들이 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부모와 배우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먼저 잠든 교우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무덤 앞에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무덤들 앞에서도 들려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주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살아나신 뒤에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불리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에도 같은 꼴의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은 상처를 지우고 돌아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 몸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바울은 같은 편지에서, 자기도 받아서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이 그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지켜본 그 무덤, 향품을 들고 찾아간 그 자리입니다. 주님은 정말 죽으셨고, 정말 묻히셨고, 그리고 정말 그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뒤따를 추수가 있다는 표입니다. 그 아침의 빈자리는 예수님 한 분의 빈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자리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향품을 들고 섰던 그 무덤들 앞에서도 그날에는 같은 말이 들릴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쓰이지 못한 향품은 슬픔의 표가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다는 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달려간 봉인된 굴, 사마리아 성문 밖 한 사람도 없던 진영, 그리고 해 돋을 무렵 향품을 든 여인들 앞에 비어 있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웃음을 감추던 사라의 장막에도,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자리는 한 분이 하신 말씀과 한 분이 이루신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향품을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 지나간 자리를 향해 향품을 들고 가는 우리에게 오늘 그 빈자리를 보여 주소서. 두려워 입을 닫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먼저 가 계신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6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ἐσταυρωμένον — 완료 수동 분사(고전 1:23; 2:2; 갈 3:1과 같은 꼴). '살아나셨고' ἠγέρθη — 부정과거 수동.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신약의 말투(행 3:15; 롬 10:9 등)와 이어 읽는 것이 보통이나, 이 수동형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4절 '굴려져 있는데' ἀποκεκύλισται — 완료 수동(누가 굴렸는지 마가는 말하지 않음, 마 28:2은 주의 천사).

2. 8절 '몹시 놀라 떨며' — 직역하면 '떨림과 넋 나감이 그들을 붙잡았다'(εἶχεν γὰρ αὐτὰς τρόμος καὶ ἔκστασις). 문장 끝은 ἐφοβοῦντο γάρ. 마가의 두려움 줄기: 4:41; 5:15, 33; 9:6, 32; 10:32; 16:8. '놀라매' ἐκθαμβέομαι는 신약에서 막 9:15; 14:33; 16:5, 6뿐. '아무에게 아무 말도' — 1:44 μηδενὶ μηδέν ↔ 16:8 οὐδενὶ οὐδέν(침묵 명령을 어긴 이들 1:45; 7:36 ↔ 말하라는 명령 앞의 침묵).

3. 사본: 막 16:9-20은 가장 오래된 주요 사본(시내 사본·바티칸 사본)에 없고, 개역개정은 괄호와 난하주("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로 표시함 — 원고는 16:8에서 멈추고, 9-20절은 4/20 매일묵상 자리.

4. 5절 '청년' νεανίσκος — 마가에는 14:51-52(베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와 16:5에만 나옴. 둘을 잇는 해석(벗고 도망한 청년 ↔ 흰 옷 입고 앉은 청년)이 있으나 본문이 밝히지 않음. 4/13 매일묵상(14:43-52) 자리라 원고에서는 뺌. 마 28:2-5 '주의 천사', 눅 24:4 '두 사람', 요 20:12 '두 천사'.

5. 왕하 7:9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 칠십인역 ἡμέρα εὐαγγελίας(복음 εὐαγγέλιον과 같은 뿌리). 6:24-31(포위 중의 참상)은 절제로 다루지 않음. 단 6:17 돌을 봉함 ↔ 마 27:66 무덤 인봉 — 마가에는 인봉이 없어 원고는 다니엘 쪽에서만 씀. 요 19:39-40(니고데모의 몰약과 침향)은 마가에 없음 — 원고는 마가가 적은 대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산 여인들만 따라감.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목사님이 지금 소중히 들고 다니는 '향품'은 무엇입니까 — 앞서 가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지나간 시절의 무덤을 향한 것입니까?

-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를 목사님은 어느 자리에서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 계신 목사님의 갈릴리, 내일 아침 돌아갈 평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 장별 대조(2026-10-25) — 이 사이트는 개역개정을 고친 본문이라, 기억한 개역개정과 같은 곳만 대조된 것으로 봄. 막 1, 9, 14, 15, 16장 · 마 28장 · 단 6장 · 왕하 7장 · 창 18, 21장 · 고전 2, 15장은 기억과 같음(띄어쓰기 차이만: 사이트 '막달라마리아', '삼 일만에'). 행 20장은 대조하지 않음(요약만).

※ 막 16:8 — 사이트·기억 모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 작업 지시서의 '…무서워함이더라' → 확인 필요(목사님 성경으로 고르실 것).

1. 막 16:1-8 — 요약(도입) / 마 28:8 — 요약

2. 막 16:6 — 인용(부분,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3. 막 16:1 — 인용

4. 막 11:1-11 — 요약(지난주) / 막 15:46 — 요약

5. 막 15:40-41 — 요약 / 15:47 — 인용

6. 막 15:42 — 요약 / 느 10:31 — 배경(안식일 매매, 원고에는 장절 없음)

7. 막 14:3 — 요약 / 14:4 — 요약(인용 꼴 섞임: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 14:8 — 인용

8. 막 16:2 — 인용 / 행 20:7 — 요약

9. 단 6:7-9, 16-18 — 요약 / 6:19 — 인용 / 6:20 — 인용(뒷부분) / 6:22 — 인용(앞부분)

10. 막 16:3 — 인용 / 막 15:46 — 요약

11. 막 16:4 — 인용 / 마 28:2 — 요약

12. 막 16:5 — 인용 / 막 14:33 — 요약

13. 막 16:6 — 인용

14. 막 9:31 — 인용(부분, '인자가 … 살아나리라') / 9:32 — 인용

15. 왕하 7:3 — 인용(뒷부분) / 7:4 — 요약 / 7:5 — 인용(뒷부분) / 7:6-7 — 요약

16. 막 16:7 — 인용 / 막 1:16-18 — 요약 / 15:41 — 요약 / 막 14:66-72 — 요약(세 번 모른다고 함)

17. 막 14:26 — 요약 / 14:28 — 인용 / 14:50 — 요약

18. 창 18:10, 12-13 — 요약 / 18:15 — 인용(앞부분) / 18:14 — 인용(앞부분) / 21:1 — 인용

19. 막 16:8 — 인용

20. 막 1:44 — 인용(앞부분) / 1:45; 7:36 — 요약

21. 눅 24:9; 마 28:8 — 요약('다른 복음서들')

22. 왕하 7:8 — 요약 / 7:9 — 인용(앞부분)

23. 막 16:6 — 인용(부분, 우리 자리) / 16:6 — 인용(부분,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24. 막 16:3 — 인용(우리 자리)

25. 막 16:7 — 인용(부분,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26. 막 16:6 — 인용(부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 고전 2:2 — 인용

27. 고전 15:3-4 — 인용

28. 고전 15:20 — 인용 / 15:55 — 인용

29. 창 21:6 — 요약

30. 막 16:6 — 인용(마침 기도)

※ 16:8 끝 낱말(γάρ) — 한국어는 어순 때문에 '못하더라'로 끝나지만 원고는 헬라어 어순을 설명함. 영어 등 'for they were afraid'로 끝나는 역본은 그대로 맞고, 아닌 언어는 그 문장 조정 필요.

※ '아무에게 아무 말도'(1:44 ↔ 16:8), '놀라매'(16:5) ↔ '심히 놀라시며'(14:33) — 원고가 "같은 말"이라 함. 역본에서 다른 낱말이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원고 끝의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는 16:6을 우리의 무덤에 맞춰 바꾼 말 — 구절 인용이 아님(따옴표·출처 달지 말 것).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돈을 들여 산 향품을 끝내 한 번도 쓰지 못한 세 여인, 해 돋을 무렵 무덤에서 떨며 도망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함 → 막달라 마리아·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살로메, 첫 부활의 아침

- 흔한 생각: 기쁨에 찬 여인들이 달려가 외치는 부활의 아침(마 28:8)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마가의 부활 아침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없다 — 놀람·떨림·두려움, 그리고 첫 소식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는 부재의 말 / 장례의 향은 이미 베다니에서 살아 계신 주님께 부어졌다(14:8) / 말하지 말라던 마가에서 이제는 말하라는데 침묵(1:44 ↔ 16:8)

- 원포인트: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 여운 "향품을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요.")

- 원어 포인트: 십자가에 못 박히신(완료 분사 — 살아나신 분은 여전히 못 박히신 분), 살아나셨고(수동), 굴려져 있는데(완료), 놀라매(ἐκθαμβέομαι, 14:33과 같은 말), 8절 끝 γάρ, 아름다운 소식(칠십인역 εὐαγγελία)

- 평행본문 세 장면: 다리오 왕의 새벽(단 6:17-22 — 봉인된 돌, 새벽의 급한 걸음, 부르는 이름과 대답) · 사마리아 성문 밖 나병환자 넷(왕하 7:3-9 — '한 사람도 없으니'가 살리는 소식,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 사라(창 18:12-15; 21:1 — 두려워 부인해도 '말씀하신 대로') — 각각 2-4절·6절과 8절·7-8절을 받침

- 복선과 회수: 3/21 '다 보시고도 다시 들어오십니다' → 그 주간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곳이 무덤 → 그 자리를 비우고 앞서 가심 / 15:47 '예수 둔 곳을 보더라' → 16:6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 14:8 '장례를 미리' → 쓰이지 못한 향품 / 14:28 → 16:7 '전에 말씀하신 대로' / 1:44 → 16:8 / 1:16 갈릴리 바닷가 → 16:7 갈릴리

- 우리 자리: 지나간 시절을 향한 향품(오래 믿은 사람의 신앙이 무덤 지키기가 되기 쉬움) / 주님을 '두었던 곳' — 우리가 모셔 둔 자리를 비우고 앞서 가심 / 길에서 하는 돌 이야기 — 눈을 들면 이미 굴려진 돌 / 소식 앞의 두려움과 침묵 —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에 기대어 전해진 소식 / 우리가 향품을 들고 섰던 무덤들

- 그리스도 착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완료) = 고전 2:2 → 고전 15:3-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 다시 살아나사' → 15:20 첫 열매 → 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우리의 무덤 앞에서도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 중심 그림 하나: 향품 그릇 — 처음(안식일 끝난 토요일 저녁, 등불 아래 향품을 사서 싸는 세 여인의 손) · 중간(베다니에서 깨뜨린 옥합 / 해 돋는 무덤길에 향품을 든 세 사람 / 빈 돌 선반 앞에 내려놓인 열지 않은 향품) · 끝(봉하지 않은 채 남은 향품 그릇과 열린 무덤 위로 오르는 해).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빈 돌 선반 앞에 놓인 열지 않은 향품 그릇, 무덤 안으로 드는 아침 빛)

- 제목: 「향품을 들고 가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우리를 그 여인들의 걸음에 세우려고. 다른 후보: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 「돌 걱정을 하며 걷는 사람들」

- 네 편 비교(부활절기): 3/28 향품 그릇 ·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 착지 고전 15(못 박히신 분의 부활 → 첫 열매 → 우리의 무덤) / 4/4 동산 ·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 착지 요 11(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이름을 부르신 주님) → 십자가 곁 → 계 21:4 / 4/11 낯선 길동무 ·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 착지 눅 24:26 고난과 영광 → '속량'(24:21 ↔ 딛 2:14) / 4/18 방 한가운데 ·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 착지 십자가 가운데(요 19:18) → 방 가운데(20:19, 26) → 보좌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계 5:6). 부재(3/28) · 이름(4/4) · 동행(4/11) · 한가운데(4/18)로 나눔.

- 매일묵상과 다르게 간 곳: 3/23(14:1-9 향유 옥합, '그는 힘을 다하여')은 향품의 짝으로 한 문단만 부르고 결론으로 삼지 않음 / 3/27(15:40-47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요셉의 무덤)은 1절 앞의 복습으로만 — 결론은 '지켜봄'이 아니라 '부재가 복음' / 4/10(14:27-31, 14:28)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의 출처로 두 문장만, 베드로 이야기는 이름 한 줄(5/2 몫) / 4/13 청년은 카드로 / 4/20 9-20절은 다루지 않음. 3/21이 쓴 슥 9:11·행 1:11, 1/3·2/14가 쓴 행 2:24, 1/10이 쓴 '무덤 문의 돌' 착지는 되풀이하지 않음(돌은 3-4절 낭독에서만). 당일 팩 원고(같은 본문, 매일묵상 틀)와는 길이 다름.

- 사실 지킴: 16:8에서 멈추는 마가의 끝을 꾸미지 않음 —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에서 멈춥니다", 침묵이 언제 깨졌는지 마가는 적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른 복음서 기록은 '적습니다'로만. 향품을 토요일 해 진 뒤에 샀다는 것은 '~을 것입니다'(추정). 사본 문제는 카드 한 줄.

- 확인 필요: 막 16:8 — 사이트와 기억한 개역개정이 같고('…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시서의 '무서워함이더라'만 다름 → 원고는 기억·사이트 꼴. 행 20:7(요약)은 대조 안 함.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빈 무덤 앞의 여자들 — "그가 살아나셨고").

2027년 4월 4일 주일

울며 찾는 사람들

요한복음 20:1-18 · 본문 요한복음 20:1–18 (요한복음 11:35)

성경에는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동산에서, 사라진 시신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또 묻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서서 울다가 등 뒤에 선 사람을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만 알려 주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주신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물 때문이었다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그런데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던 주님이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먼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때 우는 사람들 곁에서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이, 이제 주님을 잃고 우는 한 사람의 입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 끝에 들려온 한 마디를 향해 갑니다. 아직 어두운 동산으로 가는 마리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해 돋을 무렵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말을 듣고 떨며 도망쳤습니다. 요한은 같은 아침을 한 사람의 걸음으로 다시 보여 줍니다. 그리고 마가가 해 돋을 때라고 적은 그 아침을,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적습니다. 빛과 어둠을 자주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아침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은 그를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고 자기 소유로 주님의 일행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 그를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사람으로 여긴 때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의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는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것이 첫 번째 어디 두었는지입니다. 마리아가 처음 떠올린 것은 부활이 아니라 도난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드물지 않아서 그것을 막는 법령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열린 무덤 앞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잃어버린 데 또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잃었는데, 이제는 그 몸마저 잃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 마리아에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것은 가장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두 제자의 달음질입니다.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는 구부려 고운 베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을 쌌던 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를 따로 적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수건이라는 말도 요한복음에 앞서 한 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는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왔고 그 얼굴은 수건에 싸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베와 수건을 두른 채 나왔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풀려나야 했습니다.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죽을 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무덤 안에 남겨 두고 나오셨습니다. 다시는 그것들이 필요 없는 몸으로 살아나셨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습니다.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요한은 곧바로 괄호를 엽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엇인가를 믿었지만, 아직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보고, 무언가를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요한은 짧은 한 절에 우는 모습을 두 번 적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말은 소리를 내어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곡하던 그 울음과 같은 말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봅니다.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의 대답이 두 번째 어디 두었는지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랐다고 적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한 가지 물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님이라 했던 말이 이제 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깊어질수록, 그 슬픔은 점점 더 한 분에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그 등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 아직 어두워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거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에서 이 물음은 낯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따라오던 두 사람에게 하신 이 물음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헬라어로는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등과 횃불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두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에는 동산이 두 번 나옵니다. 주님이 잡히신 기드론 건너편 동산과, 주님이 묻히신 동산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잡히시던 동산에서 주님은 당신을 해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무덤의 동산에서는 당신을 잃고 우는 사람에게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던 곳이 바로 그 무덤의 동산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알고 세 번째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말에 마리아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인 혼자서 장정의 시신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백 리트라쯤 가져와 시신을 쌌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싼 시신을 혼자 옮기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신지만 알면, 어떻게든 다시 모셔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긴 하갈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를 헤맸습니다.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 바탕 거리쯤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그때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를 읽어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을 이름으로 부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내 여종이라고, 당신의 여종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하갈아 하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사자뿐입니다. 처음 도망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이름을 불러 주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은 울음 한가운데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주님은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려 주지 않으시고, 이름 하나로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돌이킵니다. 14절에서 이미 한 번 돌아섰지만, 그 사이 다시 무덤 쪽을 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름이 불리자 그는 온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랍오니, 나의 선생님.

동산지기의 목소리로 들리던 말이 주님의 목소리가 된 것은,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순간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던 그 자리가, 주님께 이름이 불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그만 놓으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으려고, 예전처럼 곁에 모셔 두려고 붙든 손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은 해석이 여럿으로 갈리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흐름 안에서 읽어 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에서 떠나실 일을 거듭 말씀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 버리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붙들어 두지 않아도 늘 함께하시는 길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한 여인이 밤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아 성 안을 헤맵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하자, 성 안을 순찰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이를 만납니다.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노래이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미리 말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두 장면은 닮았습니다. 밤에 찾고, 지키는 사람에게 묻고, 만나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아침을 이 노래와 나란히 읽어 왔습니다. 3세기 초의 교부 히폴리투스는 아가서를 풀면서 이 노래를 부활 아침 무덤의 여인들과 나란히 읽었고, 그 여인들을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을 물리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붙들어 두지 않아도 다시 잃지 않을 관계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붙잡고 놓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놓은 손으로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무덤 곁에 머물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붙들던 손을 놓게 하시고, 그 손에 전할 말씀을 쥐여 주셨습니다. 울던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한데 묶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주님만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붙들려던 것은 예전의 선생님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께로 이어지는 새 관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랍오니라고 불렀지만, 잠시 뒤 제자들에게 가서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마리아 안에서 무엇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침 일찍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달려왔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며 달려옵니다. 같은 사람, 같은 길, 같은 제자들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이에 이름이 불렸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 시대 유대의 법정은 여인의 증언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으로 요한이 이름을 적어 둔 사람은, 울며 무덤 곁에 남아 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굳이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한 마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처음 건넨 말도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울던 한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의 증언이 되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이천 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까지 아직 어두운 동산에서 아침의 동산까지,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동산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울며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먼저 보낸 사람의 빈자리일 수도 있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앉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난 예배당의 빈 의자 앞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우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울어도 되는가 싶어 눈물을 감춥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다 알고 담담하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무덤 곁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묻습니다. 주님을 어디 두었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어디 계신지만 알면 내가 가서 모셔 오겠다고 애씁니다. 예전의 뜨거움을, 예전의 모임을, 예전의 신앙을 어떻게든 다시 가져오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주님은 그 등 뒤에 서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덤 안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던 자리만 바라보는 동안, 살아 계신 주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꾸짖는 물음이 아니라, 우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꺼내 놓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불립니다. 하갈처럼 아무도 이름을 불러 주지 않는 광야에서도, 마리아처럼 모두가 떠난 무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불린 뒤에는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순간을 붙들어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에 머물러, 예전처럼 곁에 모셔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두지 않으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할 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가 전한 것도 그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서, 주님은 그의 누이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 가운데 하나를 남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헬라어로 보면 사람들의 울음과 주님의 눈물은 다른 말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내어 곡했고, 주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동산에서 마리아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한 번 무덤 앞에서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신 일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나사로가 살아난 뒤 이렇게 적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은, 그 일로 당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끝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는 사람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우는 사람들을 위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아침, 그 무덤의 동산에서 같은 목소리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은 다정한 말 한 마디가 아닙니다. 죽음을 지나오신 분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마지막 날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그날을 이렇게 그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동산에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은,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덤 곁에서 흘리는 눈물도, 그날 그분의 손에 닦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어두운 동산의 열린 무덤 앞, 물이 떨어진 브엘세바 광야의 관목덤불 곁, 밤의 성 안 거리, 그리고 베다니의 돌로 막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도 닿아 있습니다.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이 불릴 테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 무덤 안만 들여다보며 울던 우리를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등 뒤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어디 두었는지' — 20:2, 13, 15 ποῦ ἔθηκαν/ἔθηκας αὐτόν ↔ 11:34 ποῦ τεθείκατε αὐτόν(같은 동사 τίθημι). '누구를 찾느냐' 20:15 ζητεῖς ↔ 1:38 '무엇을 구하느냐'(τί ζητεῖτε) ↔ 18:4, 7(동산에서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동산' κῆπος — 18:1, 26; 19:41(두 번); 20:15 '동산지기' κηπουρός. 에덴과 잇는 해석도 있으나 칠십인역 창세기는 παράδεισος라 낱말은 다름 — 원고에서는 에덴을 쓰지 않음(4/11 이야기가 창 3:7을 씀).

2. '수건' σουδάριον — 11:44(나사로)와 20:7에만. 20:7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ἐντετυλιγμένον)를 '개켜 있었다'로 읽을지 '감긴 모양 그대로'로 읽을지 갈림. '울다' κλαίω(11:31, 33; 20:11, 13, 15 — 소리 내어 울음) ↔ 11:35 ἐδάκρυσεν(눈물을 흘리다, 신약에 여기뿐).

3.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μή μου ἅπτου — 현재 명령의 부정이라 '붙들고 있는 것을 그만두라'로 읽는 것이 보통(KJV 'Touch me not'는 옛 번역의 결).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의 뜻은 해석이 여럿 — 원고는 14:18 쪽에서만 읽음. 16절 '마리아야' — 많은 사본이 여기와 18절에서 히브리식 이름 Μαριάμ을 씀(1, 11절은 Μαρία).

4. 막달라 마리아 — 눅 8:2-3(일곱 귀신이 나감, 소유로 섬김), 막 15:40, 47; 16:1; 요 19:25. 눅 7:36-50의 여인과 같은 사람으로 본 것은 591년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 이후 서방 전통 — 성경 근거 없음. 히폴리투스의 『아가서 주석』이 무덤의 여인들을 아 3:1-4와 잇고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 부른 대목은 2차 자료로 확인한 내용(원문 대조 필요). 여인 증언 —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4.219(여인의 증언을 받지 말라)가 흔히 인용됨.

5. 무덤 도굴 — '나사렛 비문'(무덤을 훼손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황제 칙령, 1세기 추정, 연대·출처 논쟁 있음). 원고는 "법령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로 낮춤. 12절 두 천사(머리 편·발 편)를 속죄소의 두 그룹(출 25:18-22)과 잇는 해석이 있으나 원고에서는 뺌.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목사님이 지금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무덤 안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 주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붙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주님은 대신 무엇을 손에 쥐여 주셨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 장별 대조(2026-10-25) — 이 사이트는 개역개정을 고친 본문이라, 기억한 개역개정과 같은 곳만 대조된 것으로 봄. 요 1, 11, 14, 15, 18, 19, 20장 · 눅 8장 · 창 16, 21장 · 사 43장 · 계 21장은 기억과 같음(띄어쓰기 차이만: 사이트 '막달라마리아'). 아가 3장은 이 사이트 한국어판에 없어 대조 못 함(blueletterbible 개역한글과만 대조) → 확인 필요.

1. 요 20:1-18 — 요약(도입) / 20:2, 13, 15 — '어디 두었는지' 요약

2. 요 11:33 — 요약 / 11:34 — 인용(앞부분, '그를 어디 두었느냐')

3. 요 20:1 — 인용

4. 막 16:2, 6, 8 — 요약(지난주)

5. 눅 8:2 — 인용(부분) / 8:3 — 요약 / 눅 7:36-50 — 요약(언급)

6. 요 19:25 — 인용

7. 요 20:2 — 인용

8. 요 20:4 — 인용 / 20:5-6 — 요약 / 20:7 — 인용

9. 요 11:44 — 요약

10. 요 20:8 — 인용 / 20:9 — 인용 / 20:10 — 인용

11. 요 20:11 — 인용 / 11:31, 33 — 요약

12. 요 20:12 — 요약 / 20:13 — 인용(나누어)

13. 요 20:14 — 인용

14. 요 20:15 — 인용(앞부분) / 1:38 — 인용(부분, '무엇을 구하느냐') / 18:1-3 — 요약 / 18:4, 7 — 인용(부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15. 요 18:1 — 요약 / 19:41 — 인용

16. 요 20:15 — 인용(뒷부분) / 19:39 — 요약

17. 창 21:14-16 — 요약 / 21:16 — 인용(뒷부분)

18. 창 21:17 — 인용(부분) / 16:2, 5, 6; 21:10 — 요약 / 16:8 — 요약 / 16:13 — 인용(부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9. 요 20:16 — 인용

20. 요 20:17 — 인용(앞부분)

21. 요 14:18 — 인용

22. 아 3:1-2 — 요약 / 3:3 — 인용(부분) / 3:4 — 인용(부분, '그를 붙잡고 … 놓지 아니하였노라') ※ 확인 필요

23. 요 20:17 — 인용(뒷부분) / 15:15 — 인용(부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24. 요 20:18 — 인용

25. 요 20:25 — 인용(부분,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26. 요 20:15 — 인용(앞부분, 우리 자리)

27. 사 43:1 — 인용(뒷부분)

28. 요 20:18 — 요약(우리 자리)

29. 요 11:33 — 인용 / 11:34 — 인용(앞부분) / 11:35 — 인용

30. 요 11:43 — 인용(부분, '나사로야 나오라')

31. 요 11:53 — 인용 / 19:25, 30 — 요약

32. 계 21:3 — 요약 / 21:4 — 인용

33. 요 20:15 — 인용(앞부분, 마침 기도)

※ '어디 두었는지'(20장)와 '그를 어디 두었느냐'(11:34), '누구를 찾느냐'(20:15)와 '무엇을 구하느냐'(1:38), '수건'(11:44 ↔ 20:7), '울다'(곡하다)와 '눈물을 흘리다' — 원고가 "같은 말/다른 말"이라 함. 역본에서 낱말이 다르게 옮겨졌으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동산지기'(20:15)와 '동산'(18:1; 19:41) — 역본에 따라 garden/gardener가 이어지지 않으면 조정.

※ 점검 스크립트의 '마포' 1회는 20:7 인용의 '세마포'(채널 금지어 아님).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동트기 전 어두운 동산에서 사라진 시신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또 묻던 여인, 등 뒤의 사람을 동산지기로 알고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함 → 막달라 마리아

- 흔한 생각: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주신 아름다운 장면, 눈물 때문에 못 알아본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마리아의 '어디 두었는지' 세 번(20:2, 13, 15)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던 주님이 먼저 하신 물음(11:34) / 두 제자는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20:10) 울던 마리아만 남음 /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대답하심 /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주님은 등 뒤에 서 계심

- 원포인트: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 여운 "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이 불릴 테니까요.")

- 원어 포인트: 어디 두었는지(τίθημι, 11:34와 같은 동사), 찾느냐(ζητέω, 1:38; 18:4, 7), 수건(σουδάριον, 11:44), 울다 κλαίω ↔ 눈물을 흘리다 δακρύω(11:35), 붙들지 말라(현재 명령 — 그만 붙들라)

- 평행본문 세 장면: 브엘세바 광야의 하갈(창 21:15-17; 16:8, 13 — 우는 자리에서 처음 이름이 불린 사람) · 아가서 3장의 밤(아 3:1-4 — 찾고, 묻고, 붙잡고 놓지 않음 ↔ '붙들지 말라') ·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요 11:33-44, 53 — 눈물을 흘리시고 이름을 부르신 주님, 그 부름의 값) — 각각 15-16절·17절·그리스도 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3/28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 마리아에게는 가장 아픈 소식(같은 부재의 다른 얼굴) / 3/28 해 돋을 때(막 16:2) ↔ 아직 어두울 때(요 20:1) / 11:34 '어디 두었느냐' → 20장의 세 번 / 11:44 수건 → 20:7 남겨진 수건 / 18:4 동산의 '누구를 찾느냐' → 20:15 / 20:18 '내가 주를 보았다' → 20:25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4/18로 넘기는 실)

- 우리 자리: 다 집으로 돌아간 뒤 혼자 울며 서 있는 자리(먼저 보낸 사람, 응답 없는 기도, 빈 의자) / 우는 것을 감추는 오래 믿은 사람 —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울던 사람 /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 예전의 신앙을 다시 가져오려는 애씀 / 무덤 안만 들여다볼 때 등 뒤에 서 계신 주님 / 이름이 불린 뒤 '붙들지 말라' — 전할 말은 두 마디

- 그리스도 착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요 11:34-35) → '나사로야 나오라'(11:43) → 그 일로 시작된 죽음의 모의(11:53) →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19:25) → 죽음을 지나오신 분의 부름 '마리아야'(20:16) →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그날(계 21:4)

- 중심 그림 하나: 동산 — 처음(동트기 전 어두운 동산, 돌이 옮겨진 무덤 앞에 선 여인) · 중간(기드론 건너편 동산의 횃불 / 브엘세바 광야의 관목덤불 / 밤의 성 안 거리 / 베다니의 돌로 막은 무덤) · 끝(새벽빛이 드는 무덤의 동산, 이름을 듣고 돌아서는 마리아, 주님은 뒷모습이나 옆모습).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동산의 새벽빛 속, 무덤에서 등을 돌려 돌아서는 마리아의 옆얼굴)

- 제목: 「울며 찾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울고 있더니·누구를 찾느냐). 다른 후보: 「무덤 곁에 남는 사람들」, 「이름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

- 네 편 비교(부활절기): 3/28 향품 그릇 ·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 착지 고전 15(못 박히신 분의 부활 → 첫 열매 → 우리의 무덤) / 4/4 동산 ·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 착지 요 11(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이름을 부르신 주님) → 십자가 곁 → 계 21:4 / 4/11 낯선 길동무 ·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 착지 눅 24:26 고난과 영광 → '속량'(24:21 ↔ 딛 2:14) / 4/18 방 한가운데 ·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 착지 십자가 가운데(요 19:18) → 방 가운데(20:19, 26) → 보좌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계 5:6). 부재(3/28) · 이름(4/4) · 동행(4/11) · 한가운데(4/18)로 나눔.

- 매일묵상과 다르게 간 곳: 같은 주 평일 3/29-4/3은 막 11:20-12:34(무화과나무·권위·포도원 농부·가이사의 것·부활 논쟁·첫째 계명) — 4/2 '산 자의 하나님'(12:18-27)과 겹치지 않게 부활 일반론으로 가지 않고 '이름'에 머묾. 4/20 막 16:9(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심)은 4/20 결론('온 천하에 다니며')과 다른 길. '내 형제들'(17절)은 1/17이 마 28:10·히 2:11로 착지에 썼으므로 낭독과 한 문장 설명만 하고 착지로 삼지 않음. 요 10:3('이름을 각각 불러')은 5/2 '내 양을 먹이라'와 겹칠 수 있어 쓰지 않음. 베드로는 달음질 장면의 이름으로만(5/2 묶).

- 사실 지킴: 마리아가 왜 못 알아봤는지 요한은 말하지 않는다고 밝힘 / 막달라 마리아를 눅 7장의 여인으로 본 전통은 성경 근거가 없다고 밝힘 / 아가서는 예언이 아니라고 밝히고 교회의 읽기로만 / 히폴리투스·도굴 법령·여인 증언은 '전해집니다'로 낮춤.

- 확인 필요: 아 3:1-4(개역개정 대조 못 함 — 원고 인용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는 개역한글과 같음, 개역개정 3:4 전체 문장은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로 기억함). 히폴리투스 인용(2차 자료).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동산의 막달라 마리아 — "마리아야").

2027년 4월 11일 주일

엠마오로 걷는 사람들

누가복음 24:13-35 · 본문 누가복음 24:13-35 (창세기 28:15-16)

성경에는 해가 기울 무렵 시골길을 걸으며, 자기들이 바랐던 사람이 사흘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낯선 길동무에게 털어놓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 길동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린 식탁의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식탁은 이 이야기의 가장 밝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식탁이 아니라 길 위에 둡니다. 스물세 절 가운데 식탁에서 일어난 일은 두 절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떠나가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식탁의 순간이 그토록 밝은 것은, 그 앞에 길고 어두운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는 두 사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날은 무덤이 비어 있던 바로 그날입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그들 중 둘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열한 사도는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더 넓은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직 어두운 동산에서 이름이 불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날 아침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길을 나섰습니다. 왜 떠났는지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엠마오가 그들의 집이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더 머물 까닭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십오 리는 대략 십 킬로미터 남짓한 거리로, 걸어서 서너 시간쯤 걸리는 길입니다. 날이 기울 무렵 마을에 닿았으니, 그들은 오후 늦게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엠마오가 지금의 어느 마을인지는 여러 곳이 거론될 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길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걸음을 자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줄곧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9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굳게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헬라어로 보면 이 절에는 예수께서 친히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걸음을 돌려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던 쪽으로, 함께 걸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자주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은 맹인을 부르셨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주님은 길 위로 오셨습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리어졌다는 말은 문법으로 보면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었다는 수동의 꼴입니다. 누가는 무엇이 그들의 눈을 붙들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 때문이었다고, 실망 때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의 마리아도 그분을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이 수동의 꼴은 31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17절에서 길동무가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고받는다고 옮긴 헬라어는 말을 서로 던지듯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차분한 대화보다는 언성이 오가는 다툼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물음 하나에 그동안 눌러 두었던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서 건네신 첫마디는 위로나 설명이 아니라 물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18절에서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체류한다고 옮긴 말은 나그네로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글로바의 눈에 그는 명절에 올라왔다가 소식도 모르고 돌아가는 낯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나그네 혼자였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 이야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누가가 굳이 그 이름을 적어 둔 것을, 이 일을 직접 겪고 들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표로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광야에서 우는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다 말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의 이야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넘겨주었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은 다 맞았습니다. 다만 그 사실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묶인 사람을 풀어 주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일을 이 말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건져 내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바랐노라는 말 속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지나간 때의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지난날 줄곧 바라고 있었다는 꼴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신 분 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째라고 말합니다.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날 아침 무덤에 선 두 사람도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일깨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사람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흘째를 끝의 날로 셌습니다. 그들이 끝을 확인하려고 센 그 사흘째가,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은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다 꺼내 놓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 몇 사람이 가 보니 과연 여인들의 말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 말로 끝납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긴 사도들처럼, 그들도 빈 무덤을 이상한 소문 정도로 들었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길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입니다. 형을 피해 집을 떠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등지고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가 진 길, 혼자 떠나가는 사람, 돌베개입니다. 야곱은 그 길을 떳떳하게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뒤에 쫓기듯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 밤 야곱은 꿈에서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밤 하나님은 떠나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면 함께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는 야곱을 불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하셨고, 그 길 끝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꾸짖음보다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십 년쯤 지나, 야곱은 정말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길 위에 오래 머물게 한 까닭도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알아보기 전에도 동행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소망을 과거형으로 말하던 그 길 위에 소망이신 분이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25절에서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꾸짖음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끝이라고 말한 바로 그 일을, 주님은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형 판결과 십자가는 소망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길은 서너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그들이 이미 알던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주님은 그들의 집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실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두 사람이 붙듭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앞서 한 번 있었습니다. 빈 들에서 오천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그날 주님은 떡 다섯 개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도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떡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 주시는 그 모습을 두 사람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의 마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렸을 때, 마노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그를 붙들며 염소 새끼를 준비할 테니 머물러 달라고 청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마노아가 예물을 드리자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불꽃 가운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언제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뒤에야 마노아가 그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고 적습니다. 머물기를 청한 손님이 누구였는지는, 그가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알았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손님으로 모신 나그네가 떡을 들었습니다. 식탁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떡을 떼어 줄 때, 가리어졌던 눈이 열렸습니다. 16절의 가리어졌다는 말처럼, 밝아졌다는 말도 수동의 꼴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이 말은 성경 첫머리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사람 둘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헬라어로 옮긴 구약성경은 이 말을 누가와 같은 꼴로 적었습니다.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고 눈이 열린 두 사람은 부끄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엠마오 식탁에서 눈이 열린 두 사람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고, 그 밤에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자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마노아의 손님처럼, 알아본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번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돌아본 것은 식탁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이미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한 것처럼, 그들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조금 전 그들은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일어나 왔던 길 이십오 리를 되짚어 갑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었던 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자 먼저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전한 것은 식탁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길에서 된 일을 먼저 적었습니다.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던 길에서, 그 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두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는 울던 자리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떠나가던 길에서 동행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마다 다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느 길에서 만나실까요?

여러분도 바랐노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소망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기도는 응답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는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꾸짖어 돌려세우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가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다 말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실망과 서운함을 끝까지 들으십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 기도는 때로 이렇게 길에서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주님은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의 한복판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끝을 확인하려고 센 사흘째가 약속의 날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집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함께 걸어오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 모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사람의 식탁에 주님은 들어가 앉으십니다. 여러분의 저녁에도 그 청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남은 글로바와, 이름이 남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 이름 없는 길동무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실망을 털어놓아도 되는 한 사람, 떠나가는 길이라도 함께 걸어 주는 한 사람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둘이 걷는 길 사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 길을 함께 걸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몰랐지만 마음이 뜨거웠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홀로 걷는 줄 알았던 병상의 밤, 떠나보낸 뒤의 긴 계절, 낙심하여 교회 문을 멀리 돌아가던 날에도, 우리 곁에는 알아보지 못한 길동무가 계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길동무는 누구셨습니까?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았고, 너무 일렀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사람이 엠마오 길에서 쓴 속량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동사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바란 속량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살아나셔서, 속량이 끝났다고 슬퍼하며 떠나가는 두 사람 곁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소망의 끝이라 여기던 사람들의 길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자 그분은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게 되신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길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 해가 진 벧엘의 돌베개, 마노아의 제단에서 하늘로 오른 불꽃이 있었습니다. 첫 동산에서 눈이 열려 숨던 두 사람과, 엠마오 식탁에서 눈이 열려 달려간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길동무가 함께 계셨습니다.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함께 걷고 계셨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주님, 바랐노라고 말하며 떠나가는 우리 곁에 오늘도 걸어 주소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소서. 우리의 저녁 식탁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눈이 열려 다시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바랐노라' ἠλπίζομεν(미완료 — 지난날 줄곧 바라고 있었다), '속량할' λυτροῦσθαι(24:21) ↔ 딛 2:14 λυτρώσηται(같은 동사), 칠십인역 출 6:6 '속량하여'. 벧전 1:18-19(대속함을 받은 것은 … 보배로운 피로)도 같은 동사지만 4/24 매일묵상 자리라 원고에서 뺌. '가리어져서' ἐκρατοῦντο(16절, 붙들려 있었다)와 '밝아져' διηνοίχθησαν(31절) — 둘 다 수동, 칠십인역 창 3:7 διηνοίχθησαν과 같은 꼴(창 3:7도 '둘'의 눈).

2. '-야 할 것이 아니냐'(26절) ἔδει — 9:22; 17:25; 24:7, 44의 '반드시(δεῖ)' 줄기. 9:12 '날이 저물어 가매'(ἤρξατο κλίνειν) ↔ 24:29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κέκλικεν) — 같은 동사 κλίνω. 떡을 가지사·축사하시고·떼어·주시니 — 9:16; 22:19와 같은 동작(행 2:42, 46 '떡을 떼며'로 이어짐 — 5/23 이야기 자리).

3. 엠마오 위치 — 이십오 리(60 스타디온, 약 11km). 일부 사본은 160 스타디온(약 30km, 암와스/니코폴리스와 맞춤). 후보지: 암와스, 엘쿠베이베, 아부 고시, 모차(콜로니아) — 정해지지 않음. 원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로만.

4. 글로바(Κλεοπᾶς, 24:18)와 요 19:25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글로바(Κλωπᾶς)는 헬라어 철자가 다름. 2세기 헤게십포스(유세비우스 인용)는 Κλωπᾶς를 요셉의 형제로 전함 — 두 사람이 같은지, 엠마오의 다른 한 사람이 그 아내인지 모두 추정. 이름을 적은 것을 증인의 표로 보는 견해(리처드 보컴 등) — 원고는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5. 17절 '주고받고' ἀντιβάλλετε — 신약에 여기뿐, '서로 던지다'. 18절 '체류하면서도' παροικεῖς — 벧전 1:17; 2:11의 '나그네(πάροικος)'와 같은 뿌리(4/21·4/28 매일묵상 자리 — 원고는 '나그네로 잠시 머문다'는 뜻풀이만). 마노아(삿 13:15-21)는 개역개정 대조를 못 해 풀어 씀.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목사님이 요즘 '바랐노라'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주님이 "무슨 일이냐" 물으신다면 무엇부터 털어놓으시겠습니까?

-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마음이 뜨거웠던 길 — 목사님의 '엠마오 길'은 어디였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 장별 대조(2026-10-25) — 이 사이트는 개역개정을 고친 본문이라, 기억한 개역개정과 같은 곳만 대조된 것으로 봄. 눅 9, 22, 24장 · 창 3, 28장 · 딛 2장은 기억과 같음(띄어쓰기 차이만: 24:29 사이트 '저물어가고'). 삿 13장은 이 사이트로 대조 못 함 → 원고에서 풀어 씀.

1. 눅 24:13-35 — 요약(도입) / 24:18 — 요약(글로바)

2. 눅 24:13 — 인용

3. 요 20:18 — 요약(지난주) / 눅 24:9-10 — 요약 / 24:11 — 인용

4. 눅 9:51 — 인용

5. 눅 24:14-15 — 인용 / 18:35-43; 19:1-5 — 요약

6. 눅 24:16 — 인용 / 요 20:14-15 — 요약

7. 눅 24:17 — 인용

8. 눅 24:18 — 인용

9. 눅 24:19 — 인용(앞부분) / 창 3:9 — 인용(부분, '네가 어디 있느냐') / 창 21:17 — 인용(부분, '무슨 일이냐') / 눅 24:19-20 — 인용(뒷부분)

10. 눅 24:21 — 인용 / 출 6:6 — 요약

11. 눅 9:22 — 인용(뒷부분) / 24:7 — 인용(뒷부분)

12. 눅 24:22-24 — 요약 / 24:24 — 인용(끝부분,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창 27장 — 요약 / 창 28:11 — 인용 / 28:12 — 요약

14. 창 28:15 — 인용(앞부분) / 28:16 — 인용 / 창 31-33장 — 요약(돌아옴)

15. 눅 24:25 — 인용 / 24:26 — 인용

16. 눅 24:27 — 인용

17. 눅 24:28 — 인용 / 24:29 — 인용

18. 눅 9:12 — 인용(부분) / 9:16 — 요약 / 22:19 — 요약

19. 삿 13:15-16 — 요약 / 13:19-21 — 요약

20. 눅 24:30-31 — 인용

21. 창 3:7 — 인용(앞부분) / 3:8 — 요약

22. 눅 24:32 — 인용

23. 창 28:16 — 인용(뒷부분)

24. 눅 24:33 — 인용

25. 눅 24:34 — 인용 / 24:35 — 인용

26. 눅 24:19 — 인용(부분, '무슨 일이냐', 우리 자리)

27. 눅 24:26 — 인용(우리 자리)

28. 눅 24:28-29 — 요약(우리 자리)

29. 창 28:16 — 인용(뒷부분, 우리 자리)

30. 눅 24:21 — 요약 / 딛 2:14 — 인용(앞부분)

31. 눅 24:36 — 인용(앞부분)

32. 눅 24:29 — 인용(부분, 마침 기도)

※ '가리어져서'(16절)와 '밝아져'(31절)를 원고가 "같은 수동의 꼴"이라 하고, 창 3:7과 눅 24:31을 "같은 꼴"(칠십인역)이라 함 — 역본에서 두 곳 낱말이 다르면 그 문장 조정 필요. '속량'(24:21 ↔ 딛 2:14)도 같은 낱말로 옮겼는지 확인.

※ 9:12 '날이 저물어 가매'와 24:29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 원고가 이어 읽음. 역본에서 표현이 크게 다르면 조정.

※ '예수께서 친히'(15절) — 개역개정 15절에는 '친히'가 없어 원고가 헬라어로 설명함. 'Jesus himself'로 옮긴 역본은 그 문장 줄여도 됨.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해 기울 무렵 시골길에서, 자기들이 바랐던 사람이 사흘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낯선 길동무에게 털어놓은 두 사람 — 그 길동무가 바로 그 사람 → 글로바와 이름 없는 한 사람

- 흔한 생각: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린 식탁의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스물세 절 가운데 식탁은 두 절 — 이야기의 몸은 길 /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길(9:51과 반대) — 주님은 불러세우지 않고 그 쪽으로 함께 걸으심 / '바랐노라'는 소망이신 분 곁에서 한 과거형 / 끝을 확인하려고 센 '사흘째'가 약속의 날 / 두 사람이 돌아본 것은 식탁이 아니라 길(32, 35절)

- 원포인트: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 여운 "알아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함께 걷고 계셨으니까요.")

- 원어 포인트: 친히(αὐτός, 15절), 가리어져서·밝아져(수동, 16·31절 — 칠십인역 창 3:7), 주고받고(ἀντιβάλλω), 체류하면서도(παροικέω — 나그네), 바랐노라(미완료), 속량(λυτρόω ↔ 딛 2:14)

- 평행본문 세 장면: 벧엘의 야곱(창 28:11-16 —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던 해 진 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마노아의 손님(삿 13:15-21 — 머물기를 청한 손님, 사라진 뒤에야 알아봄) · 첫 동산의 두 사람(창 3:7-8 — 먹고 눈이 밝아져 숨음 ↔ 엠마오에서 눈이 밝아져 달려감) — 각각 15-16·32절, 28-31절, 31절을 받침

- 복선과 회수: 4/4 '내가 주를 보았다'(요 20:18) →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림(눅 24:11) / 4/4 동산지기로 안 마리아 → 길동무로 안 두 사람 / 4/4 '무슨 일이냐'(하갈) → 19절 '무슨 일이냐' / 9:51 예루살렘을 향한 얼굴 ↔ 등진 두 사람 → 33절 돌아감 / 9:12 저물어 가는 빈 들의 떡 → 24:29-30 / 16절 가리어짐 → 31절 밝아짐 / 36절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 4/18(같은 저녁의 방 안)

- 우리 자리: 과거형 소망('바랐노라') —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길 / 꾸짖지 않고 함께 걸으며 '무슨 일이냐' 묻고 끝까지 들으시는 주님(기도) / 끝이라 부르는 일을 다시 들려주심(26절) /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 붙들어 모시기를 기다리심 / 이름 없는 길동무가 되어 주기 /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함께 계셨던 분

- 그리스도 착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24:21) — 소망은 틀리지 않았고 작고 일렀을 뿐 →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24:26) → 자신을 주심으로 속량하심(딛 2:14 — 같은 동사) → 사흘째 살아나 그 길을 함께 걸으심 → 보이지 않게 되신 주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서심(24:36)

- 중심 그림 하나: 길 위의 낯선 길동무(두 사람 곁의 세 번째 사람) — 처음(해 기우는 시골길, 예루살렘을 등진 두 사람 뒤로 다가오는 세 번째 사람) · 중간(해가 진 들판의 돌베개 야곱 / 마노아 제단의 불꽃 / 마을 어귀에서 '더 가려 하는' 길동무를 붙드는 두 손) · 끝(떡을 떼는 손 → 비어 있는 그 자리 → 밤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석양 속 시골길에 길게 드리운 세 사람의 그림자, 가운데 사람은 뒷모습). 2/28의 '떡', 10/25 「작은 식탁에서」의 '식탁', 1/31의 '밤길'과 겹치지 않게 식탁과 밤길은 끝 장면의 한 컷씩만 — 2026-10-25 「작은 식탁에서」가 엠마오 식탁(눈이 밝아져)을 이미 그렸으므로 [흑백→컬러]는 이번엔 식탁보다 '길을 돌아보는 두 사람'에 두기를 권함

- 제목: 「엠마오로 걷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걷는). 다른 후보: 「등을 돌리고 걷는 사람들」, 「저물녘에 붙드는 사람들」. 1/3 「울면서도 함께 가는」, 1/31 「밤길을 가는」과 겹치지 않게 '가는'을 피함

- 네 편 비교(부활절기): 3/28 향품 그릇 ·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 착지 고전 15(못 박히신 분의 부활 → 첫 열매 → 우리의 무덤) / 4/4 동산 ·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 착지 요 11(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이름을 부르신 주님) → 십자가 곁 → 계 21:4 / 4/11 낯선 길동무 ·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 착지 눅 24:26 고난과 영광 → '속량'(24:21 ↔ 딛 2:14) / 4/18 방 한가운데 ·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 착지 십자가 가운데(요 19:18) → 방 가운데(20:19, 26) → 보좌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계 5:6). 부재(3/28) · 이름(4/4) · 동행(4/11) · 한가운데(4/18)로 나눔.

-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간 곳: 2026-10-25 「작은 식탁에서」는 엠마오 식탁·성경을 풀어 주심(아볼로의 '더 정확하게', 빌립과 내시)을 썼으므로, 이번엔 원포인트를 식탁·성경 풀이가 아니라 '떠나가는 길의 동행'에 두고 빌립과 내시(행 8)는 쓰지 않음. 2/28(떡 — 고전 11:23-26 착지)·3/25 매일묵상(눅 22 아닌 막 14:22 '이것은 내 몸')과 겹치지 않게 떡을 떼는 장면은 9:16·22:19를 한 문단으로만 부르고 착지로 삼지 않음. 3/14가 쓴 눅 24:46-47은 쓰지 않음.

- 매일묵상과 다르게 간 곳: 같은 주 평일 4/5-4/10(막 12:35-14:31) — 4/9 '깨어 있으라', 4/10 '다 버릴지라도'와 겹침 없음. 4/20 막 16:12-13(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심)은 4/20의 결론('온 천하에 다니며')과 다른 길. 4/21·4/28의 '나그네'(벧전 1:1; 2:11)와 겹치지 않게 '나그네'는 18절 뜻풀이로만 두고 중심어로 삼지 않음, 벧전 1:18-19(4/24)는 카드로.

- 사실 지킴: 엠마오 위치·떠난 까닭·눈이 가려진 까닭은 '말하지 않습니다/확실하지 않습니다'로 / 글로바 이름을 증인의 표로 보는 것은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 주고받고를 다툼으로 보는 것은 '~였을 수도 있습니다'.

- 확인 필요: 삿 13장(개역개정 대조 못 함 — 원고는 인용 없이 풀어 씀).

- 계획과 다른 곳: 없음(엠마오 가는 길 — 떡을 떼실 때). 다만 무게를 식탁보다 길에 둠(위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간 곳').

2027년 4월 18일 주일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요한복음 20:19-29 · 본문 요한복음 20:19-29 (요한계시록 5:6)

성경에는 여드레 사이를 두고 같은 방에 두 번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 다 그들은 문을 닫아걸었고, 두 번 다 누군가 와서 그들 한가운데 섰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는 첫 번째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한 제자, 믿음 없는 사람의 본보기로 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은 여러 나라 말에서 관용어처럼 쓰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으면, 이 장면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린 사람은 도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저녁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을 이미 들었는데도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 다 그들을 꾸짖으며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를 가운데라고 적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계시던 자리도 가운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를 향해 갑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문이 닫힌 방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 밤에 일어나 이십오 리를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길에서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적습니다. 요한이 오늘 들려주는 것은 바로 그 저녁, 그 방 안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저녁을 누가는 문 밖에서 달려온 사람들의 눈으로, 요한은 문 안에 숨은 사람들의 눈으로 적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이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저녁입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요한은 문을 여러 개라고 적고, 헬라어로는 닫힌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꼴로 적습니다. 바깥문과 안쪽 문을 다 닫아걸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도 적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흘 전 스승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 전체보다, 예수님을 넘겨준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방 안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이 어디였는지도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지만, 성경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석 달 전 우리는 성전 문이 등 뒤에서 닫히던 날의 바울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문 안쪽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밀어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날 아침 마리아에게서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빈 무덤을 직접 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두려움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는 가룟 유다도, 도마도 없었습니다. 남은 제자들과 함께하던 몇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날 저녁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고까지 적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과,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는 것만 적습니다. 문 앞에서 두드리지도, 창가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셨습니까? 방 한가운데, 두려워 모여 앉은 사람들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둘러앉은 사람들의 한가운데였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나 똑같이 가까운 자리입니다.

가운데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요한이 앞에서 이 말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장면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사흘 전 주님은 두 죄수 사이, 십자가들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말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 사람들이 늘 나누던 인사 샬롬입니다. 샬롬은 다툼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깨어진 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잡히시던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을 혼자 두고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평강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탁에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두려워 문을 닫아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평강을 건네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보이신 것은 상처였습니다. 못 자국 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를 찔린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만 적었습니다. 그 상처가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라는 표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에서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살아나신 분은 여전히 못 박히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닫힌 방의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평강을 한 번 더 건네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문을 닫은 사람들을, 주님은 그 문 밖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갈 힘은 그들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이 그 힘을 말해 줍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고 옮긴 헬라어는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옮긴 구약성경에서는 이 말을 창세기 2장에서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처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동작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닫힌 방 안의 제자들도 주님의 숨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 가운데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살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답할 수 없는 물음을 하나님께 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뼈들이 누구인지 알려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닫힌 방 안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헬라어로 옮긴 구약성경은 이 불어서라는 말도 요한과 같은 말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습니다.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불어온 생기가, 닫힌 방 가운데 서신 주님의 숨이 되어 제자들에게 불어왔습니다.

23절에서 주님은 그 숨과 함께 죄 사함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교회 안에서도 오래 의견이 갈려 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죄 사함의 소식이 이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혼자 두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전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방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방이 되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두려움은 바깥에서 왔지만, 그 방에서 시작된 평강은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4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두 번 앞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겠다고 하시자,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그 마지막 식탁에서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동안 도마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직한 물음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지난주 우리는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며 달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이 여럿의 말이 되어 도마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요구한 것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표적이나 큰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흘 전 도마는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표를 구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구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한 조건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은 그 당시 셈법으로 보면 다음 주 같은 요일, 곧 다시 돌아온 안식 후 첫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눈여겨볼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그 방으로 돌아왔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그를 그 자리에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도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오셨고, 또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주님은 도마를 향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은 여드레 전 도마가 한 말과 거의 그대로 겹칩니다. 손가락, 손, 옆구리입니다.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방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지 요한은 적지 않습니다. 성경이 적은 것은 도마의 대답입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높은 고백이 의심 많은 제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복은 그 방에 없던 모든 사람에게로 열려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첫날 저녁의 닫힌 방에서, 여드레 뒤 같은 방의 고백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방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에는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걸어 잠근 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닫은 문도 있고, 또 상처받을까 봐 닫은 문도 있습니다. 작아진 교회가 바깥을 두려워하며 안으로만 문을 닫아걸 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첫날 저녁의 제자들처럼, 여드레 뒤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 문을 닫은 것이 꼭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살아남으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닫힌 문 안으로 오셔서, 문 앞이 아니라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장 짙게 모여 있는 그 한복판이 주님이 서시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에라고 옮긴 말도 가운데라는 같은 말입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의 작은 모임 한가운데도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도마가 있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첫 모임에 함께하지 못해 소식을 남에게서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도마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를 탓하며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해 주었고, 여드레 뒤 그를 다시 그 방에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돌아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에, 도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에도 그런 빈자리 하나가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마의 자리에 앉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중얼거린 의심도, 기도라고 하기 어려운 탄식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꾸짖으며 오시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상처 난 손을 내미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그 손을 내미신 뒤에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서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을 세 자리의 가운데에 세웁니다. 먼저 골고다였습니다. 두 죄수 사이, 십자가들의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리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닫힌 방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은 두려워 숨은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보이셨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평강의 증거가 되었고, 도마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내미신 그 손은 우리를 위해 못 박혔던 손이고, 그 옆구리는 우리를 위해 찔렸던 옆구리입니다. 부활은 그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영원히 살아 있는 사랑의 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밧모 섬에서 본 환상 가운데 그 자리를 한 번 더 보여 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늘 보좌의 한가운데에 서 계신 분이, 죽임을 당한 흔적을 지닌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늘의 무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닫힌 방에서 도마가 드린 고백이, 하늘에서는 모든 무리의 노래가 됩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 요한은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가운데, 닫힌 방의 가운데, 하늘 보좌의 가운데 서신 분이, 오늘도 교회들 사이를 거니십니다. 작고 두려운 교회의 가운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 앉은 그 자리의 한가운데에도, 그분은 상처 난 손으로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두 죄수 사이 골고다의 십자가, 첫날 저녁 닫힌 방의 한복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기드온이 양털을 둔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뒤 같은 방에서, 상처 난 손 앞에 선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에 서신 분은 한 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이십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로 오시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근 우리의 방 한가운데 오늘도 서 주소서. 평강을 건네시고, 상처 난 손을 보여 주시며,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의심하는 이가 돌아와 앉을 자리를 우리 가운데 남겨 두게 하시고, 우리도 도마와 함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목사님 묵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공부거리

1. '가운데' μέσος — 요 19:18(μέσον δὲ τὸν Ἰησοῦν), 20:19, 26(εἰς τὸ μέσον), 눅 24:36(ἐν μέσῳ αὐτῶν), 마 18:20(ἐν μέσῳ αὐτῶν — 개역개정 '그들 중에'), 계 1:13(ἐν μέσῳ τῶν λυχνιῶν — '촛대 사이에'), 5:6(ἐν μέσῳ τοῦ θρόνου — '보좌와 … 사이에'). 개역개정이 '가운데/중에/사이에'로 갈라 옮겨 우리말로는 실이 다 보이지 않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같은지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림 — 원고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으로만.

2. '숨을 내쉬며' ἐνεφύσησεν — 신약에 여기뿐. 칠십인역 창 2:7(ἐνεφύσησεν), 겔 37:9(ἐμφύσησον), 지혜서 15:11. 요 20:22와 행 2장(오순절)의 관계는 해석이 여럿(요한의 오순절, 미리 주심 등) — 5/16 성령강림절 이야기 자리라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23절(죄 사함의 권세)도 교파마다 해석이 갈림 — 원고는 "의견이 갈려 왔다"로만.

3. '문들을 닫았더니' τῶν θυρῶν κεκλεισμένων(완료 분사, 복수). '유대인들' Ἰουδαῖοι — 요한복음에서 대개 예수께 적대한 지도층을 가리킴(7:13; 9:22; 19:38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원고는 이 점을 한 번 밝혀 둠(번역·선교용으로 특히 필요).

4. 도마 — 11:16; 14:5; 20:24-29; 21:2. 디두모(Δίδυμος) = 쌍둥이(아람어 '도마'도 쌍둥이). 28절 ὁ κύριός μου καὶ ὁ θεός μου — 요 1:1, 18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θεός라 부르는 곳.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dominus et deus noster)'으로 불리기를 원했다는 수에토니우스의 기록과 견주는 해석이 있음(카드용).

5.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 벧전 1:8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와 짝. 4/22 매일묵상(벧전 1:3-9) 자리라 원고는 한 문장으로만 두고 결론으로 삼지 않음. 30-31절(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본문 밖이라 다루지 않음.

목사님께 드리는 묵상 질문

- 목사님이 지금 걸어 잠근 문은 무엇입니까? 그 문 안, 두려움이 가장 짙은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서신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 목사님 곁의 '도마'는 누구입니까? 그가 돌아와 앉을 빈자리를 우리 모임은 남겨 두고 있습니까?

■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대조: churchofjesuschrist.org 한국어 성경 장별 대조(2026-10-25) — 이 사이트는 개역개정을 고친 본문이라 기억한 개역개정과 같은 곳만 대조된 것으로 봄. 요 1, 11, 14, 16, 19, 20장 · 눅 24장 · 창 2장 · 겔 37장 · 삿 6장 · 마 18장 · 계 1, 5장은 기억과 같음. 다른 곳은 아래 ※.

1. 요 20:19-29 — 요약(도입) / 20:25 — 요약

2. 요 20:18 — 인용(부분, '내가 주를 보았다') / 19:18 — 요약

3. 요 20:19 — 인용

4. 눅 24:33-35 — 요약(지난주) / 24:36 — 요약 / 24:29 — 요약

5. 요 20:19 — 인용(부분,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6. 행 21:30 — 요약(석 달 전, 1/10 이야기)

7. 요 20:18 — 인용(부분) / 20:8 — 요약 / 눅 24:37 — 요약

8. 요 19:18 — 인용

9. 요 20:19 — 인용(끝부분) / 16:32 — 인용(앞부분)

10. 요 14:27 — 인용

11. 요 20:20 — 인용 / 19:34 — 요약

12. 막 16:6 — 인용(부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13. 요 16:22 — 인용

14. 요 20:21 — 인용(뒷부분) / 20:22 — 인용

15. 창 2:7 — 인용

16. 겔 37:1 — 요약 / 37:2 — 인용(뒷부분) / 37:3 — 인용(나누어)

17. 겔 37:11 — 인용(뒷부분)

18. 겔 37:9 — 인용(뒷부분) / 37:10 — 요약 / 37:12 — 인용(부분)

19. 요 20:23 — 요약

20. 요 20:24 — 인용

21. 요 11:7-8, 16 — 요약 / 11:16 — 인용(뒷부분)

22. 요 14:4 — 요약(풀어 씀) / 14:5 — 인용 / 14:6 — 인용(앞부분)

23. 요 20:25 — 인용

24. 삿 6:36 — 요약 / 6:37 — 인용 / 6:38 — 인용(앞부분, '그대로 된지라')

25. 삿 6:39 — 인용(앞부분) / 6:40 — 인용(앞부분)

26. 요 20:26 — 인용

27. 요 20:27 — 인용

28. 요 20:28 — 인용

29. 요 1:1 — 인용

30. 요 20:29 — 인용

31. 마 18:20 — 인용

32. 요 20:25-26 — 요약(우리 자리) / 20:27 — 인용(부분)

33. 요 19:18 — 요약(그리스도 착지) / 20:20, 27 — 요약

34. 계 5:6 — 인용(앞부분) / 5:12 — 인용

35. 계 1:12-13, 20 — 요약

36. 요 20:28 — 인용(마침 기도)

※ 요 14:4 — 사이트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 기억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 확인 필요. 원고는 인용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을 때"로 풀어 씀.

※ '가운데'(요 19:18; 20:19, 26 ↔ 마 18:20 '중에' ↔ 계 5:6 '사이에') — 원고가 "같은 말"이라 함. 역본에서 'in the midst'처럼 이어지면 그대로, 아니면 그 문장 조정 필요.

※ '숨을 내쉬며'(요 20:22) ↔ '불어넣으시니'(창 2:7) ↔ '불어서'(겔 37:9) — 원고가 칠십인역 기준으로 "같은 말"이라 함. 역본 낱말이 다르면 조정.

※ '여드레를 지나서'(26절) — 원고는 '다음 주 같은 요일'로 설명함. 'eight days later'로 옮긴 역본은 그 설명 문장이 필요함, 'a week later'로 옮긴 역본은 줄여도 됨.

■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여드레 사이를 두고 같은 방에 두 번 모여 두 번 다 문을 닫아건 사람들, 두 번 다 누군가 와서 한가운데 섬, 두 번째엔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사람이 함께 있음 → 도마

- 흔한 생각: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사람의 본보기로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두려워 문을 닫은 것은 도마가 아니라 소식을 이미 들은 제자들 모두(19절), 여드레 뒤에도 문은 닫혀 있음(26절) / 주님은 두 번 다 꾸짖지 않고 '가운데' 서서 평강부터 / '가운데'는 십자가의 자리(19:18) / 도마가 요구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처 — 주님은 없던 자리에서 한 그의 말을 그대로 들으셨음(25 ↔ 27절) / 요한복음 최고의 고백이 의심한 제자의 입에서

- 원포인트: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 여운 "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로 오시니까요.")

- 원어 포인트: 가운데(μέσος — 19:18; 20:19, 26; 마 18:20; 계 5:6), 문들을 닫았더니(완료, 복수), 숨을 내쉬며(ἐμφυσάω — 창 2:7; 겔 37:9 칠십인역), 디두모(쌍둥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1:1과 짝)

- 평행본문 세 장면: 마른 뼈 골짜기의 에스겔(겔 37:1-12 — '골짜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생기를 불어 넣음) · 기드온의 양털(삿 6:36-40 — 의심하는 사람이 말한 조건을 '그대로' 들어주신 하나님) · 보좌 가운데 선 어린 양(계 5:6, 12; 1:13, 20 — 그리스도 착지) — 각각 22절·25-27절·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4/11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눅 24:36) → 같은 저녁 요한의 방 안 / 4/4 '내가 주를 보았다'(20:18) →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20:25) / 3/28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 상처를 지우지 않으신 몸 / 1/10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문 밖으로 밀려남) ↔ 오늘 문 안에 스스로 갇힘 / 11:16 '함께 죽으러 가자', 14:5 정직한 물음 → 28절 고백 / 16:32 '나를 혼자 둘 때' → 20:19 평강 / 16:22 '다시 너희를 보리니 … 기쁠 것' → 20:20 기뻐하더라

- 우리 자리: 걸어 잠근 문(세상·상처·작아진 교회의 두려움 — 살아남으려고 닫은 문도 있음) / 문을 부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한가운데로 오시는 주님, 마 18:20 두세 사람의 가운데 / 우리 가운데의 도마 — 돌아와 앉을 빈자리 남겨 두기 / 없는 자리에서 한 의심과 탄식도 들으시는 주님

- 그리스도 착지: 십자가들의 가운데(요 19:18 — 가장 낮은 자리) → 닫힌 방 가운데 상처를 보이심(20:20, 27 — 상처가 평강의 증거) → 보좌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계 5:6), 하늘의 노래(5:12)가 도마의 고백을 잇다 → 일곱 금 촛대 사이(계 1:13, 20 — 오늘의 작은 교회 가운데)

- 중심 그림 하나: 방 한가운데 — 처음(등잔 하나 켠 닫힌 방, 빗장 걸린 문들, 둘러앉은 제자들 사이의 빈 한가운데) · 중간(골고다 세 십자가의 가운데 /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선 에스겔 / 타작마당의 양털 / 여드레 뒤 같은 방, 도마 앞에 내민 손) · 끝(보좌 가운데 선 어린 양 → 오늘의 작은 모임 한가운데의 빛).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 닫힌 방 한가운데에 선 주님의 뒷모습과 그를 둘러싼 얼굴들, 빗장 걸린 문은 그대로). 1/10의 '문'과 3/14의 '열린 문'과 겹치지 않게 중심은 문이 아니라 한가운데에 둠 — 손을 중심으로 한 표본(10/18)과도 겹치지 않게 손은 27절 장면에서만

- 제목: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도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방에 세우려고. 1/10 「닫힌 문 밖에 선 사람들」과 짝(밖 ↔ 안). 다른 후보: 「여드레 뒤 다시 모인 사람들」, 「상처를 보여 달라는 사람들」

- 네 편 비교(부활절기): 3/28 향품 그릇 ·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 착지 고전 15(못 박히신 분의 부활 → 첫 열매 → 우리의 무덤) / 4/4 동산 · "울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 착지 요 11(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이름을 부르신 주님) → 십자가 곁 → 계 21:4 / 4/11 낯선 길동무 · "떠나가던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 착지 눅 24:26 고난과 영광 → '속량'(24:21 ↔ 딛 2:14) / 4/18 방 한가운데 · "두려움의 한가운데가, 주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 착지 십자가 가운데(요 19:18) → 방 가운데(20:19, 26) → 보좌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계 5:6). 부재(3/28) · 이름(4/4) · 동행(4/11) · 한가운데(4/18)로 나눔.

-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간 곳: 표본(10/18)이 착지에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보라'를 썼으므로 이번엔 손이 아니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손은 본문 낭독과 착지의 한 문장으로만. 1/24가 쓴 요 16:33('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은 피하고 16:32만 씀. 1/17이 쓴 '내 형제들'은 쓰지 않음.

- 매일묵상과 다르게 간 곳: 같은 주 평일 4/12-4/17(겟세마네·잡히심·공회·베드로 부인·빌라도·가시관) — 베드로 부인(4/15)은 다루지 않음(5/2 몫이기도 함). 4/20 막 16:14(열한 제자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심)·16:15(온 천하에 다니며)와 겹치지 않게 21절 보내심은 두 문장, 결론은 '보내심'이 아니라 '가운데'. 4/22(벧전 1:8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와 겹치지 않게 29절은 한 문장만. 5/16 성령강림절과 겹치지 않게 22절은 창 2:7·겔 37의 '숨'으로만 읽고 성령론으로 넓히지 않음. 4/25·5/2(요 21장 숯불·베드로 회복)는 미리 쓰지 않음.

- 사실 지킴: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도마가 왜 없었는지, 실제로 손을 넣었는지 — 요한이 말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방이 마지막 만찬의 방이었다는 것은 짐작이라고 밝힘 / '유대인들'의 뜻을 밝힘.

- 확인 필요: 요 14:4(위 ※ — 원고는 풀어 씀).

- 계획과 다른 곳: 없음(닫힌 문과 도마 — "나의 주님이시요").

2027년 4월 25일 주일

숯불 앞에 앉는 사람들

요한복음 21:1-14 · 본문 요한복음 21:1–14 (시편 23:5)

성경에는 밤새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어 가는 바닷가에서 이미 피워져 있는 숯불과 생선과 떡을 마주했습니다. 배 위에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배를 끌고 돌아온 물가는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장면을 들으면 우리는 옛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큰 물고기 백쉰세 마리를 잡은 기적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해변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아 온 물고기로 아침 상을 차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빈 그물을 당기던 동안, 주님은 이미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해변의 숯불과 아침 식탁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의 닫힌 방을 나와 갈릴리 호수로 간 일곱 사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의 닫힌 방에서 여드레 사이를 두고 두 번이나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날 저녁에도, 도마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도 주님은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서 평강을 건네셨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자리는 걸어 잠근 방에서 탁 트인 갈릴리의 물가로 옮겨집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갈릴리 바다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이 물가를,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헤롯 안디바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서편에 세운 도시가 디베랴였기 때문입니다.

2절은 그 물가에 함께 있던 일곱 사람을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던 도마가 이제 베드로 곁에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름이 적히지 않은 제자 둘까지 일곱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요한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옛 삶으로 되돌아간 불신앙이었다고 단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본문은 그들을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평생 손에 익은 그물을 들고 나가 하루의 양식을 구하려 했다고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결과는 한 줄로 적힙니다.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숨고, 밤이 되어 물이 식어야 물가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빈 그물만 올라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자주 사람의 힘으로 길을 찾지 못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장 잘 아는 바다에서 밤새 애썼지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은 이제 막 아침이 되어 가는 어스름한 시각을 가리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어부들에게 가장 어깨가 무거운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서셨으나라고 옮긴 동사는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꼴입니다. 제자들이 빈 그물을 거두며 한숨을 내쉬던 시간보다 먼저, 주님은 호숫가에 나와 계셨습니다. 물안개가 낀 어스름 속이라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거기 서 계셨습니다.

5절에서 물안개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고 옮긴 헬라어 파이디아는 어른이 젊은이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기라고 옮긴 프로스파기온은 떡에 곁들여 먹는 반찬거리, 곧 생선 한두 조각을 가리킵니다. 아침에 떡과 함께 먹을 생선 한 마리라도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단 한 마디였습니다. 없나이다. 헬라어로는 우, 곧 아니요라는 한 음절짜리 짧은 대답입니다. 밤새 그물을 당기느라 팔이 굳어 버린 사람들이 길게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빈손인 줄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고, 그 짧은 없나이다를 입 밖으로 꺼내 놓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는 뭍에 서 있는 사람이 물빛을 보고 고기 떼의 위치를 알려 주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밤새 허탕을 친 어부들에게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말은 쉽게 따르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배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몇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같은 물이었고, 날이 밝아 오면 물고기는 더 잡히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지지 않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비어 있던 그 물에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아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받던 날의 아침에도 어부들은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고, 두 배에 채우매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침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처음 빈 밤 끝에 찾아온 고기 잡이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께 떠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해가 지난 이 두 번째 아침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고,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벗고 있었다는 말은 일하기 편하도록 겉옷을 벗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약 구십 미터쯤 되는 오십 칸 거리를 기다리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던 날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속으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부인한 밤을 지나오며,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물에서 걸어 나온 베드로와 그물을 끌고 올라온 제자들의 눈앞에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변의 모래 위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으며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고 옮긴 헬라어 안트라키아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단 두 번만 나오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 앞서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 주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집 뜰입니다.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 베드로가 서서 쬐던 불이 바로 안트라키아, 숯불이었습니다. 새벽 바닷가에서 타오르는 숯불의 연기와 냄새는 사흘 전 밤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를 단숨에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숯불 위에는 심문하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아니라, 지글거리며 익어 가는 생선과 따뜻한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해변의 숯불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리는 승리를 본 직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한 마디에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홀로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왜 도망쳐 왔느냐고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몸을 어루만지시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어 먹이셨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로뎀 나무 아래에서도,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숯불에 떡을 구워 먹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침에도, 주님은 식탁을 차려 두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서 이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차려 두신 것만으로도 일곱 사람이 아침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두었으니 너희가 끌어 온 그물은 쓸모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차려 놓으신 식탁 위에, 제자들이 젖은 손으로 끌어 올린 생선도 함께 얹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였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백쉰세 마리라는 숫자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4세기의 제롬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물고기 종류가 백쉰세 가지여서 온 열방의 백성을 뜻한다고 풀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부터 열일곱까지를 모두 더한 수라 하여 열 계명과 성령의 일곱 은사를 합한 수로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직접 그런 숨은 뜻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해 줄까요? 평생 고기를 잡아 온 어부들이 그날 아침 뭍에 올라와, 큰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세어 보며 기억해 둔 실제 숫자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요한이 그 정확한 숫자를 적어 둔 것은, 이 아침이 환상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세어 본 생생한 현장이었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의 첫 부르심 때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보내시는 자리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맡기실 다음 길에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그 찢어지지 않은 그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차가운 물바람을 맞으며 빈 그물과 씨름하고, 젖은 옷으로 올라와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건네신 첫 초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았기에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헬라어로 감히 묻다라고 옮긴 말은 용기를 내어 따져 묻는다는 뜻입니다.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닷가에서 손수 숯불을 피우고 아침밥을 차려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불빛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날 저녁 닫힌 방과 여드레 뒤 도마가 있던 방에 이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아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여 주시고, 구운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섬기는 분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조반을 다 먹기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느냐고도, 왜 대제사장 뜰의 숯불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15절, 곧 그들이 조반 먹은 후였습니다. 그 질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멈추는 자리는, 밤새 얼어붙은 손을 숯불 앞에 녹이며 허기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없이 떡과 생선을 건네시는 주님의 손과, 그것을 받아먹는 일곱 사람의 조용한 아침 식탁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침에도, 주님은 식탁을 차려 두십니다.

여기까지 밤새 빈 그물을 당기던 호수 위에서, 해변의 숯불 앞 아침 식탁까지 일곱 제자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바닷가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같은 아침이 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그런 빈 밤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일터에서 한 해의 수고가 허탈하게 끝날 때가 있고, 정성을 다해 돌보아 온 가정의 일이 제자리걸음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소수로 남은 우리의 작은 모임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자리를 지켰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축축하고 무거운 빈 그물뿐인 것 같은 새벽입니다.

그런 아침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무능함을 들추어내어 부끄럽게 하시려는 물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게 하시는 다정한 물음입니다. 없나이다. 이 짧은 한 마디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은 빈 배 안이 아니라 물가에 서 계신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뭍에 올라와 보면, 주님은 이미 해변에 숯불을 피워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배가득히 물고기를 잡아 가야만 주님 앞에 떳떳이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쉰세 마리쯤 되는 그럴듯한 열매를 들고 가야 주님이 나를 반겨 주실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디베랴 바닷가의 숯불과 생선과 떡은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 올리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어서 주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차려 두신 은혜의 식탁이 지치고 얼어붙은 우리를 녹이고 살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차려 두신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말씀을 따라 다시 던진 그물에서 건져 올린 우리의 작은 순종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차리신 식탁 위에 우리의 젖은 손이 거둔 수고를 함께 올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눈물과 작은 섬김도 주님의 식탁 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해변의 불은 대제사장 뜰의 불과 같은 숯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기억의 숯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지 않으시고, 똑같은 숯불 위에 따뜻한 떡과 생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식탁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먼저 손짓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해변에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 그 손길을 보며 한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기슭에 오천 명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신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21장 13절의 말씀과 6장 11절의 말씀은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다는 동작까지 그대로 포개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천 명을 먹이신 이튿날,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떡이 무엇인지 친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떡을 떼어 건네신 그 손은, 사흘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못 박히신 손이었습니다. 지난주 닫힌 방에서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바로 그 못 자국 난 손으로, 이제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침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를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밤의 어둠과 실패가 삼킬 듯이 마주 서 있던 자리에서, 부활하신 목자께서는 친히 숯불을 피우고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이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받아먹는 한 조각의 은혜도 그 영원한 식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물가와 식탁을 지나왔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디베랴 호수의 빈 배와 처음 부르심을 받던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물이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의 머리맡에 놓인 숯불에 구운 떡과, 오천 명을 먹이시던 들판과 새벽 해변에 피워진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셨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침에도, 주님은 식탁을 차려 두십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해변에 숯불이 피워져 있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우리의 아침에도 바닷가에 먼저 서 계셔 주소서. 없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빈 그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못 자국 난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 공부거리

1. '숯불' ἀνθρακιά(안트라키아, 21:9) — 신약성경에서 요 18:18(대제사장 뜰에서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피운 불, 베드로가 서서 쬐던 불)과 요 21:9 단 두 곳에만 쓰인 낱말입니다. 5/2 주일 본문(21:15-23)이 이 숯불 곁의 세 번 질문('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을 다루므로, 4/25 본문에서는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인의 자리였던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 아침 상을 차려 주신 주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얘들아' παιδία(파이디아, 21:5) — 요일 2:13, 18에서도 사도가 성도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고기' προσφάγιον(프로스파기온, 21:5) — 신약에 여기뿐인 단어로, 주식이 되는 떡(ἄρτος)에 곁들여 먹는 반찬(특히 구운 생선 조각)을 뜻합니다. 9, 10, 13절의 '생선'은 ὀψάριον(옵사리온 — 요 6:9, 11의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단어)이고, 6, 8, 11절의 '물고기'는 ἰχθύς(익투스 —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로 구분되어 쓰였습니다.

3. '백쉰세 마리'(153, 21:11) — 제롬(히에로니무스)은 『에스겔 주석』(겔 47:9-12 해설)에서 고대 박물학자 오피아누스를 인용해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라 하여 만민 구원의 상징으로 보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1부터 17(10계명+성령의 7은사)까지의 삼각수(합계 153)로 풀었습니다. 현대 주석가들(바우크함 등)은 어부 출신 목격자의 정확한 계수 기억으로 보는 견해와 상징적 숫자로 보는 견해로 갈립니다. 원고는 두 전승을 소개하되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은 구분했습니다.

4. 요한복음 21장의 위치 — 20:30-31이 책의 맺음말 형태를 띠고 있어 21장을 후대 편집자의 부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현존하는 모든 헬라어 사본에 21장이 포함되어 있고 문체와 어휘가 1~20장과 긴밀히 맞물려 있어(18:18의 숯불, 6:11의 떡과 생선, 13:23의 사랑하시는 제자 등) 처음부터 한 몸으로 기록된 에필로그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5. 4절 '서셨으나' ἔστη(제2부정과거이나 완료적 의미로 '서 계셨다'), 12절 '조반을 먹으라' ἀριστήσατε(이른 아침 식사를 하다, 신약에서 눅 11:37과 요 21:12에만 등장). 평일 매일묵상 진도(4/21~4/24 벧전 1:1-21)와 겹치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인용은 다음 주(5/2) 몫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묵상 질문

1. 목사님이 최근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느끼신 자리, 주님 앞에 짧게 '없나이다'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2. 내가 무엇인가를 잡아 가야만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다는 무거운 마음 대신, 이미 해변에 피워 두신 주님의 숯불 앞에 먼저 앉아 받아먹어야 할 위로는 무엇입니까?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1. 요 21:1-14 — 요약(도입)

2. 요 21:1 — 인용 / 요 20:19, 26 — 요약(지난주)

3. 요 21:2 — 인용 / 요 20:28 — 인용(부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 요 1:48-49 — 요약

4. 요 21:3 — 인용 / 마 28:7; 막 16:7 — 인용(부분,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5. 요 21:4 — 인용

6. 요 21:5 — 인용

7. 요 21:6 — 인용

8. 눅 5:1-3 — 요약 / 5:4 — 인용(뒷부분) / 5:5 — 인용 / 5:6-7 — 요약 / 5:8 — 인용

9. 요 21:7-8 — 인용

10. 요 21:9 — 인용

11. 요 18:18 — 인용

12. 왕상 19:1-4 — 요약 / 19:4 — 인용(뒷부분) / 19:5-6 — 인용 / 19:7 — 인용(뒷부분)

13. 요 21:10-11 — 인용

14. 요 6:39 — 인용

15. 요 21:12 — 인용

16. 요 21:13-14 — 인용 / 요 21:15 — 인용(부분,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 요 21:5 — 인용(부분, 우리 자리) / 21:10 — 인용(부분, 우리 자리) / 21:12 — 인용(부분, 우리 자리)

18. 요 6:9 — 요약 / 6:11 — 인용

19. 요 6:35 — 인용 / 6:51 — 인용

20. 시 23:5 — 인용

21. 계 19:9 — 요약(어린 양의 혼인 잔치)

22. 요 21:12 — 인용(앞부분, 마침 기도)

※ '숯불'(요 18:18 '불을 피우고' ↔ 21:9 '숯불') — 개역개정은 18:18에서 '불'로, 21:9에서 '숯불'로 옮겼으나 헬라어는 둘 다 ἀνθρακιά입니다. 번역 시 각 언어 역본에서 두 구절의 낱말이 다르면 원어의 같음을 설명하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살려 주세요.

※ '고기'(21:5 προσφάγιον)와 '생선'(21:9, 10, 13 ὀψάριον ↔ 6:9, 11 '물고기'), '물고기'(21:6, 8, 11 ἰχθύς) — 언어별 역본의 낱말에 맞춰 조정 필요.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밤새 호수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일곱 사람이 날이 새어 가는 바닷가에서 이미 피워져 있는 숯불과 생선과 떡을 마주하는 장면, 주님이라는 말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 → 시몬 베드로, 디베랴 호수

- 흔한 생각: 옛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흔들림이나 백쉰세 마리를 잡은 기적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제자들이 물고기를 끌고 올라왔을 때 해변에는 이미 숯불과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음(9절) — 제자들이 잡아 온 것으로 상을 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밤새 빈 그물을 당기는 동안 주님이 먼저 불을 피우고 조반을 차려 두심. 그러면서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10절) 하시며 그들의 수고도 식탁에 함께 올리심. 조반을 다 먹기까지 한 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심

- 원포인트: 빈손으로 돌아온 아침에도, 주님은 식탁을 차려 두십니다. (+ 여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해변에 숯불이 피워져 있으니까요.)

- 원어 포인트: 파이디아(얘들아 — 다정한 부름), 프로스파기온(고기 — 떡에 곁들이는 반찬 한 조각), 우(없나이다 — 한 음절 대답), 안트라키아(숯불 — 신약에서 18:18과 21:9 두 번뿐), 아리스테사테(조반을 먹으라)

- 평행본문 세 장면: 게네사렛 호숫가의 첫 부르심(눅 5:1-11 —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마는, 찢어진 그물, '주여 나를 떠나소서' ↔ 21장의 찢어지지 않은 그물과 바다로 뛰어내리는 베드로) ·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왕상 19:4-8 — 지쳐 쓰러진 선지자에게 묻기 전에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두어 두 번 먹이심) · 오천 명을 먹이신 들판과 선한 목자의 상(요 6:11, 35, 51; 시 23:5 —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 못 자국 난 손,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 주신 상) — 각각 6-8절·9절·13절과 그리스도 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4/18 닫힌 방의 두 번 나타나심과 도마의 고백 → 21:1-2 갈릴리 바닷가에 함께 있는 도마, 세 번째 나타나심(14절) / 요 18:18 대제사장 뜰의 숯불 → 21:9 해변의 숯불 / 눅 5:6 찢어진 그물 → 21:11 찢어지지 않은 그물(요 6:39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음) /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 5/2 「양을 먹이는 사람들」로 바통을 넘김

- 우리 자리: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빈손인 것 같은 아침(일터, 가정, 소수로 남은 작은 모임) /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 정직한 '없나이다'에서 시작되는 은혜 / 내가 잡아 가야 앉는 식탁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차려 두신 식탁, 그러면서도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며 작은 순종을 함께 올리심 / 부끄러운 기억의 숯불을 따뜻한 조반의 숯불로 바꾸시는 주님

- 그리스도 착지: 디베랴 건너편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신 손(요 6:11 ↔ 21:13) →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6:51) →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손으로 해변에서 조반을 차려 주심 →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목자(시 23:5) →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 19:9)

- 중심 그림 하나: 해변의 숯불 — 처음(어스름한 새벽 디베랴 호숫가, 멀리 빈 배 한 척과 물가에 피어오르는 작은 숯불 연기) · 중간(게네사렛의 그물 / 대제사장 뜰의 숯불 / 로뎀 나무 아래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 오천 명 들판의 떡과 물고기) · 끝(숯불 위 생선과 떡, 떡을 내미시는 주님의 못 자국 난 손과 둘러앉은 일곱 사람).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새벽 물안개 속 해변의 자갈 위에 붉게 타오르는 숯불과 그 위에 놓인 생선과 떡).

- 제목: 「숯불 앞에 앉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다른 후보: 「빈 배로 돌아온 사람들」, 「조반을 받아먹는 사람들」

2027년 5월 2일 주일

양을 먹이는 사람들

요한복음 21:15-23 · 본문 요한복음 21:15-23 (베드로전서 5:2)

성경에는 바닷가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연달아 받고 마침내 근심하며 대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밤 다른 불빛 앞에서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세 번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옛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고, 주님이 지어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 장면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세 번 부인한 제자에게 세 번 사랑을 물어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말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라는 말이 원어로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침에 지난 일을 한 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날 밤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으셨고, 앞으로는 다시 넘어지지 않겠느냐고 다짐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오직 하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뒤에는 매번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숯불 곁의 세 번 질문과 마지막 한 마디를 향해 갑니다. 조반을 마친 디베랴 바닷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난주 우리는 밤새 빈 그물만 당기던 일곱 제자가 날이 새어 가는 해변에서 주님이 피워 두신 숯불을 마주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친히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구운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은 아무 말씀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물바람에 언 몸이 녹고 빈속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비로소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 입을 여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부터 눈여겨볼 만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왔을 때 주님이 처음 지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데 이 아침에 주님은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 처음 만났을 때의 본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는 너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고 직분을 거두시는 꾸짖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은 베드로가 흔들리거나 깊은 말씀을 들어야 할 때면 시몬아 하고 본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반석처럼 굳건하리라 믿었던 자신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의 본래 이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옆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뜻으로 읽는 이들이 많고,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뜻으로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흐름 안에서 보면 앞의 읽기가 한결 자연스럽습니다.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은 그 장담이 있던 자리를 조용히 짚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남과 자기를 견주던 비교의 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덧붙입니다. 내 장담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에 자기를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양들을 가리켜 내 어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자리는 주님께 바치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주님이 아끼시는 약한 양들을 먹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숯불 곁의 질문 앞에서 떠오르는 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8장의 그 밤입니다. 잡히시던 밤 마지막 식탁에서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몇 시간 뒤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날이 추워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쬘 때 베드로도 그 숯불 곁에 서서 불을 쬐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두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묻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숯불 곁에서 세 번의 질문이 있었고, 세 번의 나는 아니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신약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말은 그 대제사장 뜰과 이 디베랴 바닷가 두 곳에만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른 곳에서 따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세 번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데려오셔서, 해변의 숯불 곁에서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그 상처를 덮어 주고 계셨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 없이, 오직 너와 나 사이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와 똑같이 대답하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앞서 먹이라라고 옮긴 말은 풀을 뜯게 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치라라고 옮긴 말은 목자가 양 떼를 돌보고 이끈다는 뜻입니다.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일을, 방금 전까지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해 무너졌던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던지시자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셔서 또 물으시나 싶었을 수도 있고, 세 번이라는 횟수가 대제사장 뜰의 세 번 부인을 가슴 아프게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밤 닭이 울 때 누가복음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눈물이 아직 다 마르지 않은 가슴에 세 번째 질문이 와닿은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세 번의 문답에 쓰인 헬라어 동사에 주목해 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동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주님이 베드로가 쓴 필레오라는 말로 내려오셔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는 거룩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라서,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 설명에도 귀담아들을 만한 결이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 보면 두 동사가 늘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쓰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두 동사가 다 쓰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킬 때도 두 동사가 번갈아 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과 양, 먹이라와 치라도 서로 다른 두 부류를 나눈 것이라기보다 요한 특유의 반복과 변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원어의 미묘한 차이보다 본문이 훨씬 더 크게 보여 주는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확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그럼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전지하심 위에 자기 사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사랑을 물으십니다.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먼 훗날로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은, 조금 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리던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늘 자기 열심과 자기 걸음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띠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십니다. 팔을 벌린다는 표현을 초기 교회는 십자가 형틀에 두 팔을 벌리는 순교의 모습으로 읽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승은 베드로가 훗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밤에는 자기 힘으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먹고 양을 먹이며 늙어 간 끝에는, 마침내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실 때와 똑같은 한 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말로 노년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어서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세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노년 사도의 가슴에 평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양들을 내 양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양 무리라고 부르며,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숯불 곁에서 받은 그 당부가 한 사람의 평생을 이끌어 양 무리의 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서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금방 눈물겨운 사랑 고백을 드리고 순교의 길까지 예고받은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 따라오는 제자를 보자 대뜸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한다면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갑니까 하고 옆 사람의 몫을 살핀 것입니다. 회복된 뒤에도 여전히 남과 나를 견주어 보는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 시선을 거두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그 제자가 오래 살든 일찍 가든, 평안한 길을 걷든 험한 길을 걷든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과 맺으신 몫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걸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오래도록 남아 교회를 지키며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달랐지만, 두 길 모두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귀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개를 옆 사람에게서 돌려 다시 당신에게로 맞추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헬라어 본문은 너는이라는 말을 앞으로 끌어내어 강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어떠하든, 너는 네게 맡겨진 양을 먹이며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아침 대화는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부름으로 마무리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사랑을 물으십니다.

여기까지 조반 먹은 뒤의 숯불 곁에서, 세 번의 질문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해변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서 장담했다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런 아픈 기억 하나쯤은 마음에 묻어 두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작 작은 시험이나 두려움 앞에서 쉽게 타협하고 입을 닫아 버린 날이 있습니다. 그 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과연 다시 쓰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싶어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지난 밤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무너진 마음 바닥에 아직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베드로처럼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남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큰소리치지 못합니다. 대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 흔들림도 아시고 내 진심도 아시는 주님께 기대는 그 정직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뒤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양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 무너져 본 적이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곁에 맡겨진 가족과 교우들, 소수로 남은 우리 모임의 지친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옆 사람을 살핍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해 보입니까. 왜 내 기도는 더디 응답되는데 다른 사람의 길은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비교의 물음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걸음과 다른 시간을 주십니다. 옆 사람의 길을 재어 보느라 내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앞서 걷는 다른 제자의 등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등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잡히시던 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은 원래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삯꾼과 선한 목자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러나 주님은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막상 어둠이 닥치자 양을 두고 달아나는 사람처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밤에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론 건너편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며 제자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에 올라 양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지키지 못한 그 말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먼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에서 말씀하신 내 양은,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양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께서, 이제 자기 죄를 알고 울던 제자에게 그 가장 귀한 양들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직 가지 않으신 길을 베드로 혼자 가라고 등 떠미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다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훗날 편지에 적은 것처럼, 언젠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으로 맺어질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불빛과 목자의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대제사장 뜰의 차가운 숯불 앞에서 세 번 부인하던 밤, 조반 먹은 뒤 디베랴 바닷가의 숯불 앞에서 세 번 사랑을 물으시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도가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하던 편지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무너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세우셨으며,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랑을 물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사랑을 물으십니다.

대답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장담했다가 무너진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다시 앉습니다. 남의 길을 돌아보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선한 목자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양들을 우리도 사랑으로 먹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 공부거리

1. '사랑하느냐' — 15, 16절에서 예수님은 ἀγαπᾷς(아가파스, ἀγαπάω)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φιλῶ(필로, φιλέω)로 대답하며, 17절에서는 예수님도 φιλεῖς(필레이스)로 물으십니다. 또한 '먹이라'(15, 17절 βόσκε / 16절 '치라' ποίμαινε), '어린 양'(15절 ἀρνία / 16, 17절 '양' πρόβατα), '아시나이다'(15, 16, 17절앞 οἶδας / 17절뒤 γινώσκεις)에서도 동의어 변주가 일어납니다. 오리게네스·아우구스티누스 이래 요한복음의 문체적 동의어 변주로 보는 견해(요 3:35 ↔ 5:20; 13:23 ↔ 20:2 등에서도 두 사랑 동사가 교차 사용됨)와, 베드로의 낮아진 고백에 맞춰 주님이 내려오신 미묘한 어감 차이를 함께 인정하는 견해가 공존합니다. 원고는 두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했습니다.

2.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15, 16, 17절) — 마 16:17('바요나 시몬아')과 짝을 이루며, 요 1:42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신 호칭 그대로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시몬을 직접 부르실 때 '시몬아'(눅 22:31; 막 14:37)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자주 기록합니다.

3.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πλέον τούτων(15절) — τούτων(이것들/이 사람들, 남·중성 복수 속격)은 문법적으로 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비교 대상: 다른 제자들 — 요 13:37; 막 14:29의 장담과 연결), ② '네가 이것들(배·그물·어업 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③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목적어 비교)로 읽힐 수 있으나, ①이 고대 교부들 이래 가장 널리 지지받는 해석입니다.

4. 18-19절 '네 팔을 벌리리니(ἐκτενεῖς τὰς χεῖράς σου) 남이 네게 띠 띠우고' — 테르툴리아누스(『전갈 해독제』 15장)와 유세비우스(『교회사』 2.25; 3.1) 등 초기 기독교 문헌은 '팔을 벌린다'는 표현을 십자가 가로대에 두 팔을 벌려 묶이는 순교의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했으며, 베드로가 네로 박해기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합니다(거꾸로 못 박혔다는 전승은 외경 『베드로 행전』에 등장 —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5. 평일 매일묵상과의 관계 — 같은 주 금요일(5/7) 매일묵상 본문이 벧전 5:1-4('장로들에게 —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5/7 매일묵상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는 장로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5/2) 주일 이야기는 디베랴 해변에

서 '내 양을 먹이라' 들은 베드로가 노년에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여 '하나님의 양 무리'와 '목자장'으로 고백했는지를 비추는 다리로 삼았습니다.

■ 묵상 질문

1. 주님이 오늘 목사님께 지난날의 아쉬움이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2.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때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옆 사람의 길과 내 길을 비교하며 걸음이 무거워질 때, 주님이 맡기신 '내 양'과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목사님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놓습니까?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1. 요 21:15-23 — 요약(도입)

2. 요 21:15 — 인용(앞부분) / 요 21:9, 12-13 — 요약(지난주)

3. 요 1:42 — 인용

4. 요 21:15 — 인용(가운데·뒷부분, 나누어)

5. 요 13:36 — 인용(뒷부분) / 13:37 — 인용 / 13:38 — 인용

6. 요 18:17 — 인용(부분) / 18:18 — 요약 / 18:25 — 인용(부분) / 18:26-27 — 인용(부분)

7. 요 21:16 — 인용

8. 요 21:17 — 인용

9. 요 21:18-19 — 인용

10. 요 13:36 — 인용(뒷부분)

11. 벧전 5:1-2 — 인용 / 5:3-4 — 인용

12. 요 21:20-21 — 인용

13. 요 21:22-23 — 인용

14. 요 21:15-17 — 인용(부분, 우리 자리) / 21:21-22 — 인용(부분, 우리 자리)

15. 요 13:37 — 인용(부분) / 요 10:11 — 인용

16. 요 10:12 — 인용(앞부분) / 10:14-15 — 인용

17. 요 18:8 — 인용(부분)

18. 벧전 5:4 — 요약(그리스도 착지)

19. 요 21:17 — 인용(부분, 마침 기도)

※ 15-17절의 '사랑하느냐/사랑하는 줄'(ἀγαπάω ↔ φιλέω), '먹이라/치라'(βόσκω ↔ ποιμαίνω), '어린 양/양'(ἀρνία ↔ πρόβατα) — 언어별 역본에서 두 단어를 구분해 옮겼는지 같은 단어로 옮겼는지에 따라 원어 설명 문장을 자연스럽게 조정 필요.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바닷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똑같은 질문을 세 번 연달아 받고 근심하며 대답한 사람, 며칠 전 다른 불빛 앞에서 스승을 세 번 모른다고 했던 사람 →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 흔한 생각: 세 번 부인을 세 번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나 원어(아가파오·필레오)의 차이로만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주님은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지난 밤을 따지지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지도 않으시고 오직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심 /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를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에 기대어 고백함 / 그렇게 회복된 직후에도 뒤돌아 옆 사람('이 사람은 어떻게')을 묻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로 시선을 고정하심

- 원포인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사랑을 물으십니다. (+ 여운: 대답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 원어 포인트: 요한의 아들 시몬아(1:42 본래 이름), 이 사람들보다(πλέον τούτων — 13:37 장담과 대조), 먹이라(βόσκω)와 치라(ποιμαίνω), 아가파오·필레오와 오이다·기노스코(동의어 변주와 베드로의 낮아진 고백), 팔을 벌리리니(십자가 순교의 관용구), 너는 나를 따르라(σύ 강조)

- 평행본문 세 장면: 마지막 만찬과 대제사장 뜰의 숯불(요 13:36-38; 18:17-18, 25-27 —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장담과 숯불 앞 세 번의 '나는 아니라') · 노년 사도의 편지(벧전 5:1-4 — '내 양을 먹이라'를 평생 품고 '하나님의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권면한 베드로) ·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요 10:11-15; 18:8 — 베드로가 지키지 못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를 십자가에서 먼저 지키신 주님) — 각각 15-17절·18-19절·그리스도 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4/25 해변의 숯불과 조반(21:9, 12-13) →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21:15) / 요 1:42 '요한의 아들 시몬' → 21:15-17 세 번의 부름 / 요 13:36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 21:18-19 '나를 따르라' / 요 13:23-25 만찬석에서 품에 의지하여 묻던 제자 → 21:20 뒤따르는 그 제자

- 우리 자리: 장담했다가 무너진 기억 앞에서도 결심이 아니라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 /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 내 약함과 진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 기대는 고백 / 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양 무리 /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남의 길과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름

- 그리스도 착지: 베드로가 장담했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13:37)는 원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요 10:11, 15) → 삯꾼처럼 달아나지 않고 동산에서 제자들을 지키시며(18:8)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 피로 값 주고 사신 양들을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이미 걸어가신 발자취로 '나를 따르라' 부르심

- 중심 그림 하나: 숯불 곁의 두 사람과 해변 길 — 처음(조반이 끝난 해변, 사그라드는 숯불 연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주님과 고개 숙인 베드로) · 중간(대제사장 뜰의 숯불 앞 베드로 / 등잔 아래 편지를 쓰는 노년의 베드로 / 양 떼 앞의 선한 목자) · 끝(해변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뒷모습과 뒤를 돌아보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새벽빛이 밝아 온 해변, 숯불 곁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옆모습과 가슴에 손을 얹은 베드로).

- 제목: 「양을 먹이는 사람들」 — 눈에 보이는 동작. 다른 후보: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2027년 5월 9일 주일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12-26 · 본문 사도행전 1:12–26 (시편 133:1)

성경에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은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한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열한 사도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여인들과 주님의 어머니와 한때 주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그날 그 방에서 빈자리를 채우려 세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맛디아입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넘어가기 전의 짧은 막간으로 읽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제비 뽑아 열두 사도의 수를 채운 절차 이야기로만 읽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온 것은 2장에 가서입니다. 1장의 다락방에는 아직 바람도 불지 않았고 불의 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방 한구석에는 함께 밥을 먹고 길을 걷던 한 사람이 떠나 버린 쓰라린 빈자리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기다림의 방을 가리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적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다락방을 향해 갑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걸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지난주 우리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세 번 사랑을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마치신 뒤 주님은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제자들은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일러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곧 일 킬로미터 남짓한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몇 주 전 밤 그들이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바로 그 골짜기 길을,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품고 함께 걸어 돌아옵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라고 옮긴 헬라어 휘페로온은 집의 가장 위층에 있는 넓은 방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누가는 그 방에 모인 열한 사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뒤 열둘을 택하실 때 불렀던 그 명단과 겹칩니다. 다만 그때는 열둘이었는데 지금은 열하나입니다. 지난주 해변에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가 맨 앞에 서고, 닫힌 방에서 상처를 만져 보고자 했던 도마도,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도 다 거기 있었습니다. 한 번씩 흔들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한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그 방에 함께 있던 다른 얼굴들을 비춥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는 사도들의 이름 뒤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나란히 적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고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새벽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여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한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마지막입니다.

이 다락방의 마리아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의 자리입니다. 서른 해 남짓 전, 젊은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를 뉘어 놓고 목자들의 말을 들으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늙은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므온의 그 말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선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머니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 곁에 누가 함께 앉아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어 보면 주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친동생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여 붙들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한 집안 안에서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다른 아들들은 그 형을 믿지 못해 돌아서 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뒤, 그 동생들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던 십자가 아래를 지나온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온 아들들과 제자들 한가운데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을 이 다락방의 기도 자리로 남겨 둔 것은 참으로 깊고 따뜻한 여운을 줍니다.

누가는 그들이 모인 모습을 가리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적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옮긴 헬라어 호모뒤마돈은 사도행전이 가장 아끼는 낱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이루듯,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 박자로 어우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힘쓰더라라고 옮긴 말은 어떤 일을 옆으로 치우지 않고 줄기차게 붙들고 늘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전이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한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5절부터는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이어집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유대 전통에서 한 회당 모임을 이루는 최소 인원은 성인 남자 열 명이었지만,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약 백이십 명이었습니다. 온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성을 바꾸기에는 아주 작은 무리였지만, 한 다락방을 채우기에는 넉넉한 수였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며칠 전 해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부를 받았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 공동체 한가운데 일어서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는 모두가 마음 한편에 무겁게 담아 두고 있던 이름 하나를 꺼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아픈 상처는 바깥의 박해보다 안에서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거나 배신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는 유다가 처음부터 남이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삼 년 동안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같은 길을 걸으며 사도의 직무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18절과 19절은 누가가 독자들을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의 기록과 나란히 읽어 보면, 스스로 목을 맨 시신이 아래로 떨어져 그러한 최후를 맞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삯이 남긴 자리는 피밭이라 불리는 황폐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쓰라린 배신의 상처를 사람의 원망이나 분노로 풀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말씀을 펴서 그 아픔을 비추어 봅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앞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이고, 뒷구절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사십 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 배운 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의 시편에 미리 기록된 말씀이 응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빈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는 절망과 원망의 자리로 남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채워져야 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약속이 오기 전에도, 함께 모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가 되는 기준은 뛰어난 언변이나 높은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이 들어가고 나가실 때 늘 함께 걸으며 그분의 삶을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을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의 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그 열둘의 그릇을 온전히 갖추어 놓으려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백이십 명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두 사람 세워졌습니다. 요셉과 맛디아입니다. 그전까지 복음서에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름 없이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 걸었던 신실한 증인들이 그 다락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아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옮긴 헬라어 카르디오그노스타는 마음이라는 말과 안다는 말이 합쳐진 한 단어로,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왜 이 순간에 주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은 삼 년 동안 가룟 유다와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유다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제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썰미나 투표에 기대지 않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베들레헴 이새의 집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뿔병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노련한 선지자의 눈에도 엘리압이 왕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며 열왕기상 8장에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외모를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비뽑기는 우연에 맡기는 놀이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건한 방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세운 기록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 이 1장 26절이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는 제비를 뽑는 대신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세웁니다.

이 자리에서 맛디아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맛디아와 함께 세워졌으나 제비에 뽑히지 않은 바사바 요셉, 별명이 유스도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맛디아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갈 때, 그는 불평하거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 남았습니다. 뽑힌 맛디아와 뽑히지 않은 요셉이 다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무너졌던 열두 사도의 그릇이 온전히 다시 채워졌습니다.

약속이 오기 전에도, 함께 모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감람산에서 돌아온 걸음부터, 다락방의 한마음 기도와 맛디아를 세운 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다락방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은 들었지만 아직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내 삶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도 불지 않고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승천과 오순절 사이의 그 열흘처럼, 옛 시간은 끝났는데 새 시간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뒤에야 모인 것이 아니라, 아직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이 아직 없어도, 함께 모여 두 손을 모으는 그 자리는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그 다락방에 앉아 있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믿음의 걸음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아 애타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홀로 믿음을 지키는데 부모나 형제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다른 아들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 속으로만 말씀을 품고 견디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세월 끝에,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다락방에 나란히 앉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정을 두고 흘리는 기도의 눈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는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그 다락방에는 유다가 남긴 아픈 빈자리가 있었고, 끝까지 함께 걸었으나 선택받지 못한 요셉 유스도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상처를 남기고 떠난 빈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맛디아가 뽑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선 요셉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락방의 사람들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남이 몰라주어도 내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드린 봉사와 기도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열한 사도와 여인들과 마리아와 아우들이 어떻게 그 다락방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노래했습니다. 그는 그 연합을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을 때 아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노래입니다.

다락방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준 것도 그들의 착한 성품이 아니라 위로부터 흘러내린 은혜였습니다. 잡히시던 밤,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은 유다의 빈자리까지 다 아시면서, 남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서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달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훨씬 전에, 십자가로 가시던 주님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막힌 담을 허무셨으며,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모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기도의 자리와 마음들을 지나왔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 모인 예루살렘 다락방, 십자가 아래를 지나 아들들과 함께 두 손을 모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제비를 맡긴 백이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먼저 기도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약속이 오기 전에도, 함께 모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 아직 약속하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날에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들과 한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작은 모임을 한마음으로 묶어 주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음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 공부거리

1. '마음을 같이하여' ὁμοθυμαδόν(호모뒤마돈, 1:14) — ὁμός(같은)와 θυμός(마음·열정·숨결)가 합쳐진 부사로, 본래 여러 음이 하나의 화음을 내듯 한마음으로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11회 쓰였는데 그중 10회가 사도행전(1:14; 2:46; 4:24; 5:12 등)에 집중되어 초기 교회 공동체의 핵심 특징을 보여 줍니다. '오로지 힘쓰더라'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프로스카르테룬테스) 역시 사도행전(1:14; 2:42, 46; 6:4)과 로마서 12:12 등에서 기도에 줄기차게 전념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2.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1:14) — 마리아가 신약성경 서사에서 이름으로 언급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던 어머니(눅 2:19, 51)이자 십자가 곁을 지켰던 어머니(요 19:25-27)가, 공생애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우들(요 7:5; 막 3:21, 31-35)과 함께 부활·승천 이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고전 15:7에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신 기록이 나옴). 5월 9일 어버이주일의 결을 인위적인 효도 설교로 흐르지 않게 하면서도 본문 14절의 마리아와 아들들의 화해와 연합으로 깊이 있게 살렸습니다.

3. 가룟 유다의 최후(1:18-19 ↔ 마 27:3-10) — 마태는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지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기록하며, 누가는 유다가 불의의 삯으로 밭을 샀고(대제사장들이 그의 돈으로 산 것을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수사적 표현)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졌다고 기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목을 맨 가지나 줄이 끊어져 추락한 동일 사건의 선후 과정으로 조화시키는 해석이 널리 쓰입니다.

4.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καρδιογνώστα πάντων(카르디오그노스타 판톤, 1:24) — 신약에서 행 1:24과 15:8('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두 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겪으며 사람의 안목의 한계를 절감한 제자들이 삼상 16:7; 왕상 8:39; 렘 17:10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 선택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5. 평일 매일묵상과의 관계 — 같은 주 목요일(5/6)은 승천일 절기 본문(행 1:6-11)이므로, 오늘 주일 본문(1:12-26)은 승천 직후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12절부터 자연스럽게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또한 제비뽑기가 오순절 이전의 마지막 사례라는 점을 짚어 다음 주(5/16) 성령강림절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 묵상 질문

1. 아직 오순절의 강한 바람이나 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목사님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지켜 내고 계신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2. 이름 없이 주님과 함께 걸었으나 맛디아가 뽑힌 뒤 조용히 제자리에 남은 요셉(바사바)처럼, 사람의 눈이 아니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아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1. 행 1:12-26 — 요약(도입) / 1:14 — 인용(부분)

2. 행 1:12 — 인용 / 요 21:15-22 — 요약(지난주) / 행 1:3 — 요약

3. 행 1:4 — 인용(부분) / 1:9-10 — 요약 / 1:11 — 인용(뒷부분)

4. 행 1:13 — 인용 / 눅 6:12-16 — 요약

5. 행 1:14 — 인용

6. 눅 2:19 — 인용(부분) / 2:34-35 — 인용(부분)

7. 요 19:25 — 인용 / 19:26-27 — 인용(부분, '보라 네 어머니라')

8. 막 3:21 — 요약 / 요 7:5 — 인용 / 고전 15:7 — 요약

9. 행 1:14 — 인용(뒷부분)

10. 행 1:15 — 인용

11. 행 1:16-17 — 인용

12. 행 1:18-19 — 인용 / 마 27:3-8 — 요약

13. 행 1:20 — 인용(시 69:25; 109:8 인용 구절)

14. 행 1:21-22 — 인용

15. 행 1:23 — 인용

16. 행 1:24-25 — 인용 / 요 13:21, 29 — 요약

17. 삼상 16:1, 6 — 인용(부분) / 16:7 — 인용 / 왕상 8:39 — 인용(끝부분)

18. 행 1:26 — 인용 / 잠 16:33 — 인용 / 행 13:2-3 — 요약

19. 행 1:14 — 요약(우리 자리) / 1:24 — 인용(부분, 우리 자리)

20. 시 133:1-3 — 요약

21. 요 17:11-12 — 인용 / 17:20-21 — 인용(부분)

22. 행 1:24 — 인용(앞부분, 마침 기도)

※ '마음을 같이하여'(1:14 ὁμοθυμαδόν) — 역본에 따라 'with one accord',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등으로 옮겨지므로 원어 풀이 문장을 역본 표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어 주세요.

※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1:24)와 삼상 16:7('중심을 보느니라'), 왕상 8:39('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 역본에서 'heart'로 같은 낱말이 쓰였는지 확인.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열흘 동안 한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던 사람들, 사도들 곁에 함께 앉은 어머니와 한때 믿지 않던 동생들, 빈자리를 채우려 세움 받은 사람 → 마리아, 맛디아

- 흔한 생각: 오순절로 넘어가기 전의 짧은 막간이나 제비 뽑아 사도 수를 채운 절차 이야기로만 읽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아직 바람도 불도 오지 않았고 유다의 쓰라린 빈자리까지 남아 있던 그 다락방을 누가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14절)고 적음 /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한때 주님을 믿지 않던 아우들과 한자리에서 기도함 / 사람의 눈이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겪은 공동체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고 중심을 보시는 주께 선택을 맡김

- 원포인트: 약속이 오기 전에도, 함께 모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 여운: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 원어 포인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약 1km), 휘페로온(다락방), 호모뒤마돈(마음을 같이하여 — 화음), 프로스카르테레오(오로지 힘쓰다), 카르디오그노스타(마음을 아시는 주여)

- 평행본문 세 장면: 말구유와 십자가 곁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눅 2:19, 34-35; 요 19:25-27; 7:5 —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던 세월 끝에 아들들과 다락방에 함께 앉아 기도함) ·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삼상 16:6-7; 왕상 8:39 —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 형제의 연합과 다락방에서 먼저 드려진 주님의 기도(시 133:1-3; 요 17:11-12, 20-21 —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과 이슬처럼,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승천하사 중보하시는 주님) — 각각 14절·24절·그리스도 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5/2 해변에서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들은 베드로 → 1:15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씀을 펴는 베드로 / 5/6(평일 승천일) 행 1:6-11 → 1:12 감람산에서 돌아오는 걸음 / 요 13:21, 29 만찬석에서 몰라본 유다 → 1:16-25 성경으로 해석하고 마음을 아시는 주께 맡김 / 1:14 다락방의 기도 → 5/16(행 2:1-13) 오순절 바람과 불로 이어짐

- 우리 자리: 약속은 들었으나 아직 바람이 불지 않는 기다림의 계절에 흩어지지 않고 모여 기도하는 자리 / 믿음의 걸음이 다른 가족을 두고 흘리는 눈물 — 마리아와 아우들이 마침내 함께 앉은 다락방의 소망 / 떠난 사람의 빈자리와 뽑히지 않은 요셉 유스도의 자리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음

- 그리스도 착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시 133:1)은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과 이슬에서 옴 →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위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신 주님(요 17:11-12, 20-21) →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지나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락방 사람들을 하나로 묶음

- 중심 그림 하나: 다락방의 기도하는 사람들 — 처음(예루살렘 위층 다락방, 창밖은 아직 고요한 낮빛, 둘러앉아 두 손을 모은 사도들과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 · 중간(십자가 아래 선 마리아 / 이새의 집에서 기름 뿔병을 든 사무엘 / 만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주님) · 끝(다락방 한가운데 놓인 두 제비와 무릎 꿇은 사람들 → 오늘의 작은 예배당과 가정에서 손을 모은 가족).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고즈넉한 다락방 안, 아직 바람이 불기 전의 고요한 빛 속에서 한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마리아와 제자들).

- 제목: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 — 14절의 핵심 표현. 다른 후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을 아시는 주께 묻는 사람들」

2027년 5월 16일 주일

각 나라 말로 듣는 사람들

사도행전 2:1-13 · 본문 사도행전 2:1–13 (스바냐 3:9)

성경에는 명절을 맞아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들이, 고향에서 쓰던 어머니의 말을 낯선 성읍 한복판에서 듣고 걸음을 멈추는 아침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락방에 앉은 사람들 위에 하나씩 내려앉은 날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인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아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야기를 떠올릴 때 흔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과 불이 내려와 제자들이 놀라운 방언을 말한 사건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읽어 보면, 누가가 가장 길게 붙들고 있는 자리는 말하는 제자들의 입술만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는 귀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울려 퍼진 예루살렘 거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올라가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유다가 떠난 빈자리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맛디아를 세워 열두 사도의 그릇을 다시 채운 열흘이었습니다. 아직 바람도 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도 없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오늘 본문 1절이 열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유월절 어린양이 잡히던 날로부터 일곱 번의 안식일을 지나 오십 일째가 되는 날, 구약에서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 부르던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여기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할 때 이미 이르매로 옮긴 헬라어 쉬넴플레루스다이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은 빈 잔이나 그릇에 물이 차오르듯 정해진 시간이 마침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보낸 열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가 한 방울씩 차올라 마침내 가득 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득 찼을 때에도 그들은 다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2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연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위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사람이 밑에서부터 만들어 낸 열기나 함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숨과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프뉴마라는 같은 낱말을 씁니다. 에스겔 37장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 낸 생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잠긴 문 안으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생명의 숨결이 기억나십니까? 그 숨결이 이제는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우는 하늘의 큰 바람 소리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불이 혀의 모양으로 보였을까요? 혀는 말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하늘의 불이 그들의 입술과 혀를 사로잡아,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전하게 하신다는 생생한 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특별한 지도자나 선지자에게만 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큰 불덩어리 하나가 방 한가운데로 떨어져 사도들만 비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약 백이십 명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위에도, 이름 없이 뒤를 따랐던 맛디아와 요셉 유스도 위에도, 십자가 아래를 지켰던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 위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바람 소리와 불 앞에서 구약의 한 산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은 시내산의 그 아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도 하늘로부터 큰 소리와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의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까 하여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게 하는 두려운 불이었습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고, 말씀은 차가운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한 불과 바람은 달랐습니다. 경계를 세워 사람을 멀리 물리치는 불이 아니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는 불이었습니다. 돌판 위에 글자를 새기는 불이 아니라,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영을 새겨 넣는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가득 차자, 그들은 다락방 문을 닫아걸고 자기들끼리만 황홀한 체험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이 보여 주듯 당시 세상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던 외국어와 지방 방언들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눈길은 다락방 안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옮겨 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어서 6절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하고 적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옛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지중해와 메소보다미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먼 길을 걸어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노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큰 바람 소리와 제자들의 말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큰 무리가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를 기울였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 갈릴리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투박한 억양 때문에 입만 열면 금방 갈릴리 사람인 줄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오십여 일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고향 사투리조차 숨기지 못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옮긴 헬라어는 이디아 디알렉토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말,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처음 배운 모국어를 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순절 날 하늘의 권위를 보여 주려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한 히브리어로만 듣게 하시거나,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로만 듣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마음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말로 찾아오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고향 이름이 숨 가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어서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누가는 왜 이 열다섯 곳의 낯선 지명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 길게 적어 넣었을까요?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이 이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온 세상을 한 바퀴 도는 원입니다. 동쪽 끝 바대와 메대와 엘람과 메소보다미아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남쪽의 애굽과 북아프리카 리비야를 지나, 서쪽 바다 건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고, 지중해의 섬 그레데와 사막의 아라비아까지 아우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가 유대교에 들어온 개종자들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남기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땅 끝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놓으시고, 각 사람의 고향 말로 복음의 첫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다섯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옮긴 타 메갈레이아 투 데우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말소리와 억양은 바대 말, 애굽 말, 로마 말, 아라비아 말로 서로 달랐지만, 그 모든 말에 담긴 알맹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성경의 아주 오래된 두 자리가 겹쳐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스바냐 3장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을 바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 한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교만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7절과 8절처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늘로 올라가려 했을 때, 말이 엉키고 귀가 막혀 서로 알아듣지 못한 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바벨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에서는 사람이 하늘에 닿으려 올라가다가 흩어졌지만, 오순절에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한자리로 모으십니다. 바벨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서로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벨의 저주를 푸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온 세상의 말을 다 지워버리고 단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은 여러 백성의 다양한 말과 삶을 그대로 존중하셨습니다. 다만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더러워졌던 입술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셔서, 각자의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화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아침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같은 바람 소리를 듣고 같은 광경을 보았는데도, 한쪽 사람들은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 문을 연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질문이 있었기에 바로 다음 절인 14절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삼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며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새 술이라고 옮긴 글류쿠스는 달콤하고 독한 새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아침 아홉 시부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가벼운 조롱 한마디로 덮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묻는 귀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렸지만, 비웃으며 닫아 버린 귀에는 취한 사람들의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바람과 불부터,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말과 귀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보다 훨씬 더 많은 말과 소리가 넘쳐 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부모의 말과 자녀의 말이 다른 나라 말처럼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튕겨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아픔을 꺼내 놓아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의 자리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언어가 너무 높고 낯설어서, 오늘 내가 겪는 고단한 현실과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다락방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도, 내가 더 거룩한 말투를 배워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알아듣고 만나 주실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아침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나님은 먼 땅에서 걸어온 나그네들에게 먼저 거룩한 성전의 말을 배워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의 투박한 입술을 빌려, 각 사람이 태어난 고향의 말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찾아오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는 눈물의 말로 다가오시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조용한 위로의 말로 다가오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고향 말처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새 술에 취하였다 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의 닫힌 귀가 아니라,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겸손히 묻던 사람들의 열린 귀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입술도 성령의 불로 깨끗해져서,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따뜻한 말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옳음을 증명하려는 바벨의 말을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해 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오셨을 때 온 세상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졌을까요? 그 큰 일 한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로부터 오십 일 전 유월절 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총독 빌라도는 조롱하려는 마음으로 패를 써 붙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적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은 당시 세상의 종교와 권력과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못 박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말로 나사렛 예수가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바람과 불은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각 나라 말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말로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차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하늘 보좌 앞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벨에서 흩어졌던 온 땅의 방언들이,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하나의 구원 노래로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소리와 말들이 울려 퍼진 자리들을 지나왔습니다. 시내산의 두려운 불을 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은 오순절 다락방의 불의 혀가 있었습니다. 투박한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향 말로 복음을 들은 열다섯 지역의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다 말이 흩어진 바벨탑과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던 스바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말로 죄패가 붙었던 십자가를 지나 아버지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 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십니다.

말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같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찾아오시는 주님,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들에게 어머니의 고향 말로 찾아가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곁에 있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말로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 공부거리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συμπληροῦσθαι(쉬넴플레루스다이, 2:1) — '함께 가득 채우다'라는 뜻으로, 누가복음 9:51('그가 올라가실 기약이 차가매')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순절(Πεντηκοστή,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레 23:15-16의 칠칠절·맥추절)이 달력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시간표가 가득 찼음을 보여 줍니다.

2. 바람과 불,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2:2-3) — 바람·숨·영(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프뉴마)은 창 2:7; 겔 37:9; 요 3:8; 20:22를 잇는 성령의 생기를 나타내며, 불은 출 3:2(떨기나무)과 출 19:18(시내산 강림)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시내산에서는 불이 산 위에만 임하고 백성은 경계선 밖에서 떨었으나(출 19:12, 16), 오순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ἐκάθισέν τε ἐφ᾽ ἕνα ἕκαστον αὐτῶν) 내려앉아 새 언약 백성 전체가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3.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ἰδίᾳ διαλέκτῳ(이디아 디알렉토, 2:6, 8) — 고린도전서 12~14장의 통역이 필요한 신비적 방언과 달리, 본문 2:4-11의 방언은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태어난 고향의 모국어·지방어들로 곧바로 알아들은 사건입니다. 말한 이는 갈릴리 사람들(2:7; 비교 마 26:73)인데 들은 이들은 동서남북 15개 지역의 고향 말로 '하나님의 큰 일'(τὰ μεγαλεῖα τοῦ Θεοῦ, 2:11)을 들었습니다.

4. 바벨탑(창 11:1-9)과 스바냐 3:9의 회복 — 바벨에서는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자'(창 11:4) 하며 올라가다가 언어가 혼잡해져 흩어졌으나, 오순절에는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사 '하나님의 큰 일'(행 2:11)을 각 나라 말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언어를 지워 획일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습 3:9) 하신 예언의 성취이자 계 7:9-10의 열방 예배의 첫 열매입니다.

5. 두 반응(2:12-13) — '이 어찌 된 일이냐'(τί θέλει τοῦτο εἶναι,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열린 마음으로 묻는 이들과, '새 술(γλεύκους, 달콤한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조롱하며 닫아 버리는 이들이 대조됩니다. 열린 질문이 14~36절 베드로의 설교와 37절('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로 이어집니다.

■ 묵상 질문

1.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히브리어가 아니라 나그네들이 태어난 '고향 방언'으로 찾아오셨듯, 오늘 내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친숙한 말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2. 같은 말을 쓰면서도 바벨처럼 마음이 흩어진 가정이나 이웃 사이에서, 내 옳음을 세우는 말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깨끗하고 따뜻한 입술로 건네야 할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1. 행 2:1-13 — 요약(도입) / 2:8 — 인용

2. 행 1:12-26 — 요약(지난주)

3. 행 2:1 — 인용

4. 행 2:2 — 인용

5. 겔 37:9 — 요약 / 요 3:8 — 인용 / 요 20:22 — 인용(부분)

6. 행 2:3 — 인용 / 요엘 2:28-29(행 2:17-18) — 요약

7. 출 19:16, 18 — 인용

8. 행 2:4 — 인용

9. 행 2:5-6 — 인용

10. 행 2:7-8 — 인용 / 마 26:73 — 인용(부분)

11. 행 2:9-11 — 인용 / 행 1:8 — 인용

12. 창 11:1, 4, 7-8 — 인용

13. 습 3:9 — 인용

14. 행 2:12-13 — 인용

15. 요 19:19-20 — 인용

16. 행 2:33 — 인용

17. 계 7:9-10 — 인용

※ '이미 이르매'(2:1 συμπληροῦσθαι) — 역본에 따라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 had fully come' 등으로 옮겨지므로 원어 풀이 문장을 역본 표현에 맞춰 이어 주세요.

※ '난 곳 방언'(2:8)과 '각 언어'(2:11) — 역본에서 'native language / own tongue' 등으로 옮겨진 표현과 맞춰 주세요.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명절을 맞아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들이 고향에서 쓰던 어머니의 말을 낯선 성읍 한복판에서 듣고 걸음을 멈추는 아침,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들려오는 거리 → 갈릴리 제자들과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 흔한 생각: 하늘에서 바람과 불이 내려와 제자들이 신기한 방언을 말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누가가 가장 길게 붙들고 있는 자리는 말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천하 각국 열다섯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는 '귀의 자리'임 / 시내산의 불은 경계를 세워 물리쳤으나 오순절의 불은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음

- 원포인트: 성령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십니다. (+ 여운: 말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같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요.)

- 원어 포인트: 쉬넴플레루스다이(이미 이르매 — 때가 가득 참), 루아흐·프뉴마(바람·숨·영), 이디아 디알렉토(각 사람이 난 곳 방언 — 모국어), 타 메갈레이아 투 데우(하나님의 큰 일), 글류쿠스(새 술)

- 평행본문 세 장면: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출 19:16-19 — 경계를 세우고 떨게 하던 시내산의 불과 달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은 오순절의 불) · 시날 평지의 바벨탑과 스바냐의 약속(창 11:1-9; 습 3:9 — 우리 이름을 내려다 말이 혼잡해져 흩어진 바벨과 달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심) · 세 나라 말로 적힌 십자가의 죄패와 보좌 앞 열방의 찬양(요 19:19-20; 행 2:33; 계 7:9-10 — 히브리·로마·헬라 말로 왕이심이 선포된 십자가를 지나, 아버지 우편에 오르신 주님이 부어 주신 성령으로 각 나라와 방언이 어린 양을 찬양함) — 각각 2-3절·9-11절·그리스도 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5/9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120명(행 1:14-15) → 2:1-3 다같이 한곳에 모인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불의 혀 / 4/18 부활의 저녁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요 20:22) → 2:2 온 집에 가득한 하늘의 바람 소리 / 2:12 '이 어찌 된 일이냐' 묻는 귀 → 5/23(행 2:37-47)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로 이어짐

- 우리 자리: 같은 말을 쓰면서도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외로움과 신앙 언어가 멀게만 느껴지는 자리 / 거룩한 말을 배워 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모국어와 눈물의 말로 먼저 찾아오시는 성령 / 조롱하며 닫는 귀('새 술에 취하였다')가 아니라 겸손히 묻는 귀('이 어찌 된 일이냐')와 이웃의 말로 사랑을 번역하는 깨끗한 입술

- 그리스도 착지: 히브리·로마·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골고다 십자가(요 19:19-20) → 부활·승천하사 하나님 오른손으로 높여지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 부어 주신 성령(행 2:33) → 마침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부를 구원의 노래(계 7:9-10)

- 중심 그림 하나: 불의 혀와 각 나라 말로 듣는 거리 — 처음(다락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과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은 작은 불꽃, 그 아래 예루살렘 골목으로 모여든 각양 복장의 순례자들) · 중간(연기와 불로 진동하는 시내산 / 미완성으로 멈춘 바벨탑 / 세 나라 말 패가 붙은 십자가) · 끝(예루살렘 거리에서 놀라 귀를 기울이는 열다섯 지역의 나그네들 → 어린 양 보좌 앞에 선 흰옷 입은 열방의 무리). 원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예루살렘 거리에서 서로 다른 고향 옷을 입은 나그네들이 갈릴리 제자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이 밝아지는 모습).

- 제목: 「각 나라 말로 듣는 사람들」 — 6, 8, 11절의 중심 동작. 다른 후보: 「고향 말로 큰 일을 듣는 사람들」, 「바람과 불이 임한 다락방의 사람들」

2027년 5월 23일 주일

떡을 떼며 모이는 사람들

사도행전 2:37-47 · 본문 사도행전 2:37–47 (고린도전서 10:16–17)

성경에는 불과 오십 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성읍에서,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로 돌이키는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과 불이 사람들의 밥상과 주머니 풍경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이야기,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을 때 흔히 무엇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유무상통하며 내 것 네 것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이상적인 공동체,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 하기 어려운 아득한 옛날의 모범 답안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운 식탁은 도덕적인 결심이나 엄격한 규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픈 찔림이 어떻게 가장 따뜻하고 기쁜 밥상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갈릴리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천하 각국 열다섯 지역에서 모여든 나그네들이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웃었지만, 마음을 연 이들은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시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오늘 본문 37절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경꾼처럼 서서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신기한 구경거리를 묻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경꾼의 호기심이 죄인의 탄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옮긴 헬라어 카테뉘게산 텐 카르디안은 날카로운 창끝이나 송곳으로 심장을 깊이 찌른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한 구절에만 쓰인 아주 강렬한 말입니다. 오십 일 전 골고다 언덕에서는 로마 군병의 창끝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사도의 말씀이, 주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의 굳은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던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쳐서 분노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사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찔림은 달랐습니다. 죽이는 칼에 찔린 상처가 아니라, 굳어 버린 영혼을 살려 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째고 들어온 거룩한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변명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듯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 앞에서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떠오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던 마음에는 아무리 빗물이 쏟아져도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내립니다.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의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바늘에 찔려 아파할 줄 아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그 아픔 자체가 이미 성령이 그들 안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 아픈 질문에 베드로가 길을 열어 줍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어서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분의 이름이, 자기들을 심판하여 죽이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씻어 주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죄 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의 사도들이 받았던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이 약속의 지경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너희와, 앞으로 태어날 너희 자녀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모든 먼 데 사람들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절망하던 막다른 골목 끝에서, 하나님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라는 가장 넓은 대로를 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41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던 백성

가운데 그날에 칼에 엎드러진 사람이 삼천 명 가량이었습니다. 율법의 돌판이 내려오던 날에는 삼천 명이 죽었지만,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신 날에는 말씀에 찔린 삼천 명이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삼천 명이 세례를 받고 은혜로운 집회가 끝났다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4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옮긴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는 지난 다락방 이야기에서도 보았던 낱말입니다. 한두 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 끈기 있게 붙들고 머문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아침의 뜨거운 바람과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황홀한 감정만 좇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 아래로 들어가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성령이 여신 마음은, 날마다 함께 떡을 떼는 식탁이 됩니다.

42절의 네 가지 기둥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과 떡을 떼며라는 말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라고 옮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진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의 삶과 짐과 소유까지 깊이 나누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가장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함께 떡을 떼는 식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4절과 45절은 그 사귐이 어디까지 깊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나그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뒤,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배우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미루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여비가 떨어지고 머물 집과 먹을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집과 밭을 가지고 살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세금을 매기거나 재산을 다 바치라고 법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5절에서 팔아와 나눠 주며라는 동사는 모두 헬라어 미완료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모든 사유 재산을 다 없애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절실한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기 밭이나 물건을 팔아 그 필요를 채워 주는 일이 거듭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자, 평생 움켜쥐고 살던 주머니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온 형제의 빈 그릇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고 내 식구의 배고픔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언약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7절, 8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어서 7절과 8절은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하고 당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손을 움켜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끝내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움켜쥐었던 손이 펴졌습니다. 율법의 강제로도 열리지 않던 사람들의 손이, 성령이 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스스로 열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길은 46절과 47절의 따뜻한 풍경으로 향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마칩니다.

그들은 날마다 두 곳을 오갔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각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같은 성전 뜰에 함께 모여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 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골목골목 성도들의 작은 집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옮긴 헬라어 아펠로테티 카르디아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펠로테스라는 말은 원래 돌멩이가 하나도 박혀 있지 않은 평평하고 부드러운 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밭에 모난 돌멩이가 박혀 있으면 쟁기질할 때 걸리고 씨앗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내놓았으니 저 사람도 그만큼 대접해야지 하는 계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비교와 시기가 마음 밭에 돌멩이처럼 박혀 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식탁에는 그런 모난 돌멩이가 없었습니다. 내 것을 팔아 내어 놓은 사람도 자랑하지 않고, 빈손으로 와서 대접을 받는 나그네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했기에, 그들의 마음 밭은 돌멩이 하나 없이 평평하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어도 하늘의 기쁨이 넘쳤고, 그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찬미 소리를 보고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 주며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드신 그 따뜻한 식탁의 향기를 맡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신 마음은, 날마다 함께 떡을 떼는 식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던 삼천 명의 회개부터,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던 예루살렘 교회의 식탁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오늘 우리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식탁은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고개를 끄덕일 뿐, 정작 내 마음이 찔리는 아픔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불편한 말씀 앞에서는 슬그머니 마음 문을 닫아 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는 자리를 예배당 안의 뜨거운 기도나 눈물에만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각자의 외로운 각자도생으로 돌아가고, 내 시간과 내 주머니와 내 식탁은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성령의 은혜는 먼저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찔리는 정직한 아픔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할꼬 하고 내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찔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찔려 아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새 생명과 성령의 선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은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열린 손과 열린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거창하게 전 재산을 다 팔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곁에서 지쳐 있는 가족이나 동료, 교회 안의 외로운 지체에게 내 시간을 내어 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작은 식탁이면 충분합니다. 계산하거나 따지는 마음의 돌멩이를 치워 버리고, 주님이 나를 값없이 먹이신 것처럼 나도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 주는 자리입니다. 그 작은 식탁들이 살아날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다시 세상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필 떡을 떼는 일에 그토록 마음을 쏟았을까요? 그들이 손에 들고 떼어 나눈 떡 조각마다,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식탁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주님이 손수 떼어 건네주신 그 떡이었습니다. 잡히시던 밤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이 떡 뗌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 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뗀 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한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이자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바대에서 온

나그네도,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도, 예루살렘에 살던 집주인도, 주님이 떼어 주신 그 한 떡을 나누어 먹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다 팔아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구원을 채워 주셨기에, 그 은혜를 먹고 마신 사람들도 기꺼이 자기의 떡을 떼어 형제와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찔림에서 시작하여 찬미와 구원으로 번져 간 자리들을 지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앞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던 삼천 명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던 에스겔의 약속과, 손을 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던 신명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던 사람들의 식탁 너머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 친히 찢기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성령이 여신 마음은, 날마다 함께 떡을 떼는 식탁이 됩니다.

성전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요.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식탁이니까요.

기도로 마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찌르시고 성령으로 싸매어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집과 일상의 식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마음 밭의 계산과 욕심의 돌멩이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찢기신 주님을 본받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사님 몫 카드 (공부용 — 원고에는 넣지 않음)

■ 공부거리

1. '마음에 찔려' κατενύγησαν τὴν καρδίαν(카테뉘게산 텐 카르디안, 2:37) — 동사 카타뉘쏘(κατανύσσω)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쓰인 단어로, 호메로스 이래 '날카로운 창이나 송곳으로 깊이 찌르다'를 뜻합니다. 스데반 설교 때의 '마음에 찔림'(7:54 διεπρίοντο, 톱으로 켜듯 격분함)이 교만한 분노와 살의로 이어진 것과 달리, 오순절의 찔림은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τί ποιήσωμεν, 2:37) 하는 구원 얻는 회개로 이끄는 은혜의 아픔입니다(비교 겔 36:26-27).

2. 회개·세례와 두 가지 선물(2:38-39) — 베드로는 죄인들의 질문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며, 그 결과로 '죄 사함'(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과 '성령의 선물'(τὴν δωρεὰ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을 약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심판이 아니라 사죄와 성령 수여의 근거가 되며, 이 약속은 유대인과 자녀뿐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πᾶσιν τοῖς εἰς μακράν, 사 57:19 배경; 이방인을 향한 열림)에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3. 네 가지 힘씀과 미완료 시제의 나눔(2:42, 44-45) — 초대교회가 전혀 힘쓴(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네 기둥은 ① 사도의 가르침(교리·말씀), ② 코이노니아(교제·나눔), ③ 떡을 뗌(성찬과 애찬이 결합된 식탁), ④ 기도입니다. 45절의 '팔아'(ἐπίπρασκον)와 '나눠 주며'(διεμέριζον)는 모두 미완료 과거 시제로, 일회성 공산주의나 강제 몰수가 아니라 형제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발적·반복적으로 소유를 팔아 채워 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신 15:4, 7-8의 성취).

4. '순전한 마음으로' ἀφελότητι καρδίας(아펠로테티 카르디아스, 2:46) — 명사 아펠로테스(ἀφελότης)는 '돌이 없는(a-phelleus) 매끈하고 평평한 밭'에서 유래하여, 계산·위선·시기의 걸림돌이 없는 단순하고 투명한 진심을 뜻합니다. 성전(솔로몬 행각 등 공적 모임)과 집(가정 식탁의 소그룹 교제)의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며, 안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밖으로는 온 백성에게 호의(χάριν)와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2:47).

■ 묵상 질문

1. 최근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마음이 찔려 '주님, 제가 어찌할꼬' 하고 정직하게 멈추어 섰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2.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집과 일상의 식탁으로 이어 가기 위해, 내 마음 밭에서 치워야 할 계산의 돌멩이는 무엇이며 이번 주에 떡(밥과 필요)을 나누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인용 구절표 (원고 순서 · 번역자는 각 언어 역본으로 바꿔 넣음)

1. 행 2:37-47 — 요약(도입)

2. 행 2:1-13 — 요약(지난주) / 2:36 — 인용

3. 행 2:37 — 인용 / 요 19:34; 행 7:54 — 요약

4. 겔 36:26-27 — 인용

5. 행 2:38-39 — 인용

6. 행 2:40 — 요약 / 2:41 — 인용 / 출 32:28 — 요약

7. 행 2:42 — 인용

8. 행 2:44-45 — 인용

9. 신 15:4, 7-8 — 인용

10. 행 2:46-47 — 인용

11. 눅 24:30-31 — 인용 / 고전 11:24 — 인용(부분)

12. 고전 10:16-17 — 인용

※ '마음에 찔려'(2:37 κατενύγησαν τὴν καρδίαν) — 역본에 따라 'cut to the heart / pierced to the heart' 등으로 옮겨지므로 원어 풀이 문장을 역본 표현에 맞춰 이어 주세요.

※ '순전한 마음'(2:46 ἀφελότητι καρδίας) — 역본에서 'glad and sincere hearts / simplicity of heart' 등으로 옮겨진 표현과 맞춰 주세요.

설계 메모

- 낯선 장면: 불과 오십 일 전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치던 성읍에서 삼천 명이 가슴을 치며 세례를 받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대신 날마다 성전과 집을 오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밥상 풍경 → 베드로와 사도들, 세례 받은 삼천 명의 무리

- 흔한 생각: 유무상통하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따라 하기 힘든 이상적인 옛날 모범 답안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놓치기 쉬운 틈: 그 아름다운 식탁은 도덕적 결심이나 강제 규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신 말씀 앞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던 회개의 자리와, 내가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도리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감격에서 터져 나온 것임

- 원포인트: 성령이 여신 마음은, 날마다 함께 떡을 떼는 식탁이 됩니다. (+ 여운: 성전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요.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식탁이니까요.)

- 원어 포인트: 카테뉘게산 텐 카르디안(마음에 찔려), 프로스카르테룬테스(오로지 힘쓰니라 — 끈기 있게 머묾), 코이노니아(서로 교제하고 — 생명과 필요를 나누는 사귐), 아펠로테티 카르디아스(순전한 마음으로 — 돌멩이가 없는 평평하고 맑은 마음)

- 평행본문 세 장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에스겔의 새 영 언약(겔 36:26-27 — 말씀에 찔려 아파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취됨, 출 32:28 시내산의 삼천 명 죽음과 행 2:41 삼천 명 구원의 대조 포함) ·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신 신명기의 율법(신 15:4, 7-8 — 율법으로도 열리지 않던 주머니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귐으로 이루어짐) · 엠마오의 떡 뗌과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는 성찬의 신비(눅 24:30-31; 고전 10:16-17 —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의 가족이 됨) — 각각 37-41절·42-45절·그리스도 착지를 받침

- 복선과 회수: 4/4 엠마오에서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진 식탁(눅 24:30-31) + 4/25 갈릴리 호숫가 숯불 위 생선과 떡의 아침 밥상(요 21:9, 13) + 5/9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행 1:14) + 5/16 오순절 바람과 불, '이 어찌 된 일이냐' 묻던 귀(행 2:1-12) → 5/23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삼천 명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는 초대교회 탄생으로 2027년 상반기 부활절기~성령강림절 대장정을 완결함

- 우리 자리: 말씀 앞에서 마음 찔리는 아픔을 피하려 하거나, 은혜를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고 집과 식탁의 문은 걸어 잠그는 모습 / 말씀에 찔리는 아픔을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마음 밭의 계산과 비교라는 돌멩이를 치워 버린 채 가정과 교회의 작은 식탁에서 밥과 필요

를 나누는 삶

- 그리스도 착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엠마오의 떡 뗌(눅 24:30-31) → 우리가 떼는 한 떡에 참여함으로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고전 10:16-17) → 자기의 모든 생명과 부요를 다 팔아 우리의 구원을 채워 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식탁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심

- 중심 그림 하나: 성전 뜰에서 골목길 작은 집 식탁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떡 뗌 — 처음(예루살렘 거리에서 가슴을 치며 세례를 받는 무리들) · 중간(시내산 아래의 깨어진 돌판과 에스겔의 부드러운 마음 / 엠마오의 저녁 식탁) · 끝(저녁 등불이 켜진 예루살렘의 소박한 집 마당과 방 안에서, 여러 나라 옷차림의 나그네들과 집주인이 돌멩이 하나 없는 환한 얼굴로 한 덩이의 떡을 떼어 나누며 찬미하는 모습). 원 포인트 세 번은 같은 그림(성령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작은 집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하게 떡을 떼어 나누는 모습).

- 제목: 「떡을 떼며 모이는 사람들」 — 42, 46절의 중심 동작. 다른 후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사람들」, 「마음에 찔려 돌이킨 사람들」